

# 주일 옥토이흐

## 목차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제1음조 .....                   | 2   |
| • 대저녁 기도 • 아침 기도 • 성찬식       |     |
| 제2음조 .....                   | 21  |
| • 대저녁 기도 때 • 아침 기도 때 • 성찬식 때 |     |
| 제3음조 .....                   | 38  |
| • 대저녁 기도 때 • 아침 기도 때 • 성찬식 때 |     |
| 제4음조 .....                   | 55  |
| • 대저녁 기도 때 • 아침 기도 때 • 성찬식 때 |     |
| 제5음조 .....                   | 73  |
| • 대저녁 기도 때 • 아침 기도 때 • 성찬식 때 |     |
| 제6음조 .....                   | 91  |
| • 대저녁 기도 때 • 아침 기도 때 • 성찬식 때 |     |
| 제7음조 .....                   | 109 |
| • 대저녁 기도 때 • 아침 기도 때 • 성찬식 때 |     |
| 8음조 .....                    | 127 |
| • 대저녁 기도 때 • 아침 기도 때 • 성찬식 때 |     |
| 엑사포스티라리온과 복음 스티히론 .....      | 145 |

## 음조 1

### 대저녁 기도 때

“주여, 내가 부르짖나이다”에서 10절 스티히리: 주일 옥토이히 3개, 동방 4개, 미네이 3개. 성인을 기념할 때는 옥토이히 스티히리 4개와 성인 스티히리 6개를 부른다. “영광송”: 미네이, “지금도”: 성모송 첫 번째, 해당 음조.

### 부활절 스티히라

**구절:** 내 영혼을 어둠의 감옥에서 이끌어 내소서, / 내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소서.

시편 141:8A

우리의 저녁 기도를 / 받아 주시옵소서, 거룩하신 주님, / 그리고 우리에게 죄 사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, / 주님만이 / 세상에 부활을 드러내신 분이시니.

**성구:** 의인들이 나를 기다리리니, / 주께서 내게 갚아 주실 때까지.

시편 141:8B

사람들아, 시온을 둘러싸고 / 그것을 감싸 안으며 / 그 안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께 영광을 돌리라. /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니, / 우리의 죄악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시니라.

**구절:** 주여,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, / 주여, 내 목소리를 들으소서.

시편 129:1-2A

오라, 형제자매들아, 노래하며 그리스도께 경배하자, / 그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찬양하며, /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니, / 원수의 유혹에서 세상을 구속하셨도다.

### 동방 성가

**구절:** 주의 귀가 / 나의 간구하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기를.

시편 129:2B

하늘아, 기뻐하라! / 땅의 기초들아, 나팔을 불어라! / 산들아, 기쁨을 선포하라! / 보라, 임마누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, / 생명을 주심으로 죽음을 무력화시키시며, /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로서 아담을 부활시키셨으니.

**구절:** 주여, 주여, 주께서 죄악을 살피신다면 누가 견딜 수 있겠나이까? / 주께는 용서가 있나이다.

시편 129:3-4

우리를 위해 자발적으로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, / 고난을 당하시고, 장사되셨으며, /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을 찬양하며 외치나이다: / “그리스도여, 주의 교회를 정통 신앙 안에서 굳건히 세우시고, /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하소서, / 선택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시여!”

**구절:** 주여,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주를 기다렸나이다. 내 영혼이 주의 말씀을 바랐나이다, / 내 영혼이 주를 의지하였나이다. 시편 129:5-6A

생명을 주는 주님의 관 앞에 서서, / 우리, 합당치 못한 자들이, 찬양을 드리오니 / 주님의 형언할 수 없는 자비에,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; / 이는 죄 없으신 주님께서 십자가와 죽음을 받아들이셨으니, / 세상을 위해 부활을 베풀어 주시려,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시여!

**구절:** 새벽 파수 때부터 밤까지, 새벽 파수 때부터 / 이스라엘이 주님을 의지하리로다. 시편 129:6B

아버지와 동등하시며 / 또한 영원하신 말씀이시여, / 동정녀의 태에서 불가사의하게 나셨으며, / 우리를 위해 십자가와 죽음을 기꺼이 겪으시고 / 영광 중에 부활하신 분을 찬양하며 외치나이다: / “생명의 주님이시여, 주님, 영광이 주께 있나이다, / 우리 영혼의 구세주시여!”

**영광:** 미네아의 스티히라.

**그리고 지금, 성모께:** 온 세상에 찬양받는, / 인간에게서 나오시어 주님을 낳으신 / 동정녀 마리아를 찬양하리니, / 하늘의 문이시며, 무형의 존재들의 찬가이시며, 신실한 자들의 장식이시라. / 이는 그분이 하늘이시며 신성의 성전이 되셨기 때문이니라. / 그분은 적대적인 장벽을 무너뜨리시고, / 평화를 세우시며 왕국을 열어 주셨습니다. /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버팀목이신 그분을 의지하여, / 우리는 그분에게서 태어나신 주님을 우리의 수호자로 모십니다. / 그러니 용기를 내십시오, 용기를 내십시오, 하나님의 백성들아, /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므로 원수들을 이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.

**입장.** “기쁨의 빛:”

### 프로키멘, 6음조

주님께서 왕좌에 오르셨으니, / 영광의 옷을 입으셨도다.

**절:** 주님께서 권능을 입으시고, 허리에 띠를 두르셨도다.

**절:** 그분께서 우주를 굳게 세우셨으니, 그것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.

**절:** 주님, 주님의 궁전에는 거룩함이 어울리나이다, 영원토록. 시편 92:1, 5B

그 다음에는 ‘주님, 허락하소서’라는 간절한 기도인 에크테니아와 간구하는 에크테니아가 이어집니다.

## 성가대에서 부르는 스티히라

그대의 수난으로, 그리스도여, / 우리는 정욕에서 해방되었고 / 그대의 부활로 / 썩어짐에서 구원받았습니다. / 주여, 영광이 그대께 있나이다!

**구절: 주님께서 왕좌에 오르셨으니, / 영광으로 옷 입으셨도다.**

모든 피조물이 기뻐하며, / 하늘이 즐거워하며, / 민족들이 기쁨으로 손뼉을 치게 하소서; / 이는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/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/ 죽음을 무력화시키시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며, / 타락한 아담과 그 모든 후손을 부활시키신,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.

**구절: 그분은 우주를 굳게 세우셨으니, / 그것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.**

하늘과 땅의 왕이신 주님, 헤아릴 수 없으신 분이시여, / 사람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. / 지옥은 지하에서 주님을 맞이하고 격분하였으나, / 주님을 영접한 의인들의 영혼들은 기뻐했습니다; / 아담은 지하에서 창조주이신 주님을 뵈고 부활하였나이다. / 오, 기적이며! 모든 이의 생명이신 분이 어찌 죽음을 맛보셨나이까? / 오직 주님께서 세상을 비추고자 원하셨기 때문이니, / 외치며 부르짖나이다: / “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, 주님께 영광을 돌리나이다!”

**구절: 주님, 주님의 집에는 거룩함이 마땅하니, / 주님, 영원토록.**

향유를 지고 온 여인들, / 서둘러 울며 주님의 무덤에 이르렀으나, / 주님의 지극히 거룩하신 몸을 찾지 못하고, / 천사로부터 새롭고 놀라운 기적에 대해 듣고는, / 사도들에게 외쳤다: “주님께서 부활하셨나니, / 세상에 큰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라!”

**영광송: 미네아에 수록된 스티히라, 있는 경우. 없는 경우:**

**영광, 그리고 지금, 성모송:** 보라,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졌나니, / 이는 동정녀이신 주께서 아기를 낳으셨으나, 출산 후에도 출산 전과 다름없이 계셨기 때문이니: / 태어날 아기는 하느님이셨기에, / 그분께서 자연의 법칙을 바꾸셨도다. / 그러나 오, 성모여, 당신의 성소에서 / 당신께 드리는 당신의 종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마시고, / 자비로우신 분을 당신의 품에 안으셨던 것처럼, / 당신의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/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 중보해 주소서.

**그 다음: “이제 보내 주시니:” ‘주님의 기도’ 뒤에 삼위일체 찬송**

## 트로파리

비록 돌이 유대인들에 의해 봉인되었고, / 군인들이 주님의 지극히 순결하신 몸을 지키고 있었으나, / 주님, 구세주여, 사흘 만에 부활하사, / 세상에 생명을 주셨나이다. / 그러므로 하늘의 권세자들이 생명의 주이신 주님께 외쳤나니: / “그대의 부활에 영광이 있나이다, 그리스도여; / 그대의 왕국에 영광이 있나이다; / 그대의 섭리에 영광이 있나이다, 유일하신 인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여!”

## 1부

**영광이여, 지금도, 성모여:** 가브리엘이 동정녀이신 당신께 “기뻐하라”고 외쳤으니, / 그 외침과 함께 만물의 주님께서 / 거룩한 성막이신 당신 안에서 육신을 입으셨으니, / 의로운 다윗이 말한 대로라. / 당신은 하늘보다 더 광대하게 나타나셨으니, / 당신의 창조주를 품고 계셨도다. / 당신 안에 거하시게 하신 분께 영광이 있나이다; / 당신에게서 나오신 분께 영광이 있나이다; / 당신을 통해 태어나신 분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께 영광이 있나이다.

**같은 트로파르를 “하나님이시요 주님이시여:”**

### 아침 기도 때

**“하나님이시요 주님이시여:”를 제1음조로 부르고, 부활 트로파리를 두 번, 성모송을 한 번 부릅니다(대저녁 기도 참조). 그 후 시편의 통상적인 낭송이 이어집니다.**

### 세달렌 1편씩

구세주여, 주님의 관을 지키던 병사들은 / 부활을 알리러 나타난 천사의 찬란한 광채 앞에서 마치 죽은 자처럼 굳어졌나이다. / 썩음을 없애시는 주님을 찬양하며, /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께 엎드려 경배하나이다, / 우리 유일한 하느님이시여.

**구절: 일어나소서,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, 주의 손이 높이 들리시며, / 주의 가난한 자들을 끝까지 잊지 마소서!**

시편 9:33

자발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자비로우신 주님, / 죽을 사람처럼 무덤에 안치되신 생명의 주님, / 주님의 죽음으로 *원수*의 권세를 꺾으셨나니, / 이는 주님 앞에서 지옥의 문지기들이 떨어졌기 때문이니라. / 주님은 태초부터 죽은 자들을 주님과 함께 부활시키셨으니, / 오직 한 분의 인자하신 분이시라.

**영광송, 그리고 지금, 성모송:** 우리 모두는 당신을 압나이다, 하느님의 어머니여, / 참으로 동정녀로 나타나시고 출산 후에도, / 사랑으로 당신의 자비에 의지하오니; / 이는 우리 죄인들이 당신 안에서 보호를 얻으며 / 유혹 속에서 당신 안에서 구원을 얻었나이다, / 유일하신 흠 없는 분이시여.

### 제2 절에 따른 세달렌

아침 일찍 무덤에 온 여인들은 / 천사들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. / 무덤에서 생명이 빛나올 때, / 그기적에 그들은 깜짝 놀랐나니; / 그리하여 그들은 제자들에게로 가서, / 부활의 소식을 *그들에게* 전하였도다. / 그리스도께서는 유일하신 전능자이자 강자이시니, 지옥을 이기시고, / 모든 멸망한 자들을 당신과 함께 부활시키시며, / 십자가의 능력으로 심판의 두려움을 없애셨도다.

**구절: 주님,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리니, / 주의 모든 기적을 선포하리이다.**

시편 9:2

## 1부

십자가에 못 박히신, 모든 이의 생명이시며, / 죽은 자들 가운데에 속하신, 불멸의 주님, / 주님은 셋째 날에 부활하셨나이다, 구세주여, 아담을 썩어가는 몸에서 일으키셨나이다. / 그러므로 하늘의 권세들이 생명의 주이신 주님께 외쳤나니: / “그대의 고난에 영광이 있나이다, 그리스도여; / 그대의 부활에 영광이 있나이다; / 그대의 자비에 영광이 있나이다, 유일하신 인자이신 주여!”

**영광이여, 지금도, 성모** 마리아여: 주님의 거룩한 성소이시여! / 끔찍한 절망의 심연과, / 죄와 슬픔에 빠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; / 주님은 죄인들에게 구원이 되셨고, / 도움이 되셨으며, 든든한 보호자가 되셨으니, / 주님의 종들을 구원하소서.

**그 다음 ‘흠 없는 이들에 대한’ 트로파리와 소에크테니아.**

### 이파코이

강도의 회개가 낙원을 차지하였고, / 향유를 바친 여인들의 울음은 기쁨을 알렸으니, / 주 그리스도 하나님이지요, / 세상에 큰 자비를 베푸시는 주께서 부활하셨나이다.

### 성가. 안티폰 1

나의 슬픔 속에서 / 나의 고통을 들어주소서, 주님, / 주님께 부르짖나이다.

은둔하는 자들에게는 / 끊임없이 신성한 열망이 깃들어 있으니, / ~~나~~ 헛된 세상 밖에 있는 자들처럼.

**영광송:** 성령께서는 존귀와 영광이 마땅하니, / 아버지께와 마찬가지로 아들에게도 함께 있나니: / 그러므로 우리는 / 유일하신 삼위일체께 찬양하리이다.

**그리고 지금: 우리는 같은 내용을 되풀이합니다.**

### 안티폰 2

주님의 율법의 산으로 나를 높이셨으니, / 덕행으로 ~~나~~를 단장하소서, 하느님, / 그리하여 내가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.

오 말씀이시여, 당신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으사, /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소서, / 죄의 불길에 타지 않게 하소서.

**영광송:** 성령으로 온 피조물이 새롭게 되어, / 태초로 돌아가나니; / 이는 그분이 성부와 성자와 동등하시기 때문입니다.

**그리고 지금: 우리는 같은 내용을 되풀이합니다.**

### 안티폰 3

나에게 “주님의 딸로 가자”고 말한 이들로 말미암아 / 내 영혼이 기뻐하며, / ~~나~~마음도 함께 기뻐하도다.

## 1부

다윗의 집에는 큰 경외심이 있나니, / 거기서, 배치된 보좌들 앞에서, / 땅의 모든 족속과 민  
족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니라.

**영광:** 성령께서는 존경과 경배와 영광과 권능을 / 성부와 성자에게 마땅히 드려야 하오니; /  
삼위일체는 본질상 하나이시나, 인격상으로는 다르시니라.

**그리고 지금:** 우리는 이를 다시 되풀이합니다.

### 프로키멘

“이제 내가 일어나리라, 주님께서 말씀하시니, / 내 안에서 구원을 나타내리라, 그것을 분  
명히 선포하리라!”

**구절:** 주님의 말씀은 순수하도다.

시편 11:6B, 7A

“숨 쉬는 모든 것이 주님을 찬양하라.” 하고 주일 아침 복음서를 읽습니다.

### 복음서 후 주일 찬송

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으니, / 거룩하신 주 예수님께 경배합시다, / 유일하시고 죄 없으신  
분께. / 주님의 십자가에 경배하오니, 그리스도여, / 주님의 거룩한 부활을 노래하며 찬양하오  
니, /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니, / 주님 외에는 다른 분을 알지 못하오니, / 주님의 이름을  
부르나이다. / 오라, 모든 신자들아, /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배합시다, / 보라, 십자  
가를 통해 / 온 세상에 기쁨이 임하였나니. / 항상 주님을 찬양하며, / 그분의 부활을 노래합시  
다, /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겪으시고, / 죽음으로 죽음을 무찌르셨나니.

시편 50편.

**영광송:** 사도들의 기도로, 자비로우신 주님, 우리의 수많은 죄를 씻어 주소서.

**그리고 이제:** 성모 마리아의 기도로, 자비로우신 주님, 우리의 수많은 죄를 씻어 주소서.

**그 후, 제6음조:**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, 하느님, 주님의 크신 자비와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나  
의 죄악을 씻어 주소서.

**그리고 스티히라:**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으니, / 예언하신 대로, / 우리에게 영원한 생  
명과 / 큰 자비를 베푸셨도다.

**그리고 기도:** 하나님이니여, 당신의 백성을 구원주소서:

### 카논

첫 번째는 주일용 4음조, 두 번째는 십자가 부활용 3음조, 세 번째는 성모송 3음조 및 미네이 4음조. 성인을  
기념하는 날(6음조)에는 십자가 부활용 2음조와 성모송 2음조를 사용한다.

### 제1곡

제1 캐논

**이르모스:** 불멸의 주님, 주님의 승리의 오른손은 / 신성한 힘으로 영광을 얻었나니: / 이는 그 손이 전능하사 원수들을 꺾으시고, / 이스라엘 백성에게 / 깊은 물 속을 지나갈 새로운 길을 열어 주셨음이니라.

**후렴:** 주님, 주님의 거룩한 부활에 영광을 돌리나이다.

주께서는 태초에 지극히 깨끗하신 손으로 / 신성한 행하심으로 나를 흠에서 창조하시고, / 십자가 위에서 두 팔을 펼치시어, / 땅에서 내 썩어질 몸을 주께로 부르셨으니, / 그 몸은 동정녀에게서 받으신 것이로다.

나를 위하여 죽음을 겪으시고 / 당신의 영혼을 죽음에 내어주셨으며 / 신성한 숨결로 내 영혼에 생명을 불어넣으신 분; / 그리고 영원한 숙박에서 해방시켜 당신과 함께 부활시키시어, / 그분은 *나*를 불멸로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.

**성모 찬가:** 기뻐하라, 은총의 샘이여; / 기뻐하라, 하늘의 사다리여; / 기뻐하라, 등불이요 황금 그릇이여 / 그리고 쪼개지지 않는 산이여, / 세상에 생명의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낳으신 분이여.

## 제2 개논

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하심으로 나를 신성하게 하시고; / 그리스도께서는 낮추심으로써 나를 높이시며; /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의 본성을 겪으시며 *나*를 무정하게 만드시니, 생명의 주님이시라; / 그러므로 나는 감사의 찬송을 부르나니, /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이다.

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십자가 처형으로 나를 높이시며; /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죽음으로 나를 당신과 함께 부활시키시며; / 그리스도께서는 내게 생명을 주십니다. / 그러므로 기쁨으로 손뼉을 치며, / 구세주께 승리의 찬송을 부릅니다; / 이는 그분이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.

**성모송:** 동정녀여, 주님을 잉태하시고, / 동정녀로 남으시며 그리스도를 낳으셨나니, / 당신에게서 성육신하신 지극히 순결하신 분 – / 위격으로는 유일하시고 독생자이시며, / 두 본성으로 알려지시는 아들이시니; / 이는 그분이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.

## 제3 개논

우리의 미약함 속에서 / 그대께 어떤 합당한 찬송을 / 바칠 수 있겠나이까, / 가브리엘이 은밀히 가르쳐 주신 그 기쁜 찬송 외에는: / “기뻐하라, 동정녀 성모여, / 결혼을 알지 못하신 어머니여!”

영원히 동정녀이시며 하늘 군대의 왕의 어머니이신 분께 /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, 신실한 자들이여, / 영적으로 외치나이다: / “기뻐하라, 성모 동정녀여, / 혼인을 알지 못하신 어머니여!”

## 1부

무한한 깊이를 지닌 / 당신의 헤아릴 수 없는 잉태, 전적으로 순결하신 분이시여. / 이제, 의심 없는 믿음으로, / 우리는 진심으로 당신께 *경의*를 표하며 말하노니: / “기뻐하라, 성모 동정녀여, / 혼인을 알지 못하신 어머니여!”

그 후, 미네아 전례서의 트로파리와 규정에 따른 카타바시아를 부른다.

## 제3곡

### 제1 캐논

**이르모스:** 유일하신 분이시여, 필멸자의 본성의 연약함을 아시고, / 연민으로 그 형상을 취하신 분이시여! / 저를 위에서 힘으로 묶어 주시여, 주님께 이렇게 부르짖게 하소서: / “주님의 지극히 순결한 영광의 / 생명이 깃든 성전,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시여!”

나의 하나님이신 주님, 선하신 분이시여, / 타락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, / 내게 내려오시기를 기꺼이 허락하시여, / 주님의 십자가로 나를 높이 들어 올리시니, / 내가 주님께 부르짖게 하소서: / “거룩하신 영광의 주님, / 선하심이 헤아릴 수 없으시도다!”

위격적 생명이신 그리스도여, / 그러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으로서 파멸에 이른 나를 입으시고, / 죽음의 흙 속으로 내려가신 주님, / 주님은 죽음의 *사슬*을 끊으시고 / 셋째 날에 부활하사, / 죽은 자들에게 불멸을 입히셨나이다.

**성모송:** 성령으로 태중에 하느님을 잉태하셨으나, / 동정녀이신 주님은 타지 않으셨습니다: / 타지 않고 타오르던 가시덤불이, / 율법자 모세에게 주님을 분명히 예고하였으니, / 견딜 수 없는 불을 받아들이신 분이시니이다.

### 제2 캐논

길 잃은 양을 자신의 어깨에 메시고 / 나무로 그 죄를 없애신 / 그리스도 하느님께 외치자: / “우리의 존엄을 높이신, / 거룩하시도다, 주님!”

지옥에서 위대한 목자 그리스도를 높이 올리시고 / 사도들을 통해 그분의 성직 지도자들에게 / 민족들을 돌보도록 지혜롭게 맡기신 분께, / 우리 신자들은 진리 안에서 / 신성한 성령으로 섬기겠습니다.

씨 없이 동정녀에게서 자발적으로 성육신하신 아드님께, / 그리고 신성한 권능으로 / 출산 후에도 *당신의* 어머니를 순결한 동정녀로 보존해 주신 분께, - / 만물의 주님이신 하나님께, - 외치자: / “주님, 당신은 거룩하십니다!”

### 제3 캐논

처녀여, 우리는 당신을 가벼운 구름이라 / 거짓 없이 부릅니다, / 예언자들의 말씀을 따르며: / 주님께서 당신을 통해 오셔서 / 이집트의 거짓 우상들을 무너뜨리고 / 그들을 섬기던 자들을 깨우치셨기 때문입니다.

합창단의 예언자들은 당신을 참으로 봉인된 샘 / 그리고 닫힌 문이라 불렀으니, / - *이*는 우리에게 분명히 새겨진 상징들로서 / 당신의 동정, 만민에게 찬양받는 이여, / 당신이 출산 후에도 지켜내신 그 동정입니다.

초월적인 지성을 / 가능한 한 엿볼 수 있게 된 가브리엘은 / 기쁨의 외침을 전하며 / 온전무흠하신 동정녀이신 당신께 다가와, / 말씀의 잉태를 분명히 알리고 / 헤아릴 수 없는 탄생을 선포하였나이다.

## 제4편

### 캐논 1

**이르모스:** 신성한 은총으로 산 *처녀* 덮여 계신 당신을, / 아바쿰이 예리한 눈으로 꿰뚫어 보고, / 당신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성자가 나오실 것이라 예언하였으니, / 이는 우리의 구원과 갱신을 위함이라.

에돔에서 오신 이 구세주께서는, / 가시관을 쓰고, 주홍색 옷을 입으시고, 나무에 매달려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? / 그분은 바로 우리의 구원과 갱신을 위해 *오신* /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.

보라, 불순종하는 자들아, 부끄러워하라: / 너희가 악당으로 여겨 / 빌라도에게 미친 듯이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간청했던 그분이, /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고, / 신성하게 무덤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이다.

**성모송:** 생명의 나무이시여, 동정녀여, 우리는 당신을 인정하나이다; / 당신에게서 자라난 열매는, / 사람들에게 맛보아도 죽음을 가져오지 않고, / 우리를 구원하시어 당신을 찬양하는 자들에게 / 영생의 기쁨을 주셨나이다.

### 제2 캐논

에돔에서 오신 이 위엄 있는 분은 누구이시며, / 그분의 옷에 번진 붉은 빛은 보소르의 포도나무에서 온 것입니까? / 그분은 하나님처럼 위엄이 있으시나, / 사람으로서 피로 물든 육신의 옷을 *입으셨습니다*. / 우리 신실한 자들은 그분께 찬양합니다: / “주님, 주의 능력에 영광을 돌립니다!”

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한 장래의 복의 대제사장으로 나타나시어, / 죄를 없애시고 비범한 길을 보여 주시며, / 당신의 피로 더 나은, 가장 완전한 성막, / 곧 우리의 선구자처럼, 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.

**성모송:** 이브의 옛 빛을 갠지셨나이다, 온 세상이 찬양하는 분이시여, / 우리를 위하여 나타나신 새로운 아담이시여! / 이는 흠 없는 잉태를 통해 당신과 결합하신 / 이성적이고 생명이 깃든 육신이 당신에게서 나셨으니, / - *두 본성*을 지니시되 하나이신 주 그리스도이시니라.

## 제3 캐논

하늘아, 기적들을 들어라, / 땅아, 귀를 기울여라: / 흠으로 *지/여/지*고 타락한 아담의 딸이 / 우리 구원과 갱신을 위해 / 하느님과 그분의 창조주의 어머니로 불리니.

우리는 당신의 위대하고 /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신비를 찬양하노라; / 이는 세상의 가장 높은 천상 위계들로부터 은밀히, / 존재하시는 분이 당신께 내려오셨으니, / 양털 위에 내리는 비처럼, 온전히 찬양받으시는 이여, / 우리의 구원과 갱신을 위하여.

거룩 중의 거룩하신 분, 온전히 찬양받으시는 성모님, - / 만민의 소망이시며 신자들의 구원이시여! / 당신에게서 구원자이시며, / 생명의 주님이시며, 주님께서 나오셨나이다: / 당신의 종들의 구원을 위하여 그분께 기도해 주소서.

## 제5편

## 캐논 1

**이르모스:** 주님의 강림의 광채로 비추신 그리스도여, / 주님의 십자가로 세상의 끝을 정화하신 분이시여! / 주님을 정통적으로 찬양하는 이들의 마음을 / 주님의 신성 인식의 빛으로 비주소서.

양 떼의 위대한 목자이시며 주님이신 / 분을 유대인들이 십자가 나무로 죽였으나, / 그분은 마치 음부에 묻힌 양들처럼, /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셨나이다.

그분의 십자가로 세상에 복음을 전하시고 / 포로들에게 용서를 선포하신 나의 구세주여, / 주님은 통치자를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, 그리스도여, / 그분의 신성한 부활로 그를 *무력* *하고* 힘없는 자로 드러내셨나이다.

**성모송:** 믿음으로 드리는 간구들을, / 멸시하지 마소서, 온전히 찬양받으시는 분이시여, / 그러나 받아 주시고 당신의 아드님께, 지극히 순결하신 분이시여, / 유일한 은인 되시는 하느님께 전해 주소서, / 우리가 당신을 수호자로 모시기 때문입니다.

## 제2 캐논

오, 하나님의 지혜의 풍요로움과 심오함이라! / 지혜로운 자들을 꺾어내시는 주님께서 / 그들의 간사함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나니; / 이는 자발적으로 연약한 육신을 입고 고난을 당하시어, / 그분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/ 생명의 주님이 *되셨음이니라*.

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니면서도, / 우리를 위하여 육신과 연합하시고, /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, 죽으시고, / 장사되셨으며, 다시 부활하셔서 / 빛나시며 당신의 육신과 함께 아버지께로 올라가시니, / 그 육신으로 다시 오셔서 / 그분을 경건히 경배하는 자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.

## 1부

**성모께:** 거룩한 자 중의 거룩하신 분, 순결하신 동정녀여! / 주님은 거룩한 자 중의 거룩하신 분, / 모든 이를 거룩하게 하시는 구세주 그리스도를 낳으셨습니다. /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창조주의 어머니로서, / 모든 피조물의 여왕이자 주인으로 / 고백합니다.

### 제3 캐논

하늘의 군대들이 당신을 바라보며 기뻐하고, / 그들과 함께 필멸자들의 무리도 기뻐합니다: / 이는 그들이, 동정녀 성모여, / 당신으로부터 *그리스도가* 태어나심으로써 /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니, / 우리가 합당하게 찬양하는 바로 그 일입니다.

모든 인간의 혀와 생각이 / 인류의 참된 장식을 찬양하도록 움직이게 하소서; / 동정녀께서 *우리*와 함께 분명히 계셔서, / 믿음으로 그분의 기적을 노래하는 자들을 찬양하시나이다.

현자들의 모든 찬송과 찬미가 / 동정녀이자 하느님의 어머니께 드리지며 찬양받나니, / 그분은 신성한 영광의 성전이 되셨으니, / 우리도 그분을 합당하게 찬양하노라.

## 제6곡

### 카논 1

**이르모스:** 가장 깊은 심연이 우리를 감쌌으나 구원해 주시는 이가 없나니, / 우리를 도살당할 양들로 여겼도다. / 우리 하나님, 주의 백성을 구원하소서; / 주께서는 연약한 자들의 힘이시며 구원이시니라.

주님, 원조 아담의 죄로 인해 / 우리는 흑독하게 상처를 입었나이다; /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위해 당하신 상처들로 / 우리는 치유되었나이다, 그리스도여; / 주님은 연약한 자들의 힘이시며 구원이시니이다.

주님, 주님은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 올리셨나이다, / 만물을 삼키는 고래를 이기신 전능하신 분이시여, / 주님의 위대하심으로 그 힘을 멸하셨나이다; / 이는 주님께서 생명이시며, 빛이시며, 부활이시기 때문입니다.

**성모 찬가:** *우리* 족보의 조상들이 주님을 기뻐하오니, 지극히 순결하신 동정녀여, /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에덴을 얻었나이다, /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그 에덴을; / 이는 주님께서 흠이 없으시며, 태어남 이전에도, 태어나신 후에도 그러하심이라.

### 제2 캐논

그리스도 하느님께서는, 무정하고 비물질적인 지성이시며, / 인간의 지성과 결합하시어, / 신성한 본성과 / 물질적인 육신 사이의 중재자가 되시며, / 내 안의 모든 것과 변함없이 온전히 연합하사, / 타락한 나 전체에게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을 베푸시나이다.

## 1부

발이 헛디덕 넘어진 아담은 쓰러져 부서지나, / 한때 신성화될 것이라는 희망에 속았던 자여; / 그러나 말씀과의 연합을 통해 신성화되어 다시 일어나며, / 그분의 수난을 통해 무정함을 얻고, / 아들로써 영광을 받으며, / 성부와 성령과 함께 보좌에 앉아 계시도다.

**성모송:** 시작 없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지 않으시고, / 순결한 동정녀의 품에 들어가 거처를 삼으시며, / 어머니도 아버지도 없으셨던 분이 육신을 입으시니 – 진리의 왕이신 하느님이시라. /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분의 기원은 / 족보가 없고 말로 다 할 수 없도다!

### 제3 캐논

하늘의 군대들이 / 당신의 출산 현장에 종처럼 모이며, / 씨 없이 잉태되신 당신의 기적에 경외심을 품고 경탄하오니; / 이는 당신, 영원히 동정녀이신 분이 / 잉태 전에도, 출산 후에도 흠이 없으시기 때문이니이다.

지극히 순결하신 분, 당신으로부터 육신을 입으신 / 이전에는 형체가 없으셨던 말씀이시니, / 온전히 당신의 뜻대로 만드시는 분이시며, / 전능하신 분으로서 형체가 없는 군대들을 무에서 이끌어내셨나이다.

생명을 주는 당신의 열매로, 하느님의 은총을 받은 이여, / 원수가 죽임을 당하고 지옥이 명백히 짓밟혔으며, / 죄사슬에 묶여 있던 우리도 해방되었습니다. / 그러므로 저는 간구합니다: / “제 마음의 정욕을 없애 주소서!”

## 콘탁

주님은 하나님으로서 무덤에서 영광 중에 부활하셨으며 / 세상을 주님과 함께 부활시키셨습니다. / 인간의 본성도 주님을 하나님으로 찬양하였고, / 죽음은 사라졌습니다. / 아담은 기뻐하며, 주님, / 이브도 이제 속박에서 해방되어 기뻐하며 외칩니다: / “그대, 그리스도여, 모든 이에게 부활을 베푸시나이다!”

**이코스:** 셋째 날에 부활하신 분을 /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찬양하리니, / 지옥의 문을 부수시고, / 태초부터 모든 이를 무덤에서 일으키시고, / 친히 원하시는 대로 향유를 가져온 여인들에게 나타나시어, / 그들에게 먼저 “기뻐하라”고 말씀하시고, / 사도들에게 기쁨을 선포하신, / 유일한 생명의 주님이시니. / 그러므로 여인들은 믿음으로 제자들에게 / 승리의 표징을 선포하며; / 지옥은 신음하고, 죽음은 통곡하나; / 세상은 기뻐하며,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네: / 이는 주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에게 부활을 베푸셨기 때문이니라.

## 제7편

### 캐논 1

**이르모스:** 성모님, 우리는 신실한 자로서 / 당신을 영적인 용광로로 인정하나이다; / 지극히 높으신 분이 세 소년을 구원하신 것처럼, / 찬양받으시는 조상들의 하나님이며 지극히 영광 받으신 분이시여, / 당신의 태중에서 나, 인간을 온전히 새롭게 하셨나이다.

땅이 떨어졌고, 해가 숨었으며 / 빛이 어두워졌나니, / 성전의 신성한 휘장이 찢어졌고, / 돌들은 부서졌으니, 이는 의로우신 분이 십자가에 매달리셨기 때문이라, / 찬양받으시는 조상들의 하나님이며 지극히 영광 받으신 분이시니라.

주님,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여, 우리를 위하여 / 마치 무력한 자처럼 / 죽은 자들 가운데서 상처 입으신 채 자발적으로 되셨으니, / 모든 이를 해방하시고 당신의 강력한 손으로 / 당신과 함께 부활시키셨나이다, / – 찬양받으시는 조상들의 하나님이며 지극히 영광 받으시는 분이시여.

**성모송:** 기뻐하소서, 영원한 생명의 샘이시여! / 기뻐하소서, 기쁨으로 가득한 낙원이시여! / 기뻐하소서, 신실한 자들의 성벽이시여! / 기뻐하소서, 결혼을 알지 못하신 분이시여! / 기뻐하소서, 온 세상의 기쁨이시여, 그분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신 / 찬양받으시는 조상들의 하나님이며 지극히 영광 받으신 분이시여!

## 제2 캐논

한때 저주받았던, / 형제 살해의 손에 의해 / 아벨의 피로 물들었던 땅이여; / 그러나 주님의 신성한 피로 적셔지자, / 그 땅은 축복을 받고, 황홀하게 외치나니: / “조상들의 하나님이며, 주님은 복되시나이다!”

하나님을 거역하는 유대인의 무리가 / 그리스도를 죽인 그 뻔뻔함을 애도하게 하소서; / 그러나 모든 민족은 기뻐하며, / 손뼉을 치고 외치게 하소서: / “조상들의 하나님이며, 찬미받으소서!”

보라, 빛나는 천사가 향유를 가져온 여인들에게 외쳤다: / “이리 와서, 그리스도의 부활의 표징들— / 수의와 관을 보라, 그리고 외치라: / ‘조상들의 하나님이며, 찬미받으소서!’”

## 제3 캐논

성모님, 야곱은 사다리에서 예언적으로 당신을 예견하였나니; / 이는 당신을 통해 지상에 높임 받으시는 분이 나타나셨고, /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람들 가운데 머무르셨으며, / 조상들의 하나님이자 지극히 찬양받으시는 분이셨기 때문이니라.

기뻐하소서, 거룩하신 분이시여! 당신으로부터 지극히 높으신 분이 나오셨으니, / 참으로 아담의 육신을 입으신 목자이시며, / – 온전한 나, 인간을 위해 – 헤아릴 수 없는 자비로, / 조상들의 찬양받으시는 하나님이며 지극히 영광 받으신 분이시니.

## 1부

새로운 아담으로서 당신의 순결한 피로부터 /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참으로 되셨습니다. / 이제 그분께 간구하소서, 낱아빠진 나를 새롭게 하시고, / “조상들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/ 지극히 영광받으시는 분!”이라고 외치는 *나*를.

### 제8편

#### 캐논 1

**이르모스:** 용광로와 같은 화로 속에서 이스라엘의 소년들은 / 경건함의 아름다움으로 금보다 더 밝게 빛나며 외쳤나니: / “모든 피조물아, 주님을 찬양하라, / 영원토록 노래하고 높이라!”

주님은 당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변화시키시며, / 당신의 고난으로 죽음의 그림자를 영생으로 바꾸시는 / 하나님의 말씀이시니, / *우리*와 모든 피조물은 주님을 주님으로 삼아 / 영원토록 끊임없이 찬양하고 높입니다.

그대는 압제를 없애셨나이다, 그리스도여, / 지옥의 문과 요새에서의 고통도 없애셨나이다, /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나이다. / 모든 피조물은 그대를 주님으로 삼아 / 끊임없이 찬양하며 영원토록 높이 나이다.

**성모송:** 씨 없이 초자연적으로 / 신성한 번개로부터 / 귀중한 진주이신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/ 당신을 찬양하며 외치 나이다: “모든 피조물아, 주님을 축복하라, / 찬양하고 높이라, 영원토록!”

#### 제2 캐논

오라, 사람들아, 경배하러 가자, / 그 지극히 깨끗하신 발이 서 계셨던 그 곳, / 그리고 모든 필멸자의 구원을 위해 나무 위에 / 그리스도의 신성하고 생명을 주는 두 손이 펼쳐지셨던 그 곳을, / 그리고 생명의 관을 둘러싸며 노래하리라: / “모든 피조물이 주님을 축복하고 / 영원토록 찬양하리라!”

하나님을 죽인 유대인들의 / 범죄적인 중상이 반박되었으니: / 그들이 속임수꾼이라 불렀던 그분께서 / 전능하신 분으로 부활하셨으니, / 불의한 자들의 봉인을 비웃으셨도다. / 그러므로 기쁨으로 노래하리라: / “모든 피조물이 주님을 찬양하며 / 영원토록 찬양하리라!”

**삼위일체 찬가:** 삼위일체 찬송속에서 / 유일한 주권자의 영광을 고백하며, / 지극히 순결한 세라핌들은 종처럼 경외심으로 / 세 위격의 신성을 찬양하도다. / 그들과 함께 우리도 경건히 노래하리라: / “모든 피조물이 주님을 찬양하며 / 영원토록 높이 찬양하리라!”

#### 제3 캐논

빛나는 궁전, 그곳에서 그리스도, / 만물의 주님이 신랑처럼 나오셨으니, / 우리 모두 외치며 노래하리라: / “주님의 모든 피조물아, 주님을 찬양하라 / 그리고 영원토록 찬양하라!”

## 1부

기뻐하라, 영광스러운 하느님의 보좌여! / 기뻐하라, 신실한 성벽이여! / 주님을 통해 빛이  
신 그리스도께서 / 어둠 속에 있는 이들에게 비추셨으니, / 주님을 찬양하며 외치는 이들에게:  
/ “모든 피조물아, 주님을 찬양하라 / 그리고 영원토록 높이 찬양하라!”

구원의 주인이신 주님을 우리에게 낳아 주신, / 온전히 찬양받으시는 동정녀여! / 간절히  
부르짖는 모든 이를 위하여 기도하소서: / “모든 피조물아, 주님을 찬양하라, / 노래하며 영원  
토록 높이 찬양하라!”

**그 다음,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님의 찬가를 부릅니다: “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나이다.”**

## 제9편

### 카논 1

**이르모스:** 그리스도를 순결하게 탄생시키신 당신의 모습을 / 타지 않고 타오르던 가시덤불  
이 나타내었나이다; / 이제 *저희는 당신께* 간구하오니 / 저희를 향해 맹렬히 타오르는 유혹의  
불길을 꺼주시어, / 저희가 당신을, 성모님, / 끊임없이 찬양하게 하소서.

오, 얼마나 불의한 자들이여, / 불순종하며 악한 뜻을 품은 자들이여, / 범죄자와 불경한 자  
를 정당화하고, / 의인을 나무에 매달아 정죄하였는가 – 영광의 주님, / 우리가 마땅히 찬양하  
는 분이시여.

구세주이시며 흠 없는 어린 양이시여, / 세상의 죄를 짊어지신 *분*이시여! / 우리는 사흘 만  
에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, / 성부와 주님의 신성한 성령과 *함께* / 영광의 주님을 고백하며  
찬양합니다.

**성모송:** 주님,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소서, / 당신이 귀중한 당신의 피로 사신 백성을, / 원수  
들에 대항하는 요새를 왕에게 주시고, /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시여, 당신의 교회들에 평화  
를 베푸소서, / 성모 마리아의 기도를 통해.

### 제2 캐논

주님의 십자가여, 주님의 형언할 수 없는 능력으로 찬양받나이다; / 이는 주님의 연약하  
심이 모든 이 앞에서 힘보다 더 높음을 나타내셨기 때문이니, / 그로 말미암아 강한 자들은 땅  
에 엎드러지고, / 가난한 자들은 하늘로 높이 들려 올라가나이다.

우리의 가혹한 죽음이 무력화되었나니; / 이는 주 그리스도께서 음부에 머무르시던 자들  
앞에 나타나시어, / *그들에게*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베푸셨기 때문이니라. / 그러므로 우  
리는 주님을 생명과 부활, / 그리고 위격의 빛으로 찬양하며 높입니다.

**삼위일체 찬가:** 시작도 끝도 없는 본질이 / 세 분의 하나이신 신성한 위격 안에서 고백되나  
니: / 성부와 성자, 성령의 하나이신 신성, / 이를 의지하여 우리 신혜로운 왕이 구원을 얻나  
이다.

**제3 캐논**

하나님의 아버지 다윗의 뿌리에서, / 예언대로 당신, 동정녀께서 싹트셨나이다; / 그러나 다윗을 진정으로 영광스럽게 하셨나니, / 선지자들이 예언한 영광의 주님을 낳으셨기 때문이오니, / 우리가 그분을 합당하게 찬양하나이다.

모든 찬양의 노래는 / 당신의 영광의 위대함 앞에 미치지 못하나이다, 지극히 순결하신 분이시여. / 그러나 주권자이신 분, 당신의 합당치 못한 종들이 /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당신께 바치는 / 이 찬양의 노래를 받아 주시옵소서, 성모 마리아여.

오, 지성을 초월하는 주님의 기적들이여! / 동정녀이신 주님은 태양보다 더 뛰어나시어 / 모든 이에게 주님으로부터의 헤아릴 수 없는 탄생이라는 / 가장 놀라운 기적을 깨달을 기회를 주셨습니다, 온전하신 분이시여. /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주님을 찬양합니다.

**카타바시아 후 소에크테니아, 그 다음: “거룩하시도다, 우리 주 하느님.” 그리고 부활절 엑사포스틸라리온.**

**“찬양하라”에 부활절 스티히라, 8음조**

**절:** 그들 가운데 정해진 심판을 집행하시니; / 이 영광은 그분의 모든 성자들에게 있나이다.

시편 149:10

우리는 주님의 / 구원의 고난을 찬양하며, 그리스도여, / 주님의 부활을 찬미합니다.

**구절:** 그분의 성도들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, / 그분의 견고한 힘 위에서 그분을 찬양하라.

시편 150:1

십자가를 건디시고, 죽음을 무효화하시며, /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, 전능하신 유일하신 분이시여, /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하소서.

**구절:**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라, / 그분의 위엄이 무궁하심을 찬양하라.

시편 150:2

지옥을 정복하시고 사람을 부활시키신 / 주님의 부활로, 그리스도여, / 우리에게 깨끗한 마음을 주사 /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.

**구절:** 나팔 소리로 그분을 찬양하라, / 수금과 비파로 그분을 찬양하라.

시편 150:3

하나님께 합당한 주님의 자비를 찬양하며, / 그리스도여, 주님을 찬양하나이다. / 주님은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시어 아버지께로부터 결코 분리되지 않으셨으며; / 사람으로서 고난을 당하시고 /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셨으며; /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무덤에서, 마치 궁전처럼 그곳을 나오시어 부활하셨나이다. / 주님, 주님께 영광을 돌리나이다!

**다른 스티히라, 동방**

**성가:** 팀파니와 춤으로 그분을 찬양하라, / 현악기와 오르간으로 그분을 찬양하라.

시편 150:4

주께서 십자가 나무에 못 박히셨을 때, / 그때 원수의 권세가 꺾였나이다; / 피조물은 주를 두려워하여 떨어졌나이다, / 지옥은 주의 능력으로 정복되었나이다; / 주께서는 무덤에 있는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시고 / 강도에게 낙원을 열어 주셨나이다. / 그리스도, 우리 하나님, 주께 영광을 돌리세!

**구절:** 아름다운 심벌즈 소리로 그분을 찬양하라, 울림 있는 심벌즈 소리로 그분을 찬양하라. / 숨 쉬는 모든 것이 주님을 찬양하리라!

시편 150:5

울부짖으며 서둘러 주님의 무덤에 이른 / 존경받는 여인들이, / 그러나 무덤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천사로부터 / 전례 없는 놀라운 기적에 대해 듣고, /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사도들에게 알리며, / 세상에 큰 자비를 베푸셨습니다.

**구절:** 일어나소서,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, 주의 손이 높이 들리시며, / 주의 가난한 자들을 끝까지 잊지 마소서!

시편 9:33

주님의 신성한 고난의 상처를 / 경배하나이다,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여, / 그리고 시온에서 주권자께서 행하신 성스러운 예식을 / 세상의 끝에서 이루어진 신현을 통해; / 이는 어둠 속에서 잠든 자들을, 진리의 태양이시여, / 빛나지 않는 빛으로 인도하시어 비추셨기 때문이니이다. / 주님,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!

**구절:** 주님,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리니, / 주의 모든 기적을 선포하리이다.

시편 9:2

반역하는 유대인들아, 들어라: / 빌라도에게 갔던 자들은 어디에 있느냐? /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이 말하게 하라, / 그 봉인은 어디에 있느냐? / 묻히신 분은 어디로 옮겨졌느냐? / 팔리지 않으실 분이 어떻게 팔리셨느냐? / 보물은 어떻게 빼앗겼느냐? /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의 부활을 비방하느냐, / 불의한 유대인들아? / 그분은 부활하셨으니,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자유로우시며, / 세상에 큰 자비를 베푸시나이다.

**영광송:** 복음 시편.

**그리고 이제, 제2음조:** 지극히 복되시도다, 동정녀 성모여, / 주께서 당신에게서 성육신하심으로 지옥이 사로잡혔고, / 아담이 그곳에서 돌아왔으며, / 저주가 힘을 잃었고, / 하와가 해방되었으며, 죽음이 죽임을 당하였고 / 우리도 생명으로 충만해졌나이다. / 그러므로 찬양하며 외치나이다: / “이같이 은혜를 베푸신 그리스도 하느님, 찬미받으소서!”

**사제:** 우리에게 빛을 보여 주신 주님께 영광을!

**위대한 찬양.**

### 부활절 트로파리

오늘 이 날, 세상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! / 무덤에서 부활하신 분과 / 우리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시다. / 그분은 죽음으로 죽음을 무력화시키시고, / 우리에게 승리와 큰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.

그리고 축도.

## 성찬례에서

### 8절, 복되도다

적은 음식을 통해 / 아담을 낙원에서 쫓아냈으나, /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/ “주님의 나라에 오실 때 /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!”라고 외치던 강도를 / 그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!

**구절: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,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라.** 마태복음 5:8

주님의 수난을 경배하며 / 부활을 찬양하오니; / 아담과 강도 곁에서 / 큰 소리로 주님께 부르짖나이다: / “주님, 주님의 나라에 오실 때 / 저를 기억해 주소서!”

**성구: 화평을 이루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,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.** 마태복음 5:9

주님은 죄 없으시면서도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, / 무덤에 안치되셨으나, / 하나님으로서 부활하사, / “주님의 나라에 오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!”라고 외치던 아담을 주님과 함께 일으키셨습니다.

**성구: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,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.** 마태복음 5:10

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주님의 몸을 성전으로 세우시고, /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을 / 부활시키신 그리스도이신 하느님, / 그들이 외치기를: “주님, 주님의 왕국에 오실 때 / 우리를 기억해 주소서!”

**성구: 나를 위하여 너희를 모욕하고 핍박하며 온갖 불의한 말로 비방할 때, 너희는 복이 있도다.** 마태복음 5:11

기름 부은 여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/ 이른 아침 주님의 무덤에 이르렀더니, 그리스도 하느님, / 흰 옷을 입은 천사가 앉아 “무엇을 찾으십니까?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. / 더 이상 울지 마십시오!”라고 외치는 것을 보았습니다.

**성구: 기뻐하고 즐거워하라.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.** 마태복음 5:12

주님, 주님의 사도들은 / 구세주이신 주님께서 명하신 산에 올라가 / 주님을 뵈고 경배드렸습니다. / 주님께서 그들을 여러 민족에게 보내시어 / 가르치고 세례를 베풀게 하셨습니다.

**삼위일체 찬송:** 아버지를 경배하고 아들을 찬양하며, / 성령을 모두 함께 찬양하며, / 외치고 선포하노니: / “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여, 우리 모두를 구원하소서!”

## 1부

**그리고 지금, 성모송:** 그리스도여, 당신의 백성이 / 당신 앞에서 기도하도록 당신의 어머니를 부추기고 있나이다; / 그분의 중보로 / 자비로우신 주님, 당신의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어, / 우리가 무덤에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신 당신을 / 찬양하게 하소서.

### 프로키멘

주님,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오니, 주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소서.

**구절:** 의인들아, 주님을 기뻐하라. 의인에게 합당한 것은 찬양이니라! 시편 32:22, 1

### 할렐루야

**구절:** 하느님께서 나를 위해 복수하시며, 민족들을 내게 복종시키시나이다.

**구절:** 위엄 있게 왕을 구원하시며, 당신의 기름부음 받은 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영원토록 자비를 베푸시나이다. 시편 17:48, 51

## 제2음조

### 대저녁 기도 때

“주여, 내가 부르짖나이다”에 맞춰 10음절의 스티히르를 부른다: 부활절 옥토이히 3개, 동방 4개, 미네이 3개. 성인을 기념할 때는 옥토이히 스티히르 4개와 성인 스티히르 6개를 부른다. 영광송: 미네이, 그리고 “지금도”: 첫 번째 성모송, 해당 음조.

### 부활절 스티히라

내 영혼을 어둠의 감옥에서 이끌어 내소서, / 그리하여 내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소서.

세상 시작 전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나신 하나님의 말씀이시며, /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입으신 분께, / 경배합시다. 그분은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시고, / 스스로 원하신 대로 장사되셨으며, /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, / 길을 잃은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나이다.

의인들이 나를 기다릴 것이니, / 주님께서 내게 보응하실 때까지.

그리스도, 우리의 구세주여, / 우리를 대적하는 죄의 증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지워 버리시고 / 죽음의 권세를 무력화시키셨나이다. / 우리는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분을 경배하나이다.

깊은 곳에서 주님께 부르짖나이다, 주여, / 주여, 내 목소리를 들으소서.

대천사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부활을 노래하리니, / 그분은 우리 영혼의 구속자이시며 구세주이시니, / 위엄 있는 영광과 강력한 권능으로 / 다시 오셔서 창조하신 세상을 심판하시리라.

### 동방 성가

주님의 귀가 / 나의 간구하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기를.

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신 주님께 대하여, / 천사가 여인들에게 전하며 외쳤나니: / “오셔서 주님께서 누우셨던 곳을 보십시오; / 그분은 친히 하신 말씀대로 전능하신 분이므로 부활하셨나이다!” / 그러므로 우리는 유일하신 불멸의 주님을 경배하나이다: / 생명의 주님이신 그리스도여,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!

주님, 주님, 만일 주님께서 죄악을 따지신다면, 누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? / 주님께는 용서가 있으시니.

주님께서는 당신의 십자가로 / 나무를 통해 *우리에게* *닥친* 저주를 없애셨으며, / 당신의 장사로 죽음의 권세를 무력화시키시고 / 당신의 부활로 인류를 비추셨습니다. /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나이다: / “은혜의 주 그리스도, 우리 하나님이지요, 주님께 영광을 돌리나이다!”

**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주님을 기다렸나이다, 주님, 내 영혼이 주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었나이다, / 내 영혼이 주님께 의지하였나이다.**

주님, 주님 앞에서 / 두려움에 사로잡힌 죽음의 문이 열렸고, / 지옥의 문지기들은 주님을 보고 경악하였나이다. / 이는 주님께서 낯문을 부수시고, / 쇠빛장을 깨뜨리시며, / 우리를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서 이끌어내시고, / 우리의 멍에를 끊어 주셨기 때문이니이다.

**아침 파수꾼 때부터 밤까지, 아침 파수꾼 때부터 / 이스라엘이 주님을 의지하리이다.**

구원의 찬송을 부르며, / *한* 목소리로 외치자: / “모두 오라, 주님의 집에 / *옆드려 그분께* 간구하자: / ‘나무에 못 박히시고,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며 / 아버지의 품에 계시는 분이시여, / 우리의 죄를 불쌍히 여기소서!’”

**영광송: 미네아의 스티히라.**

**그리고 이제, 성모송:** 율법의 그림자는 지나갔으니, / 은혜가 나타나셨을 때; / 불길에 휩싸인 가시덤불이 타지 않았던 것처럼, / 동정녀이신 당신도 아들을 낳으시고 여전히 동정녀로 남으셨습니다. / 불기둥 대신 / 진리의 태양이 빛났고, / 모세 대신 그리스도께서, / 우리 영혼의 구원이 되셨습니다.

**입장. “기쁨의 빛:”**

### **프로키멘, 6음조**

주님께서 왕좌에 앉으셨으니, / 위엄으로 옷 입으셨도다.

**절:** 주님께서 권능을 입으시고, 허리에 띠를 두르셨도다.

**절:** 그분께서 우주를 굳게 세우셨으니, 그것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.

**절:** 주님, 주님의 궁전에는 거룩함이 어울리나이다, 영원토록.

시편 92:1, 5B

**그 다음에는 ‘주님, 허락하소서’라는 간구 기도인 특별 기도문이 이어집니다.**

### **성가대석에서의 스티히라**

그리스도 구세주여, 주님의 부활이 / 온 우주를 비추셨으니, / 주께서는 당신의 피조물을 당신께로 부르셨나이다: / 전능하신 주님, 주께 영광을 돌리나이다!

**구절:** 주님께서 왕좌에 오르셨으니, / 영광으로 옷 입으셨도다.

구세주여, 주께서는 나무로 / 나무를 통해 *우리*를 *덮친* 저주를 없애셨으며, / 주님의 장사로 죽음의 권세를 무력화시키시고, / 주님의 부활로 우리 민족을 비추셨습니다. /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 부르짖나이다: / “생명의 주이신 그리스도, 우리 하나님, 주께 영광을 돌리나이다!”

**구절:** *그분은 우주를 굳건히 세우셨으니, / 우주는 흔들리지 않으리라.*

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세주이시여, / 피조물의 아름다움을 가리셨나이다; / 군인들은 비인간적인 행실을 드러내며, / 창으로 주님의 갈비뼈를 찔렀고, / 유대인들은 주님의 위대하심을 알지 못하고, / 주님의 무덤을 봉인해 달라고 간청하였나이다. / 그러나 주님은 자비로운 마음으로 / 장사를 치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니, / 주님, 영광이 주님께 있나이다!

**구절:** *주님의 집에는 거룩함이 마땅하니, / 주님, 영원토록.*

생명의 주님이신 그리스도여, / 주님은 죽을 운명의 자들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겪으시고, / 전능하신 분으로서 음부에 내려가셔서, / 그곳에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던 자들을 / *마치* 강한 자의 손에서 빼앗아 *내시*듯, / 지옥 대신 낙원을 *그들의* 거처로 주셨습니다. / 그러므로 제 삼일에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는 우리에게도, / 죄의 용서와 큰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.

**영광송:** *미네아에 수록된 스티히라, 있다면. 없다면:*

**영광, 그리고 지금도, 성모송:** 오, 새로운 기적이여, 모든 옛 기적들 중 *가장 위대한 기적이여!* / 누가 남편 없이 아이를 낳은 어머니를 알았겠으며, / 온 창조물을 품에 안고 계신 분을 품에 안고 계셨겠는가? / 하느님의 계획은 *바로* 이 잉태입니다. / *그러나* 당신, 지극히 순결하신 분은 그분을 갓난아기로 당신의 두 손으로 안으시고, / 그분께 대한 어머니의 담대함을 얻으셨으니, / 당신을 공경하는 자들을 위해 끊임없이 간구하소서, / *그분께서*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도록.

**그 다음:** “*이제 보내 주시니:*” ‘주님의 기도’ 뒤에 삼위일체 찬송

### 트로파리

불멸의 생명이신 주님께서 죽음으로 내려가셨을 때, / 그때 주님께서 신성의 광채로 지옥을 무력화시키셨습니다. / 또한 주님께서 음부에서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셨을 때, / 모든 하늘의 권세들이 외쳤나니: / “생명의 주님이시여,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여, 주님께 영광을!”

**영광, 그리고 지금도, 성모송:** 모든 것이 이성을 초월하고, 모든 것이 지극히 영광스러운 / 성모님의 신비들: / 순결함으로 인치심을 받고 동정성을 지키신, / 주님은 참된 하나님을 낳으신 참된 어머니로 나타나셨습니다. / 그분께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 간구하소서.

**같은 트로파르를** “*하나님은 주님이시니:*”에서도 부릅니다.

## 아침 기도 때

“하나님은 주님이시니:”를 제2음조로 부르고, 부활절 트로파르를 두 번, 성모송을 한 번 부릅니다(대저녁기도 참조). 그 후 시편의 통상적인 낭송이 이어집니다.

### 세달렌 1절

고귀하신 요셉이, / 나무에서 주님의 지극히 깨끗하신 몸을 내려, / 깨끗한 천으로 감싸고 향유로 바르시어, / 새로운 무덤에 안치하셨나이다. / 그러나 셋째 날에 주님께서 부활하셨나이다, / 세상에 큰 자비를 베푸시며.

**구절:** 일어나소서, 주 나의 하나님이지여, 주의 손이 높이 들리시며, / 주의 가난한 자들을 끝까지 잊지 마소서!

시편 9:33

향유를 바치러 온 여인들 앞에 / 무덤 곁에 나타나신 천사가 외쳤다: / “향유는 죽은 자에게 어울리는 것이나, / 그리스도는 썩음에 굴복하지 않으셨으니; / 차라리 이렇게 외치라: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니, / 세상에 큰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라!”

**영광, 그리고 지금도, 성모께:** 지극히 찬미받으시는 성모 동정녀여,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나다; / 이는 당신의 아들의 십자가로 / 지옥이 무너지고 죽음이 멸망하였으니, / 우리는 죽은 자로서 부활하여 생명을 얻었으며, / 낙원과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었나니, / –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를 찬미하나다, / 전능하시고 유일하시며 자비로우신 분을.

### 2절의 세달렌에 따라

무덤의 돌을 봉인하는 것을 막지 않으시고, / 부활하사 모든 이에게 믿음의 돌을 주셨나이다. / 주님, 영광이 주께 있나이다!

**구절:** 주님,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리니, / 주의 모든 기적을 선포하리이다.

시편 9:2

주님의 제자들 무리가 / 향유를 바친 여인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기뻐하며, / 우리 또한 그들과 함께 공동의 축제를 지내며 /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. / 그리고 그들의 *중보기도*에 따라, 사람을 사랑하시는 주님, / 주님의 백성들에게 큰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.

**영광송, 그리고 지금, 성모께:** 지극히 복되시도다, 성모 동정녀여, / 주님께서 당신에게서 성육신하심으로 지옥이 사로잡혔고, / 아담이 그곳에서 돌아왔으며, / 저주가 힘을 잃었고, / 하와가 해방되었으며, / 죽음이 죽임을 당하였고 / 우리도 생명으로 충만해졌나이다. / 그러므로 찬양하며 외치나이다: / “이같이 은혜를 베푸신 그리스도 하느님, 찬미받으소서!”

그 다음 ‘흠 없는 이들에 대한’ 트로파리와 소에크테니아를 바칩니다.

### 이파코이

주님의 수난 후 / 아내들이 무덤에 와서 / 주님의 몸에 성유를 바르려 하였더니, 그리스도 하느님, / 무덤 안에서 천사들을 보고 놀라워하였으니, /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그들로부터 들었기 때문이라, / 세상에 큰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니.

### 성가. 안티폰 1

하늘을 향해 내 마음의 눈을 들어올리나이다, - / 주님, 구세주여, - / 주님의 광채로 나를 구원하소서.

오, 나의 그리스도여, 주님 앞에서 매 순간 수많은 죄를 짓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, / 그리고 죽기 전에 주님 앞에서 회개할 길을 보여 주소서.

**영광송:** 성령께서는 다스리시고, / 거룩하게 하시며, 피조물을 움직이시는 것이 마땅하오니; / 그분은 아버지 및 말씀과 본질적으로 하나이신 하나님이니라.

**그리고 지금: 우리는 다시 같은 기도를 드립니다.**

### 안티폰 2

만일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지 않으셨다면, / 누가 원수이자 살인자인 자로부터 / 무사히 지켜질 수 있었겠습니까?

구주여, 주의 종을 그들의 이빨에 넘기지 마소서; / 이는 나의 원수들이 마치 사자처럼 / 나를 향해 달려들기 때문입니다.

**슬라바:** 성령 안에서 - 생명의 시작이자 상급이시니; /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으로서 모든 피조물을 / 굳건히 하시며, 아들을 통해 아버지 안에 보존하시기 때문입니다.

**그리고 지금: 우리는 이를 다시 되새깁니다.**

### 안티폰 3

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거룩한 산과 같으니, / 그들은 벨리알의 공격 앞에서도 /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도다.

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은 / 불의에 손을 뻗지 않게 하소서; /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유산의 지팡이를 배반하지 않으시나이다.

**영광송:** 성령께서는 온갖 지혜를 쏟아내시니, / 이로써 사도들에게 은혜가 임하고, / 순교자들은 공로로 면류관을 쓰며, 예언자들은 이를 관조하도다.

**그리고 지금: 우리는 이를 다시 되풀이합니다.**

## 프로키멘

주님, 나의 하느님,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깨어나소서, / 그리하면 만민이 주님을 둘러싸리이다.

**구절:** 주님, 나의 하나님이지여! 주님을 의지하오니, 나를 구원하소서. 시편 7:7B-8A, 2

**“숨 쉬는 모든 것이 주님을 찬양하리라.” 하고 주일 아침 복음서를 읽습니다.**

## 복음서 후 주일 찬송

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으니, / 거룩하신 주 예수님께 경배합시다, / 유일하시고 죄 없으신 분께. / 주님의 십자가에 경배하오니, 그리스도여, / 주님의 거룩한 부활을 노래하며 찬양하오니, /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지니, / 주님 외에는 다른 분을 알지 못하며, / 주님의 이름을 부르나이다. / 오라, 모든 신자들아, /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배합시다, / 보라, 십자가를 통해 / 온 세상에 기쁨이 임하였나니. / 항상 주님을 찬양하며, / 그분의 부활을 노래합시다, /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겪으시고, / 죽음으로 죽음을 무찌르셨나니.

**시편 50편.**

**영광송:** 사도들의 기도로, 자비로우신 주님, 우리의 수많은 죄를 씻어 주소서.

**그리고 이제:** 성모 마리아의 기도로, 자비로우신 주님, 우리의 수많은 죄를 씻어 주소서.

**그 후, 제6음조:**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, 하느님, 주님의 크신 자비와 풍성한 은혜로 나의 죄악을 씻어 주소서.

**그리고 스티히라:** 예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으니, / 예언하신 대로, /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/ 큰 자비를 베푸셨도다.

**그리고 기도:** 하나님이시여,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소서:

## 카논

**첫 번째 – 주일용 4음조, 두 번째 – 십자가 부활용 3음조, 세 번째 – 성모송 3음조 및 미네이 4음조. 성인을 기념하는 날에는 6음조로, 십자가 부활용 2음조 및 성모송 2음조를 사용합니다.**

## 제1곡

**제1 캐논**

**이르모스:** 한때 깊은 곳에서 / 파라오의 모든 군대를 멸망시킨 지극히 위대하신 힘, / 육신을 입으신 말씀께서 악한 죄를 근절하셨으니, – / 지극히 찬양받으실 주님; / 이는 그분이 영광스럽게 찬양받으셨기 때문입니다.

**후렴:** 주님, 주님의 거룩한 부활에 영광을 돌리나이다.

## 2성부

우리가 그분께 굴복했던 세상의 군주는, / 주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았기에, / 주님의 십자가로, 선하신 분에 의해 정죄받았나니; / 이는 그가 주님을 마치 필멸자처럼 공격했으나, / 주님의 권능 앞에 쓰러져 / 무력함이 드러났기 때문이니라.

죽을 운명의 인류를 구원하시는 분이자 / 썩지 않는 생명의 주재자로서 주님은 세상에 나타나셨나이다; / 주님의 부활로 죽음의 장막을 찢으셨으니, / 우리 모두가 찬양하는 그 부활로, / 주님은 영광스럽게 찬양받으셨나이다.

**성모송:** 주님은 모든 피조물, /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중에서도 가장 높으신 분, 영원히 동정녀이신 순결하신 분이시니; / 주님은 창조주를 낳으셨으니, / 그분은 주님의 태중에 성육신하시기를 기뻐하셨나이다. / 그분 앞에서 담대히 간구하사 / 우리 영혼의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.

### 제2 캐논

**이르모스:** 밟히지 않은, 낯선 바다 길을 / 건너며 *발*도 젖히지 않고, / 선택받은 이스라엘은 외쳤다: / “주님께 찬양하자,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셨으니!”

약한 자들에게는 힘이 되시고, 넘어진 자들에게는 회복이 되시며 / 죽은 자들에게는 썩지 않음이 되신 / 그리스도여, / 주님의 육신의 고난을 통해 그러하셨나니; / 이는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.

넘어진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/ 상한 형상을 다시 일으키신 / 창조주이시며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, / 죽으신 분이 되셨으니, / 이는 그분이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.

### 제3 캐논

**이르모스는 위와 같다.**

한때 비물질적인 사다리와 / 바다 위를 건너는 건지 알 수 없는 길이 / 당신으로부터의 탄생을 나타냈나니, 순결하신 이여, / 우리 모두가 찬양하는 그 탄생이여; / 이는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.

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, 완전한 위격, / 당신, 순결하신 분으로부터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지혜, / 필멸자들 가운데 머무르셨으니, / 이는 그분이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.

통과할 수 없는 문, / 당신의 태중, 순결하신 분이시여, / 을 지나 진리의 태양이 지나가 평화에 빛을 비추었으니, / 이는 영광스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.

**그 후 미네아 전례서의 카논에 나오는 트로파리와 규정에 따른 카타바시아.**

## 제3곡

### 제1 캐논

**이르모스:** 주님, 사막이 백합처럼 피어났습니다, / – 이교도의 메마른 교회 – 주님의 강림으로; / 그 안에서 내 마음이 굳건해졌습니다.

주님의 수난 동안 피조물은 변모하였으니, / 주님께서 법 없는 자들에게 모욕당하시며 / 비천한 모습으로 계신 것을 보며, / 신성한 손길로 모든 것을 굳건히 세우신 주님.

흠에서 주님의 형상대로 / 주님의 손으로 나를 지으셨나이다, 그리스도여, / 그리고 죄로 인해 다시 흠으로 돌아간 죽을 사람을, / 음부에 내려가셔서 주님과 함께 부활시키셨나이다.

**성모송:** 천사들의 무리는 경탄하였고, / 사람들의 마음은 떨었나니, / 당신에게서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심을 보았기에, / 지극히 순결하신 성모여; / 그러므로 우리는 당신을 성모 마리아로, / 믿음으로 경배하나이다.

## 제2 캐논

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/ 천사들의 본성 앞에서 육신의 고난으로 / 잠시 낮아지셨습니다.

죽은 자로, 불의한 자들과 함께 여겨지셨으나, / 주 그리스도여, 주님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면류관을 빛내며 / 여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.

## 제3 캐논

시간을 초월하신 분, / 시간의 창조주이시며, / 동정녀이신 당신에게서 자발적으로 아기가 되신 분.

하늘보다 더 넓은 그 자궁을 / 우리 신실한 자들이 찬양하리니, / 그 덕분에 아담이 하늘에서 / 기쁨으로 거하고 있나이다.

## 제4곡

### 캐논 1

**이르모스:** 주님은 동정녀에게서 사자도, / 천사도 아닌, 육신을 입으신 주님 자신으로 오셔서, / 나 인간을 온전히 구원하셨습니다. / 그러므로 저는 주님께 부르짖나이다: “주님의 능력에 영광을 돌리나이다!”

주님은 재판석에 피고인처럼 서 계셨나이다, / 나의 주 하나님이지요,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시고, / 민족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시니, / 그리스도여, 주님의 고난을 통해 / 온 우주를 구원하셨습니다.

주님의 고난으로 / 원수는 무력화되었고, / 주님께서 지옥으로 내려가심으로써 / 대적들의 성읍들이 무너졌으며, / 폭군의 오만함이 무너져 내렸습니다.

**성모님:** 당신을 구원의 피난처이자 / 무너지지 않는 성벽으로, 성모 여왕이시여, / 우리 모든 신자들은 인정하오니, / 이는 당신이 당신의 중보로 / 우리의 영혼을 재앙에서 구해 주시기 때문이니이다.

**제2 캐논**

그대를 보았을 때, 그리스도여, / 나무에 못 박히신 그대를, / 고통 없이 그대를 낳으신 동정녀께서는 / 어머니로서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.

죽음이 정복되었고, / 죽은 자가 지옥의 문을 무너뜨리니; / 보라, 모든 것을 삼키는 자를 꺾으심으로써, / 모든 초자연적인 것이 내게 주어졌도다!

**제3 캐논**

보라, 주님의 성전에서 / *천상의* 권능들보다 높이 / 신성한 산, 곧 성모 마리아께서 뚜렷이 높이 솟아 계십니다.

처녀이신 당신,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여 / 피조물의 주님을 낳으셨으니, / 신성한 소명을 받으셨습니다.

**제5편**

**캐논 1**

**이르모스:**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가 되신 그리스도 하느님; 주님, 당신을 통해 우리는 무지의 어둠 속에서 빛의 근원이신 당신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삼나무처럼, 그리스도여, / 주께서는 원수들의 오만을 꺾으셨나이다. / 주님의 뜻에 따라, 주여, / 사이프러스와 소나무, 그리고 삼나무 위로 / 자발적으로 육신을 드러 높이 올리셨나이다.

가장 깊은 구렁이에 / 그리스도여, 숨을 거두신 채, 죽은 채로 누워 계셨으나; / 그러나 상처 입으신 구세주이시여, / 무덤 속에서 잠든 자들을 / 당신의 상처로 함께 부활시키셨나이다.

**성모송:** 당신의 아들이시며 주님이신 분께 간구하소서, 순결한 동정녀여, / 그분께서 포로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도록, / 적대적인 상황 속에서 평화로운 *탈출구*를 / 당신을 의지하는 이들에게 허락하시도록.

**제2 캐논**

첫 번째 아담은 금식을 거부하고, / 죽음의 나무 열매를 맛보았으나, / 두 번째 *아담*께서는 / *그분의* 십자가 처형으로 그의 죄를 속죄하셨습니다.

육신의 고통과 죽음을 함께 겪으시며, / 비물질적인 신성으로 인해 무정하신 그리스도여, / 썩지 않음을 주시고, / 지옥의 심연에서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셨나이다.

**제3 캐논**

구름들아, 기쁨의 달콤함으로 / 땅 위에 있는 자들을 적셔 주소서; / 이는 *우리에게* 주어진 어린아이가시니, - 세상이 있기 전부터 계셨던 분, / 동정녀에게서 육신을 입으신 우리 하나님이니라.

내 삶과 육신을 빛으로 비추시고 / 죄의 어둠을 걷어내신 / 최근에 씨 없이 / 동정녀에게서 육신을 취하신 지극히 높으신 분.

**제6편**

**캐논 1**

**이르모스:** 죄의 심연에 휩쓸려, / 주님의 헤아릴 수 없는 자비를 간절히 부르나이다: / 멸망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, 하나님이시여!

악인처럼 의인이 정죄받으시고 /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어, / 당신의 피로 죄인들에게 용서를 베푸셨습니다.

한 사람, 곧 첫 번째 아담을 통해 /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으나, / 또 *한 분*, 곧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/ 부활이 나타났나이다.

**성모 찬가:** 동정녀이신 주님, 남자를 알지 못하시고 잉태하셨으며 / 영원히 동정녀로 계시니, / *그로써* 주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 분의 / 참된 신성을 드러내시나이다.

**제2 캐논**

*타락한 인간으로부터* 생명나무의 수호자로 / 주님은 케루빔들을 세우셨으나, / 그들이 주님을 뵈고 문을 열었나니, / 이는 주님께서 강도에게 / 낙원으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셨기 때문입니다.

지옥을 텅 비게 하고 빈곤하게 하신 분은 / 한 분의 죽음을 통해 이루셨나니; / 그가 모은 그 큰 부를 /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 홀로 텅 비우셨기 때문입니다.

**제3 캐논**

죄의 노예였던 인간의 본성은, / 당신을 통해 자유를 얻었나이다, 순결하신 여주인이시여; / 이는 당신의 아들이 어린 양처럼 / 모든 이를 위한 제물로 바쳐지셨기 때문입니다.

우리 모두는 참된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당신께 부르짖나이다: / 종들의 진노를 불러일으킨 *우리*를 구원하소서, / 오직 당신만이 *당신의* 아드님께 / 담대히 나아갈 수 있으시니.

## 콘닥

전능하신 구세주여, 주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으니, / 지옥은 *이* 기적을 보고 공포에 떨었으며, /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났습니다. / 그리고 온 피조물은 이를 보고 주와 함께 기뻐하며, 아담도 즐거워하고, / 세상은 나의 구세주이신 주를 / 끊임없이 찬양합니다.

**이코스:** 주님은 어둠에 휩싸인 자들의 빛이시며, / 모든 이의 부활이시며 / 죽을 자들의 생명이시니, /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빼앗으시고, 구세주여, / 지옥의 문을 무너뜨리신 말씀이시여, 모든 이를 주님과 함께 부활시키셨나이다. / 그리고 죽은 자들은 *이* 기적을 보고 놀라워하였으며, / 온 피조물이 함께 기뻐하며 /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나이다,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시여. /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/ 주님의 자비를 찬양하고 노래하며, / 세상은 주님, 나의 구세주여, / 끊임없이 찬양하나이다.

## 제7곡

## 캐논 1

**이르모스:** 불경건한 통치자의 신을 거스르는 명령이 / 높은 불길을 일으켰으나, / 그리스도께서는 경건한 소년들 위에 성령의 이슬을 내리셨으니, / 축복받으시고 지극히 찬양받으시는 분이시라.

주님, 주님의 자비로 인해 / 사람이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을 보실 수 없으셨으나, / 사람이 되셔서 주님의 피로 그를 구원하셨으니, / 찬양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분이시라.

보복의 옷을 입으신 주님을 뵈고, / 지옥의 문지기들은 공포에 떨었나이다, 그리스도여; / 주님께서 제멋대로인 종이와 고문자를 / 진정시키러 오셨나이다, - / 축복받으시고 지극히 찬양받으시는 분이시여.

**성모 찬가:** 우리는 주님을 거룩한 자들 중의 거룩한 분으로 인정하나이다, /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잉태하신 유일한 분으로서, / 흠 없는 동정녀시며, 혼인을 알지 못하신 어머니시니, / 주님께서 *그리스도*를 신성한 탄생으로 낳으심으로써 모든 신자들에게 썩지 않음을 베풀어 주셨나이다.

## 제2 캐논

한때 에덴에서 *있었던* 불순종은 / 조상의 정죄가 되었으나, / 그러나 범죄자의 죄를 씻어 주기 위해, / 자발적으로 정죄받으신 / 조상들의 지극히 신성하시고 지극히 찬양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.

주님은 에덴에서 독을 뱉는 혀에 찔린 자를 구원하셨나니, / 이는 *그가* 자초한 상처를 / *주님*의 자발적인 고난으로 치유하셨기 때문이니라 - / 조상들의 지극히 신성하시고 지극히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여.

죽음의 그늘 속에서 방황하던 나를, / 다시 빛으로 부르셨으니, / *당신*의 신성의 번개로 어두운 지옥을 타격하셨도다, - / 지극히 거룩하신 조상들의 하나님이시며 지극히 찬양받으시는 분이시여.

### 제3 캐논

야곱은 밤에 / *마치* 수수께끼처럼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보았으나; / 그러나 그분은 주님 안에서 찬양하며 빛 가운데 나타나시어 말씀하셨나니: / “조상들의 지극히 신성한 하나님 이시며 지극히 찬양받으시는 분이시여!”

이해할 수 없는 결합의 형상들, / 당신 안에 *계셨던* 순결하신 분이 미리 예고하신 것, / 그로 인해 그분은 자발적으로 사람들과 연합하셨으니, / 야곱과 씨름하시는 지극히 신성한 / 조상들의 하나님이시며 지극히 찬양받으시는 분이시라.

의심할 여지 없는 확신으로 / 동정녀의 아들이신 당신을 / 모든 이가 찬양하는 삼위일체의 한 분으로 고백하지 않고, / 입으로 외치지 않는 자는 불경한 자니: / “지극히 신성한 조상들의 하나님이시며 지극히 찬양받으시는 분이시여!”

## 제8편

### 캐논 1

**이르모스:** 한때 바빌론에 있던 불타는 용광로는 /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었으니, / 신성한 명령에 따라 칼데아인들을 태우면서도, / “주님의 모든 피조물들아, 주님을 찬양하라!”고 노래하던 신실한 자들에게는 이슬을 뿌려 주었도다.

그리스도여, 주님의 피가 물든 주님의 육신의 옷을 바라보며, / 천사 군단은 *주님*의 위대한 오래 참으심에 경외심과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/ 외쳤나니: / “주님의 모든 피조물들아, 주님을 찬양하라!”

자비로우신 주님, 주님의 부활로 / 나의 죽을 운명의 *본성*을 불멸로 입히셨나이다. / 그러므로 택하심을 입은 백성이 기쁨과 감사를 담아 / 주님을 찬양하며, / 그리스도여, 주님께 외치 나이다: / “진실로 죽음이 승리에 삼켜졌나이다!”

**성모송:** 아버지께서 분리될 수 없는, / 신인(神人)으로서 당신의 태중에 거하시던 분을, / 씨 없이 잉태하시고 말로 다 할 수 없이 품으셨나이다, / 온전히 순결하신 하느님의 어머니여: / 그러므로 우리는 당신을 / 우리 모두의 구원으로 인정하나이다.

### 제2 캐논

자비로 충만하신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채 나타나셨고, / 자발적으로 장사되셨으나, / 셋째 날에 부활하셨나이다,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시여, / 믿음으로 노래하는 모든 죽을 자들을 속량하셨나이다: / “모든 피조물이 주님을 찬양하며 / 영원토록 찬양하리이다!”

썩어짐에서 구원하시려고, 하나님의 말씀이시여, / 주님의 신성한 능력으로 창조하신 그분을, / 나의 그리스도여, 음부로 내려가셔서, / 썩지 않음과 주님의 영원한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고, / *그가* 외치게 하셨나니: / “모든 피조물이 찬양하며 /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높이 찬양하라!”

### 제3 캐논

주님을 통해 이 땅에 나타나시어 사람들과 함께 사신 / 자비와 능력에서 비할 데 없는 분, / 그분께 우리 모든 신자들은 노래하며 외칩니다: / “모든 피조물이 주님을 찬양하며 / 영원토록 그분을 높이 찬양하소서!”

우리는 당신을 흠 없는 분으로 의롭게 고백하며 / 찬양하나이다, 성모 마리아여; / 이는 당신이 성삼위 중 한 분이신 성육신하신 분을 낳으셨기 때문이니, / 그분께 우리는 성부와 성령과 *함께* 모두 노래하노니: / “모든 피조물이 주님을 찬양하며 / 영원토록 그분을 높이 찬양하라!”

그 후,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님의 찬가를 부릅니다: “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나이다.”

## 제9편

### 카논 1

**이르모스:** 시작이 없으신 아버지의 아들이시며,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신 분께서, / 동정녀에게서 성육신하사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니, / 어둠에 휩싸인 자들을 비추시고, 흠어진 자들을 모으시려 하심이라. /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이가 찬양하는 성모 마리아를 찬양하노라.

에덴 동산에 심겨진 *생명나무와* 같이, / *십자가 처형지에서* 삼중으로 복된 나무, / 구세주이신 당신의 지극히 순결한 십자가, / 신성한 피와 물로 적셔진, / 마치 샘물처럼 – 당신의 신성한 갈비뼈에서 솟아난, 그리스도여 – / 우리에게 생명을 자라게 하셨나이다.

전능하신 주께서는 *당신의* 십자가 처형으로 통치자들을 무너뜨리시고, / 지옥의 깊은 감옥에 갇혀 있던 인간의 본성을 높이 들어 올리시어, / *그 본성*을 아버지의 보좌에 앉히셨나이다. / 그와 *같은 본성*을 지니고 오실 주님을, / 우리는 경배하며 찬양하나이다.

**삼위일체:** 하나이시며, 수로 세 분이신, 본질적으로 하나이신 삼위일체를, / 정통적으로 찬양하며, 신실한 자들아, 찬양하자: / 분리될 수 없는 초신성한 본성, – 세 배로 빛나고, 결코 사그라지지 않는 광채, / 하나이시며 순결하신 분, 우리에게 빛을 비추신 분.

### 제2 캐논

*처형장에서* 정죄받은 *자들* 가운데 / 주님은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매달리셨나이다; / 갈비뼈에 창을 찔리시며, / *흠으로 지어진* 우리에게 선한 분으로서 생명을 베풀어 주셨나이다, / 믿음으로 주님의 신성한 부활을 경배하는 우리, 그리스도여.

당신의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를 권능 있게 무력화시키신 / 하나님께, / 우리 모든 신자들이 경배합시다. / 그분은 태초부터 죽어 있던 자들을 자신과 함께 부활시키셨으며 / 모든 이에게 생명과 부활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.

### 제3 캐논

힘없는 본성에 권능의 지팡이가 / 당신의 태중에 주어졌나니, 순결하신 이여, 곧 하나님의 말씀이시니, / 그분은 지옥으로 떨어진 이를 부활시키셨나이다. / 그러므로 우리, 온전히 순결하신 이여, / 당신을 성모 마리아로 찬양하나이다.

주님, 주께서 택하신 그분, / 당신의 어머니를 자비롭게 받아 주시옵소서, –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으로, / 그리고 주님의 자비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소서, /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을 / 은인으로서 찬양하게 하소서.

**카타바시아 후 소에크테니아, 그 다음: “거룩하시도다, 우리 주 하느님.” 그리고 부활절 엑사포스티라리온.**

### “찬양하라”에 부활절 스티히라, 8음조

**그들 가운데서 정해진 심판을 집행하시니, / 이 영광은 그분의 모든 성자들에게 있나이다**

숨 쉬는 모든 것과 모든 피조물이 / 주님을 찬양하나이다; / 주님은 십자가로 죽음을 없애시고, / 유일한 인자이신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드러내셨나이다

**그분의 성자들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, / 그분의 하늘에서 그분의 능력을 찬양하라.**

유대인들이 대답하게 하소서: / 왕을 지키던 군인들이 어떻게 *그분*을 잃어버렸나이까? / 왜 생명의 돌이 그 돌을 지키지 못하였나이까? / 아니면 묻히신 분을 내놓든지, / 아니면 부활하신 분께 경배하며, / 우리와 *함께* 외치게 하소서: / “주님의 자비하심이 무궁하시니, / 우리의 구세주여, 주님께 영광을!”

**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라, / 그분의 위엄의 풍성함을 따라 찬양하라.**

기뻐하라, 백성들아, 즐거워하라! / 무덤의 돌 위에 앉아 있던 천사가, / 우리에게 기쁨을 전하며 외쳤다: / “세상의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으니, / 온 땅을 향기로운 향기로 가득 채우셨도다. / 기뻐하라, 백성들아, 즐거워하라!”

**나팔 소리로 그분을 찬양하라, / 수금과 거문고로 그분을 찬양하라.**

주님, 주님께서 잉태되시기 전, 천사가 / 은총을 받은 이에게 “기뻐하라”는 *인사*를 전하였고, /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, 천사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무덤에서 / 돌을 굴러 치웠나이다. / 첫 번째 천사는 슬픔 대신 / 기쁨의 징조를 드러냈고, / 두 번째 천사는 죽음 대신 / 우리에게 생명의 주님이신 주님을 선포했습니다. /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나이다: / “모든 이의 은인이신 주님, 주님께 영광을!”

## 다른 스티히라, 동방식

**팀파니와 합창으로 그분을 찬양하라, / 현악기와 오르간으로 그분을 찬양하라.**

그분의 아내들이 눈물과 함께 향유를 / 그분의 관 위에 부었으나, / “주님께서 부활하셨다!”는 소식을 전받았을 때 / 그들의 입은 기쁨으로 가득 찼도다.

**아름다운 소리의 킴발로 그분을 찬양하라, 울림 있는 킴발로 그분을 찬양하라. / 숨 쉬는 모든 것이 주님을 찬양하리라!**

우리의 하나님 그리스도를 모든 족속과 민족들이 찬양하게 하소서, /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/ 사흘 동안 음부에 머무르셨으니, / 또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분을 경배하게 하소서, / 그 부활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끝이 빛을 얻었나이다.

**일어나소서,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, 주의 손이 높이 들리시며, / 주의 가난한 자들을 끝까지 잊지 마소서!**

그대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셨나이다, 그리스도여, / *그대*의 뜻대로; / 하나님이자 주님으로서 죽음을 이기시고(영광 중에 부활하셨나이다), / 세상에 영원한 생명과 / 큰 자비를 베푸셨나이다.

**주님, 저는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겠나이다, / 주님의 모든 기적을 선포하겠나이다**

실로 너희, 불의한 자들아, / *무덤*의 돌을 봉인함으로써, / 우리에게 더 큰 기적을 베풀어 주었도다. / “오늘 그분이 무덤에서 나오셨다!”라고 말했던 파수꾼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. 그러나 여러분은 그들에게, / “우리가 잠든 사이에 / 제자들이 와서 그분을 훔쳐 갔다고 말하라”고 했습니다. / 그러나 누가 죽은 자를, 게다가 옷을 벗은 채로 훔쳐 가겠습니까? / 그분은 하나님이로서 자신의 권능으로 부활하셨으니, / 무덤에는 심지어 자신의 장례용 *수의마저* 남겨 두셨도다. / 오라, 보라, 유대인들이여, / 죽음을 이기시고 / 인류에게 / 끝없는 생명과 위대한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 / 봉인을 깬 채 그대로 계심을.

**영광송: 복음 시편.**

**그리고 이제, 제2음조:** 지극히 복되시도다, 성모 동정녀여, / 주님께서 당신에게서 성육신 하심으로 지옥이 사로잡혔고, / 아담이 *그곳에서* 돌아왔으며, / 저주가 힘을 잃었고, / 하와가 해방되었으며, 죽음이 죽임을 당하였고 / 우리도 생명으로 충만해졌나이다. / 그러므로 찬양하며 외치나이다: / “기쁘게 허락하신 그리스도 하느님, 찬미받으소서!”

**사제:** 우리에게 빛을 보여 주신 주님께 영광을!

**위대한 찬양.**

**부활절 트로파리**

무덤에서 부활하사, 주님, 지옥의 쇠사슬을 끊으시고, / 죽음에 대한 심판을 무효화하시며, / 모든 이를 원수의 그물에서 구원하셨나이다; / 또한 주님의 사도들에게 나타나시어, / 그들을 전도하러 보내시고, / 그들을 통해 온 세상에 평화를 베푸셨나이다, / 유일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여.

**그리고 축도.**

**성찬례에서**

**복되도다, 8절**

강도의 외침을 / 주님께 드리며 주님께 부르짖나이다: / “구세주여, / 주님의 왕국에서 우리를 기억하소서!”

**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,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.**

우리/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며 / 주님께 십자가를 바칩니다. / 우리를 위해 / 이 십자가를 짊어지신, 사람을 사랑하시는 주님.

**화평을 이루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,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다.**

주님, 주님의 장사와 부활을 경배하나이다. / 이를 통해 주님은 썩어가는 것에서 /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,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시여.

**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,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.**

주님, 주님의 죽음으로 / 죽음이 삼켜졌으며, / 주님의 부활로 / 구세주이신 주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.

**나를 위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모욕하고 쫓아내며 온갖 부당한 말로 비방할 때, 너희는 복이 있도다.**

주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/ 향유를 바치러 온 여인들을 만나시고, / 제자들에게 / 주님의 부활을 알리라고 명하셨습니다.

**기뻐하고 즐거워하라.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.**

어둠 속에서 잠들어 있던 자들이, /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서 / 빛이신 주님을 뵈고, / 부활하였나이다, 그리스도여.

**삼위일체께 영광을:** 아버지를 찬양하며, / 아들에게 모두 경배하고, / 성령을 / 믿음으로 찬양하리이다.

**그리고 이제, 성모송:** 기뻐하라, 불꽃 같은 보좌여! / 기뻐하라, 결혼을 알지 못한 신부여! / 기뻐하라, 동정녀여, / 사람들에게 하느님을 낳으신 이여!

## 2성부

### 프로키멘

나의 힘과 나의 노래이신 주님, / 그분은 나의 구원이 되셨나이다.

**구절:** 주님께서 나를 훈계하시며 징계하셨으나, 죽음에 넘겨주지는 않으셨도다.

시편 117:14, 18

### 할렐루야

**절:** 슬픔의 날에 주님께서 너를 들으시며,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보호하시기를.

**구절:** 주님, 왕을 구원하시고, 우리가 주님을 부를 날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.

시편 19:2, 10

## 제3음조

### 대저녁 기도 때

“주여, 내가 부르짖나이다”에 이어 10절의 스티히라: 주일 옥토이히 3개, 동방 4개, 미네이 3개. 성인을 기념할 때는 옥토이히 스티히라 4개를 부르고, 성인 스티히라 6개를 부른다. 영광송: 미네이, 그리고 “지금도”: 첫 번째 성모송, 해당 음조.

### 부활절 스티히라

내 영혼을 어둠의 감옥에서 이끌어 내소서, / 내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소서.

그대의 십자가로, 그리스도 구세주여, / 죽음의 권세가 무너지고 / 마귀의 유혹이 소멸되었나이다; / 믿음으로 구원받는 인류는 / 그대께 늘 찬송을 드리오니.

의인들이 나를 기다리리니, / 주께서 내게 보답하실 때까지.

온 세상아 / 주님의 부활로 빛을 얻었나이다, 주님, / 낙원이 다시 열렸나이다; / 모든 피조물이 주님을 찬양하며, / 주님께 늘 찬송을 드리오니.

깊은 곳에서 주님께 부르짖나이다, 주님, / 주님, 제 목소리를 들어주소서.

나는 아버지와 아들의 능력을 찬양하며, / 성령의 권능을 노래하노니, / – 분리될 수 없고 창조되지 않은 신성, / 본질적으로 하나이신 삼위일체, /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분이시니.

### 동방 성가

주님의 귀가 / 나의 간구하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기를.

그리스도여,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에 경배하며, / 주님의 부활을 노래하고 찬양하나이다; / 주님의 상처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치유되었나이다.

주여, 주여, 주께서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누가 견딜 수 있겠나이까? / 주께는 용서가 있나이다.

동정녀에게서 육신을 입으신 구세주를 찬양하나이다; /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/ 셋째 날에 부활하사, / 우리에게 큰 자비를 베푸셨나이다.

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주님을 기다렸나이다, 주님, 내 영혼이 주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었나이다, / 내 영혼이 주님께 의지하였나이다.

음부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/ *그들에게* 내려가 기쁨을 선포하시며, / “용기를 내라, 내가 이제 이겼다, / 나는 부활이요, 내가 너희를 이끌어 내리라, / 죽음의 문을 무너뜨리고.”라고 *외치셨다*.

**아침 파수꾼 때부터 밤까지, 아침 파수꾼 때부터 / 이스라엘이 주님을 의지하게 하소서.**

우리는 합당치 않게 / 주님의 지극히 거룩한 성전에 서서, / 저녁 찬송을 부르며, / 마음 깊은 곳에서 외치노라: / “세상을 밝히신 그리스도 하느님, /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! / 주님의 백성을 주님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소서,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시여!”

**영광송: 미네아의 스티히라.**

**그리고 이제, 성모님:** 우리가 어떻게 놀라지 않겠습니까 / 당신에게서 태어난 신인(神人)을,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시여! / 이는 남편과의 관계를 경험하지 않으신, 흠 없는 분이시여, / 아버지 없이 육신을 입은 아들을 낳으셨으니, /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어머니 없이 태어나신 분, / *그 과정에서* 어떠한 변화도, / 혼합도, 분열도 겪지 않으시고, / 각 본성의 속성을 / 온전히 보존하신 분이시니. / 그러므로, 동정녀 어머니이시며 주인이신 분, / 당신을 정통적으로 성모 마리아로 고백하는 이들의 영혼이 구원받도록 / 그분께 간구해 주소서.

**입장. “기쁨의 빛:”**

### 프로키멘, 6음조

주님께서 왕좌에 오르셨으니, / 영광으로 옷 입으셨도다.

**절:** 주님께서 권능을 입으시고, 허리에 띠를 두르셨도다.

**절:** 그분께서 우주를 굳게 세우셨으니, 그것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.

**절:** 주님, 주님의 궁전에는 거룩함이 어울리나이다, 영원토록.

시편 92:1, 5B

**그 다음에는 ‘주님, 허락하소서’라는 간구 기도인 특별 기도문이 이어집니다.**

### 성가대석에서의 스티히리

그대의 수난으로, 그리스도여, / 해를 어둡게 하셨고, / 그대의 부활의 빛으로 / 만물을 비추셨나이다! / 우리의 저녁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,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시여.

**구절:** 주님께서 왕좌에 오르셨으니, / 영광으로 옷 입으셨도다.

주님의 생명을 주는 부활이여, / 온 우주를 비추셨고 / 주님의 멸망했던 피조물이 *생명을 향해* 외쳤나이다. / 그러므로 우리는 아담의 저주에서 벗어나 외치나이다: / “전능하신 주님, 주님께 영광을!”

**구절:** 그분께서 우주를 굳게 세우셨으니, / 우주는 흔들리지 않으리라.

변함없는 하나님으로 계시면서도, / 육신으로 고난을 당하시며 변하셨나이다; / *그리고 십자가에* 매달리신 주님을 볼 수 없었던 피조물은, / 두려움에 떨며, / 신음하며 주님의 오래 참

### 3번 파트

으심을 찬양하였나이다. / 그러나 음부에 내려가신 주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사, / 세상에 생명과 큰 자비를 베푸셨습니다.

**구절: 주님의 집에는 거룩함이 마땅하니, / 주님, 영원토록.**

우리 죽속을 죽음에서 구원하시려고, / 주 그리스도여, 주께서는 죽음을 겪으시고 / 셋째 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, / 주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자들을 주님과 함께 부활시키시고 세상을 비추셨습니다. / 주님,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!

**영광: 미네아에 수록된 스티히라, 있는 경우. 없는 경우:**

**영광, 그리고 지금, 성모송:** 씨 없이 성령으로 / 아버지의 뜻에 따라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셨습니다. / 아버지께로부터 어머니 없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계셨으나, /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아버지 없이 태어나신 분을 / 육신으로 태중에 품으시고 / 젖먹이 아기처럼 젖을 먹이셨습니다. / 그러므로 우리 영혼이 재앙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/ 끊임없이 증보해 주시옵소서.

**그 다음: “이제 보내 주시니:” ‘주님의 기도’ 뒤에 삼위일체 찬송**

### 트로파리

하늘의 모든 것이 기뻐하며, / 땅의 모든 것이 즐거워하리니, / 주님께서 그분의 손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셨나니: / 죽음으로 죽음을 짓밟으시고, / 죽은 자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시며, / 지옥의 깊은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/ 세상에 큰 자비를 베푸셨나이다.

**영광이여, 이제 또한, 성모께:** 우리 인류의 구원의 중재자 *오*신/당신을, / 찬양하나이다, 동정녀 성모여, / 이는 당신에게서 육신을 취하신 당신의 아들이자 우리 하느님께서, /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겪으시고, / 인류를 사랑하시는 분으로서 우리를 썩어짐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.

**같은 트로파르를 “하나님이시요 주님이시여:”에서도 부릅니다.**

### 아침 기도 때

**“하나님이시요 주님이시여:”를 제3음조로 부르고, 부활 트로파리를 두 번, 성모송을 한 번 부릅니다(대저녁 기도 참조). 그 후 시편의 통상적인 낭송이 이어집니다.**

### 각 1절씩 세달렌을 낭송한다

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으니, 죽은 자들의 첫 번째이시라. / 그분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태어나신 분이시며 / 모든 존재의 창조주이시니 / 우리 인류의 손상된 본성을 / 그분 자신 안에서 새롭게 하셨도다. / 죽음아! 너는 더 이상 권세를 갖지 못하리니, / 만물의 주님께서 네 권능을 꺾으셨음이니라.

**구절:** 일어나소서, 나의 주 하나님이지여, 주의 손이 높이 들리시며, / 주의 가난한 자들을 끝까지 잊지 마소서!

시편 9:33

육신으로 죽음을 맛보신 주님, /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괴로움을 없애셨으며, / 이제 인간을 죽음에 대항하여 굳건히 세우시고, / 옛 저주가 폐지되었음을 선포하셨습니다. / 우리 생명의 수호자이신 주님,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!

**영광송, 그리고 지금, 성모 마리아께:** 당신의 동정녀로서의 아름다움과 / 빛나는 순결함에 경탄하며, / 가브리엘이 당신께 부르짖었나이다, 성모 마리아여: / “어떤 찬양을 드려야 당신께 합당하리이까? / 어떻게 당신을 부를까요? / 나는 당혹스러워하며 놀라워하오니, / 명령받은 대로 당신께 외치나이다: / ‘기뻐하라, 은총 받으신 이여!’

## 제2 절에 따른 세달렌

변함없는 신성과 / 주님의 자발적인 고난에 경탄한 지옥은 / 스스로 이렇게 탄식했습니다: / “그분의 썩지 않는 육신의 본성에 전율하며, / 보이지 않는 분이 신비롭게 나를 향해 전쟁을 벌이시는 것을 봅니다. / 그러기에 내가 붙잡고 있는 자들도 외치나니: / “그대의 부활에 영광을 돌리나이다, 그리스도여!”

**구절:** 주님,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리니, / 주의 모든 기적을 선포하리이다.

시편 9:2

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 처형과 형언할 수 없는 부활을 / 우리 신실한 자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신비로 고백하노니: / 이는 오늘 죽음과 지옥이 정복되었고, / 인류는 썩지 않음을 입었기 때문이라. /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며 외치노니: / “그대의 부활에 영광을 돌리나이다, 그리스도여!”

**영광이여, 지금도, 성모여:** 헤아릴 수 없고 무한하신 분, / 성부와 성령과 본질적으로 하나이신 분을 / 성모여, 그대 태중에 신비롭게 품으셨나이다. / 삼위일체의 하나이면서도 분리되지 않는 역사하심을 / 우리는 그대에게서 태어나신 그리스도를 통해 / 이 세상에서 찬양하는 법을 배웠나이다. /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당신께 부르짖나이다: / “기뻐하소서, 은총 받으신 분!”

그 다음 ‘흠 없는 이들에 대한’ 트로파리와 소에크테니아.

## 이파코이

위엄 있는 모습으로 감동을 주면서도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, / 찬란한 천사가 향유를 가져온 여인들에게 외쳤다: / “무덤에서 살아 계신 분을 무엇을 찾고 있느냐? / 그분은 무덤을 비우고 부활하셨으니, / 썩어가는 육신을 변화시키신 변치 않으시는 분을 알아라. / 하나님께 외쳐라: 주의 행하심이 얼마나 위대하신지, / 주께서 인류를 구원하셨나이다!”

**엄숙한 노래. 안티폰 1**

시온의 포로들을 / 바빌론에서 해방시키셨으니, / 나 또한 삶에 대한 정욕에서 / 말씀으로 이끌어 주소서!

남풍이 불 때 / 신의 영감으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, / 기쁨으로 / 영생의 이삭을 거두리라.

**영광송:** 성령께로부터 오는 모든 선한 선물은, / 아버지께로부터와 아들에게서 오는 것처럼 빛나나니: /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살아 움직이느니라.

**그리고 지금: 우리는 이를 다시 되풀이합니다.**

**대송 2**

주님께서 덕행의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, / 우리는 헛되이 수고할 뿐입니다; / 영혼이 그분의 보호 아래 있다면, / 아무도 우리 성을 파괴하지 못할 것입니다.

성인들은 언제나 태종의 열매와 같으니, / 성령으로 입양되어, / 아버지께와 같이 그리스도께도 그러하도다.

**영광송:** 성령 안에서 / 모든 *거룩함과* 지혜가 드러나나니, / 이는 그분께서 온 피조물에게 존재를 주시기 때문이니라. / 그분을 섬기자, 그분은 하나님이니, / 아버지께와 말씀께와 같이.

**그리고 지금: 우리는 같은 말을 되풀이합니다.**

**안티폰 3**

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, / 그들은 계명의 길을 걸으며, / 온갖 생명을 주는 열매를 맛볼 *것이기* 때문이다.

기뻐하라, 목자들의 수장이여, / 네 식탁 주위에 선행의 가지를 든 / 네 후계자들을 보며.

**영광송:** 성령 안에 – 모든 영광의 풍요가 있으며, / 그분으로부터 – 온 피조물에게 은혜와 생명이 나옵니다. / 그러므로 그분은 / 성부와 성자와 *함께* 찬양받으십니다.

**그리고 지금: 우리는 이를 다시 되풀이합니다.**

**프로키멘**

만민 가운데서 말하라: “주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셨도다”, / 이는 그분께서 우주를 바로잡으셨으므로, 그것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.

**절:** 주님께 새 노래를 부르라, 온 땅이여, 주님께 노래하라!

시편 95:10A, 1

“숨 쉬는 모든 것이 주님을 찬양하라.” 하고 주일 아침 복음서를 읽습니다.

## 복음서 후의 주일 찬송

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으니, / 거룩하신 주 예수님께 경배합시다, / 유일하시고 죄 없으신 분께. / 주님의 십자가에 경배합니다, 그리스도여, / 주님의 거룩한 부활을 노래하며 찬양합니다, /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니, / 주님 외에는 다른 분을 알지 못하며, / 주님의 이름을 부르나이다. / 오라, 모든 신자들아, /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배합시다, / 보라, 십자가를 통해 / 온 세상에 기쁨이 임하였나니. / 항상 주님을 찬양하며, / 그분의 부활을 노래합시다, /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겪으시고, / 죽음으로 죽음을 무찌르셨나니.

**시편 50편.**

**슬라바:** 자비로우신 주님, 사도들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수많은 죄를 씻어 주소서.

**그리고 이제:** 자비로우신 주님, 성모 마리아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수많은 죄를 씻어 주소서.

**그 다음, 제6음조:** 하나님, 주님의 크신 자비와 풍성한 은혜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, 저의 죄악을 씻어 주소서.

**그리고 스티히라:** 예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으니, / 예언하신 대로, /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/ 큰 자비를 베푸셨나이다.

**그리고 기도:** 하나님이시여,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소서:

## 카논

첫 번째 – 주일용 4음조, 두 번째 – 십자가 부활용 3음조, 세 번째 – 성모송 3음조 및 미네이 4음조. 성인을 기념하는 날에는 6음조로, 십자가 부활용 2음조 및 성모송 2음조를 사용합니다.

## 제1곡

**제1 캐논**

**이르모스:** 한때 신성한 손짓으로 /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고 /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바다를 갈라놓으신 분, / 그분은 우리 지극히 찬양받으실 하나님이니. / 오직 그분께만 찬양드리리니, / 그분은 영광을 받으셨나이다.

**후렴:** 주님, 주님의 거룩한 부활에 영광을 돌리나이다.

죄를 지은 인간을 위해 땅을 심판하사 / 수고의 열매로 가시를 맺게 하신 / 그분, 우리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취하사 / 불의한 자들의 손에서 가시관을 받으시고 / 저주를 없애셨으니, 이는 그분이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.

죽음을 이기고 승리를 거두신 분은 / *그리/스도*의 두려운 죽음이셨나니; / 이는 우리 하나님이니, 육신을 취하사 / 생명을 지니고 고통받을 수 있게 하시고 / 고문자와 싸우시어 / 모든 이를 그분과 함께 부활시키셨으니, 이는 그분이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이라.

### 3번 파트

**성모송:** 모든 민족은 씨 없이 낳으신 / 당신을 참된 성모로 여깁니다; / 이는 거룩하게 된 당신의 태중에 들어가셔서, / 우리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의 본성을 취하시고 / 당신에게서 하나님이자 사람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.

#### 제2 캐논

죄를 사랑하는 고문자에게 노예가 된 인류는, /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신성한 피로 속량하셨으며, / 생명을 불어넣어 새롭게 *하셨습니다*, / 이는 그분이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.

죽을 사람으로서 자발적으로 죽음을 맛보신 / 생명의 주님이신 그리스도; / 그러나 *신성한* 본성으로 인해 불멸하신 그분은, / 죽은 자들을 살리셨으니; / 이는 그분이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.

#### 제3 캐논

하늘의 모든 피조물들이 / 동정녀여, 당신에게서 성육신하신 분 앞에서 / 경건히 무릎을 꿇으며, / 땅의 피조물들과 함께 음부도 그러하니, / 이는 그분이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.

오, 당신 안에서 *이루어진*이 교환이여! / 자비로우신 선물의 주님이시며, / 우리에게 신성한 성령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, / 동정녀여, 당신으로부터 육신을 취하셨으니; / 이는 그분이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.

**그 후 미네아 전례서의 카논에서 발췌한 트로파리와 규정에 따른 카타바시아.**

### 제3곡

#### 제1 캐논

**이르모스:** 무에서 만물을 이끌어내신 분, /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성령으로 완성하신 분! / 전능하신 주님, /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굳건히 세워 주소서.

주님의 십자가로 악인이 수치를 당하였나니: / 그가 구덩이를 파서 준비하였으나, *정작 그 자신* / 그 구덩이에 빠졌나이다; / 그러나 겸손한 자들의 존엄은 / 그리스도여, 주님의 부활로 높이 들어 올려졌나이다.

만민에게 전하신 경건함에 대한 설교는 / 마치 물이 바다를 채우듯 *그들을* 가득 채웠나이다,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시여; / 이는 주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사 / 삼위일체의 광채를 드러내셨기 때문이니이다.

**성모송:** 주님에 대해 영광스러운 말씀이 전해지니, / 영원히 통치하시는 분의 살아 숨 쉬는 성전이시여; / 주님, 여왕이시여, 주님 덕분에 / 하느님께서 땅 위에 계신 이들 가운데 거하셨습니다.

#### 제2 캐논

### 3번 파트

우상 숭배의 더러움을 정화하시며 / 주여, 지극히 깨끗하신 십자가여, 나타나셨나이다; /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/ 그분의 두 팔을 주 위에 펼치셨기 때문이니이다.

우리 모든 신자들이 / 생명을 품은 관이신 당신 앞에 경배하도록, /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묻히시고 *당신 안에서* 부활하셨으니 – / 우리 참 하나님이라.

#### 캐논 3

예세이의 뿌리에서 뻗어 나온 가지, / 예언대로 자라난 동정녀가, / 우리에게 꽃을 피웠으니, 바로 주 그리스도시니이다. / 거룩하시도다, 주님.

땅에서 태어난 자들을 / 신성의 동참자로 삼으시려고, / 주님은 동정녀에게서 우리의 육신을 취하시어 가난해지셨습니다. / 주님, 거룩하시도다.

### 제4편

#### 캐논 1

**이르모스:** 주님,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굳건한 사랑을 베푸셨나이다, / 주님의 독생자 아들을 /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내어주셨나이다. /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며 주님께 부르짖나이다: / “주님의 능력에 영광을 돌리나이다!”

그대, 그리스도여, 상처와 타박상을 / 자비로 참아내셨으며, / 매질로 모욕당하면서도 참으시고, / 오래 참으심으로 침 뱉음을 견디셨으니: / 그것들로 그대는 나의 구원을 이루셨나이다. / 주님의 능력에 영광을 돌리나이다!

당신은, 생명이신 주님, 당신의 죽을 몸으로 / 가난한 자들의 곤경과 당신의 가난한 자들의 신음 때문에 / 죽음에 동참하셨으며, / 멸망자를 멸망시키시고, 지극히 찬양받으시는 주님, / 유일한 인자이신 주님은 모든 이를 당신과 함께 부활시키셨습니다.

**성모송:** 그리스도여, 주님의 양 떼를 기억하소서, / 주님께서 당신의 고난으로 얻으신 그 양 떼를, / 주님의 영광스러운 어머니의 자비로운 간구를 받아들이시고; / 그리고 억압받는 그들을 방문하사, / 주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소서, 주님.

#### 제2 캐논

주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, / *골고다에서* 십자가에 못 박히신,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시여, / 죄로 인해 죽임을 당한 *그들* / 그 죄악을 통해 구원하셨습니다.

그녀에게 삼켜졌던 죽은 자들을 죽음은 되돌려 주었고, / 주님, 주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을 때, 파멸을 가져오는 지옥의 왕국은 멸망했습니다.

**성모 찬가:** 흠 없는 마리아여, 황금 향로여! / 삼위일체의 한 분이신 하나님 말씀께서, / 당신 안에 거하시며 분리되지 않은 채 육신을 입으시고 / 세상을 향기로 가득 채우셨나이다.

#### 제3 캐논

### 3번 파트

산들을 세우신 주님, / 신성한 지혜의 저울로, / 손의 도움 없이 돌 *처럼*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. / 당신의 능력에 영광을 돌리나이다,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시여!

주님, 주님은 우리의 병든 본성을 치유하시고, / 동정녀의 *태중에서* 그 본성과 가장 강력한 약, 곧 / 주님의 말씀이시며 지극히 순결하신 신성을 결합시키셨습니다.

나의 몫이자 소망하는 유산은 - / 주님, 동정을 통해 나를 / 당신의 위격이신 말씀과 결합시켜 주신 것, / 육신에 참여하신 그 위격이십니다.

### 제5편

#### 캐논 1

**이르모스:** 새벽부터 주님께 나아가나이다, 만물의 창조주시여, / 온 세상을 초월하시는 분이시여, / 빛은 주님의 명령이니, / 그 명령 안에서 저를 인도하소서.

유대인들의 시기심 때문에 불의한 재판관에게 넘겨지셨으나, / 온 땅을 의롭게 심판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주님, / 아담을 옛날의 정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.

그대의 교회들에, 그리스도여, / 그대의 십자가의 무적의 힘으로 평화를 베풀어 주소서, /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시여, / 우리 영혼을 구원하소서.

**성모송:** 하늘보다 더 광대하고 거룩한 성막이시여, / 온 피조물이 감당할 수 없는 하느님의 말씀을 품으신 것처럼, / 오직 당신만이 나타나셨나이다, 영원히 동정녀이시여.

#### 제2 캐논

창으로 갈비뼈를 찢으신, 오 나의 그리스도여, / 주께서는 사람의 갈비뼈에서 지어지고 / 모든 사람의 멸망의 원인이 된 자를 / 저주에서 해방시키셨나이다.

본질상 아버지께 동등하신 주님, / 주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/ 주님의 지극히 순결하고 존귀하신 몸이라는 거룩한 성전을 부활시키셨나이다, /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여.

#### 제3 캐논

당신의 아들, 동정녀여, - 하나님의 말씀이시며, / 원초적인 아담의 창조주 *오/시/지* 피조물이 아니시나, / 비록 생명이 깃든 육신을 / 그분께서 당신을 통해 스스로 창조하셨도다.

동정녀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이신 분은 아버지께 동등하시며, / 두 본성 안에서 완전한 위격이시니, / 예수 주님,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십니다.

### 제6편

#### 캐논 1

**이르모스:** 가장 깊은 죄의 심연이 나를 감쌌고, / 내 영은 기진맥진하오나; / 그러나 주님, 주께서 높이 뻗으신 그분의 손을 / 베드로를 구원하신 조타수처럼, 나를 구원하소서.

### 3번 파트

자비와 긍휼의 심연이 나를 감쌌나이다 / 주님의 자비로운 관용으로 말미암아; / 주님, 주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종의 모습으로 태어나시어 / *나*를 신의 지위로 높이시고 주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하셨나이다.

살인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/ 죽임을 당했습니다. / 이것이 곧 주님의 부활의 표징이며, 그리스도여, / 주님의 지극히 순결하신 고난에 대한 상급입니다.

**성모송:** 지극히 순결하신 분이시여, 창조주와 인간 사이에서 / 헤아릴 수 없이 중재자가 되신 분이시여! / 당신의 아드님께서 실족한 당신의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/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도록 간구하소서.

#### 제2 캐논

상처를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며, / 주님은 상처 입은 자들을 지옥에서 끌어올려 주셨습니다. / 그러므로 저는 주님께 외칩니다: / “인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여, 저의 생명을 파멸에서 건져 주십시오!”

그리스도여, 주님 앞에서 / 지옥의 문이 두려움에 떨며 열리고, / 원수의 재물은 약탈당합니다. / 그러므로 과부들은 주님을 맞이하여, / 슬픔 대신 기쁨을 얻었습니다.

#### 제3 캐논

*보이지 않는* 형상을 가지신 분이 / 흠 없는 동정녀에게서 / 우리와 같은 모습을 취하시어, / 겉으로나 실제로나 사람이 되셨으나, / 신성에는 변함이 없으시니.

죄의 심연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/ 그리고 정욕의 폭풍에서도, 지극히 순결하신 분이시여; / 주님께 믿음으로 피난하는 이들에게 / 주님은 피난처이자 기적의 샘이 되셨나이다.

### 콘닥

자비로우신 주님, 오늘 이 날 무덤에서 부활하시어 / 우리를 죽음의 문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. / 오늘 아담은 환호하고 하와는 기뻐하며, / *그들과 함께* 선지자들과 족장들도 끊임없이 / 주님의 신성한 권능을 찬양합니다.

**이코스:** 하늘과 땅이 오늘 기뻐하며 / 그리스도 하느님을 한마음으로 찬양하리니, / 그분께서 무덤에 갇힌 자들을 부활시키셨음이니라. / 온 피조물이 함께 기뻐하며, / 우리 모든 창조주이자 구세주께 / 마땅한 찬송을 드리고 있나니; / 이는 오늘 그분께서 죽을 운명의 자들을 지옥에서 이끌어내시어, / 생명의 주재자이신 그분께서 그들을 하늘로 높이 올리시고, / 원수의 교만을 꺾으시며 지옥의 문을 부수시니, / 그분의 신성한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러하도다.

### 제7편

#### 캐논 1

### 3번 파트

**이르모스:** 옛날에 주께서 / 칼데아의 불길 속에서 세 경건한 소년들에게 / 빛을 발하는 신성한 불로 비추셨듯이, / “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지여, 찬미받으소서!”라고 외치는 우리도 비추소서.

창조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/ 성전의 빛나는 휘장이 찢어지며, / 성경에 감추어진 진리를 / “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지여, 찬양받으소서!”라고 외치는 신자들에게 드러내 주셨나이다.

주님의 갈비뼈가 찢리셨을 때, / 그리스도여, 주님의 신성한 생명의 피 한 방울 한 방울이 / 섭리적으로 땅에 떨어지며, / 흙에서 나온 자들을 다시 살리시니, 그들은 외쳤나니: / “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지여, 찬미받으소서!”

**삼위일체 찬가:** 신실한 이들이여, 성령을 찬양합시다, / 성부와 독생자와 함께, / 삼위일체 안의 단일한 근원과 / 단일한 신성을 공경하며, 외칩니다: / “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지여, 찬미받으소서!”

#### 제2 캐논

십자가에 매달린 분이 단순한 사람이 아님을 보고, / 해가 어두워지나니, /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지라, / 그분께 우리가 찬양하노니: / “찬미받으소서, 주님,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지여!”

강하신 신성으로 불멸을 주시는 분을 받아들이시니, / 비참한 지옥은 의인들의 영혼을 비명 지르며 내뱉었도다. / 찬미받으소서, 주님,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지여!

**성모송:** 귀중한 축복의 보배로 / 당신은 되셨나이다, 온전히 순결하신 분이시여, / 순수한 마음으로 당신을 고백하는 이들에게 /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셨나이다; / 이는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 / 당신을 통해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이니이다.

#### 제3 캐논

영광의 주님이시며 지상의 권능을 다스리시는 분이시여, / 성부와 함께 앉아 계시며 동정녀의 품에 안기신 분이시여! / 찬미받으소서, 주님,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이시여.

죽음은 정복할 수 없으나, 주님께 다가온 죽음을 / 주님께서서는 처녀의 몸으로 신성을 지닌 육신이 되심으로써 멸하셨나이다. / 찬미받으소서, 주님,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지여!

우리 모두는 성모 마리아를 통해 / 하나님의 태중에 그분을 품으신 주님을 인정하오니, / 이는 주님, 청정하신 분이 삼위일체 중 한 분을 육신으로 낳으셨기 때문이니이다. / 찬미받으소서, 지극히 청정하신 분이시여, 주님의 태중에서 나신 분!

### 제8편

#### 캐논 1

### 3번 파트

**이르모스:** 건딜 수 없는 불길 속에 있던 / 경건의 선구자들인 청년들이, / 그러나 불꽃으로 인해 해를 입지 않고, / 신성한 찬송을 불렀나니: / “주님의 모든 피조물들아, 주님을 찬양하라 / 그리고 영원토록 높이라!”

성전의 빛나는 *휘장이* 찢어졌으니, / 골고다 *언덕에*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졌을 때, / 피조물들은 당황하여 두려움 속에 노래하되: / “주님의 모든 피조물들아, 주님을 찬양하라 / 그리고 영원토록 찬양하라!”

그대, 그리스도여, 무덤에서 부활하셨고 / *십자가의* 나무를 통해 신성한 능력으로 / 유혹에 빠져 타락한 *아담*을 회복시키셨으니, / 그가 외치며 부르짖었도다: / “모든 피조물[주님의]아, 주님을 찬양하라 / 영원토록 찬양하라!”

**성모 찬가:** 주님의 성전으로 나타나셨나이다, / 생명이 깃든 거처이자 성막이시여, / 창조주와 인간을 화해시키셨나이다, / 지극히 순결하신 하나님의 어머니시여, / *그러므로 우리와* 모든 피조물은 합당하게 찬양하며 / 영원토록 주님을 높이 찬양하리이다.

#### 제2 개논

말씀은 고난을 겪지 않으시니, / 신성으로는 무정하시나, / 육신으로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니, / 그분께 우리가 노래하노니: / “주님의 모든 피조물들아, 주님을 찬양하라, / 영원토록 찬양하라!”

필멸자처럼 잠들으셨으나, / 구세주여, 불멸자로서 부활하셨으니, / 노래하는 자들을 죽음에서 구원하시나이다: / “주님의 모든 피조물들아, 주님을 찬양하라, / 영원토록 찬양하라!”

**삼위일체 찬가:** 우리는 경건하게 / 세 위격으로 하나이신 신성을 섬기며 / 끊임없이 노래하노니: / “주님의 모든 피조물들아, 주님을 찬양하라, / 영원토록 찬양하라!”

#### 제3 개논

지혜로운 천사들아, 어머니를 뛰어넘으시고 / 하느님께 가까이 연합하신 분을 찬미하라! / 우리는 축복받은 동정녀여, / 당신에게서 태어나신 *그리스도*를 축복하며 / 영원토록 찬양하노라.

당신은 신성의 빛나는 육신 안에서 / 본래의 아름다움을 더욱 찬란하게 드러내셨습니다. / 축복받은 동정녀여, / 당신에게서 태어나신 *그리스도*를 축복하며, / 영원토록 찬양합니다.

**그 후,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님의 찬가를 부릅니다: “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나이다.”**

### 제9편

#### 카논 1

**이르모스:** 전례 없는 신비이자 신성한 일! / 동정녀의 닫힌 문을 통해 / 주님께서 분명히 지나가시니; / 들어오실 때는 형체가 없으셨으나, - / 나가실 때는 육신을 입으신 채 나타나셨고, / 문은 여전히 닫혀 있도다. / 우리는 그녀를 성모로서 말로 다 할 수 없이 찬양하노라.

창조주이신 주님을 / 나무에 매달리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것은 두려운 일이며, / 종들을 위해 육신으로 고통받으시는 하나님을, / 무덤에 숨을 거둔 채 누워 계시지만, / 죽음의 지옥에서 해방시키신 주님을 보는 것도 두려운 일입니다. / 그러므로 우리는 주 그리스도여, / 전능하신 분으로서 주님을 찬양합니다.

그리스도여, 주님은 죽을 운명의 부패로부터 우리 조상들을 구원하셨나이다, / 죽은 자로서 무덤에 안치되셨으나, /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사 생명을 싹트게 하셨으며, / 죽을 운명의 본성을 빛으로 인도하시고 / 신성한 불멸로 입히셨나이다. /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, / 영원한 빛의 근원이신 주님을 찬양하나이다.

**성모송:** 주님은 하나님의 성전과 보좌가 되셨나이다, / 그곳에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 거하시니, / 남편 없이 태어나신 지극히 순결하신 분이시여, / 당신의 육신의 문을 전혀 열지 않으셨나이다. / 그러므로 끊임없는 기도로, 순결하신 분이시여, / 속히 야만적인 부족들을 / 우리 왕께 완전히 복종하게 하소서.

## 제2 캐논

모든 사람을 위한 영광을 / 주님은 수치스러운 죽음에서 이끌어내셨나이다: / 죽을 운명의 본성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그 죽음을 맛보신 구세주여, / 주님은 저에게 불멸을 베풀어 주셨나이다, 그리스도여, /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시여.

그대는 나를 구원하셨나이다, 그리스도여, / 무덤에서 부활하사 높이 올리시고, / 당신의 아버지이신 성부께로 인도하시며, / 그분의 우편에 *당신과* 함께 앉히셨나이다, / 당신의 자비로운 자애로 말미암아, 주여.

## 제3 캐논

경건한 신자들에게는, 동정녀여, / 주님을 향한 찬양이 결코 채워지지 않나니; / 그들은 신성한 사랑과 / 영적인 사랑을 끊임없이 더하며, / 주님의 어머니이신 *주님*을 찬양하오니.

주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믿음직한 중보자를 주셨으니, - / 주님을 낳으신 분, 그리스도여; / 그분의 간구로 우리에게 자비로운 성령을 내려 주시옵소서, / 선하심을 베푸시는 분, 성부께로부터 주님을 통해 나오시는 성령이시여.

**카타바시아 후 소에크테니아를 바치고, 이어서 “거룩하시도다, 우리 주 하느님:”과 부활절 엑사포스티라리움을 바친다.**

**“찬양하라”에 부활절 스티히라(8음조)**

**그들 가운데서 정해진 심판을 집행하시니; / 이 영광은 그분의 모든 성자들에게 있나이다**

모든 민족이여, 오라, /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신비의 능력을 깨달아라: /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는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시니, /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자발적으로 묻히셨으며, / 모든 이를 구원하시려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도다. / 그분께 경배합시다!

**그분의 거룩하심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, / 그분의 견고한 하늘에서 그분의 능력을 찬양하라.**

주님을 지키시던 이들이 / 모든 기적을 전하였나이다; / 그러나 무모한 산헤드린은, 그들의 손을 선물로 가득 채우며, / 세상이 찬양하는 주님의 부활을 / 숨기려 하였나이다.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!

**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라, / 그분의 위엄의 풍성함을 따라 찬양하라.**

부활에 대한 확증을 얻으니 / 모든 것이 기쁨으로 가득 찼나이다. /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이르러 / 빛나는 옷을 입은 천사를 보았으니, / 그가 돌 위에 앉아 외치기를: / “왜 너희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산 이를 찾느냐? /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,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으니, / 갈릴리에서 너희를 앞서 가신다!”

**나팔 소리로 그분을 찬양하라, / 수금과 거문고로 그분을 찬양하라.**

인류를 사랑하시는 주님, 주님의 빛 안에서 / 우리는 빛을 볼 것이니, / 주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/ 인류에게 구원을 베푸셨으니, / 모든 피조물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– / 유일하신 죄 없으신 분을.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.

**다른 스티히라, 동방식**

**팀파니와 춤으로 그분을 찬양하라, / 현악기와 오르간으로 그분을 찬양하라.**

향유를 바친 여인들의 아침 노래처럼 / 눈물을 바쳤나이다, 주여: / 향기로운 향료를 손에 들고 / 주님의 관에 다다랐으니, / 주님의 지극히 순결하신 몸을 향유로 기름 부으려 서둘렀나이다. / 돌 위에 앉아 ~~계시~~ 천사가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되: / “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산 이를 찾느냐? /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, 하나님으로서 부활하셨으니, / 모든 이에게 큰 자비를 베푸셨도다!”

**아름다운 소리의 킨발로 그분을 찬양하라, 울림 있는 킨발로 그분을 찬양하라. / 숨 쉬는 모든 것이 주님을 찬양하리라!**

당신의 생명의 관 앞에서 빛나는 천사가 / 향유를 가져온 여인들에게 외쳤다: / “구세주께서 무덤들을 텅 비게 하셨으니, / 지옥을 이기시고 셋째 날에 부활하셨도다, /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!”

**일어나소서, 주 나의 하나님이지여, 주의 손이 높이 들리시며, / 끝까지 주의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소서!**

주님의 무덤에서 마리아 막달레나가 / 주일 *첫날에* 와서 주님을 찾았으나, / 찾지 못하고 슬퍼하며 울부짖어 외쳤나니: / “아아, 나여! 나의 구세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누가 훔쳐 갔나이까?” / 그러자 두 생명의 천사가 / 무덤 안에서 외쳤나니: / “여인아, 왜 울고 있느냐?” - / “울고 있습니다.” 그녀가 말하길, / “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가셨기 때문입니다. / 어디에 두셨는지 모르겠습니다.” / 그러나 뒤를 돌아보아 주님을 보자, / 그녀는 즉시 외쳤다: / “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지여!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!”

**주님, 저는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겠나이다, / 주님의 모든 기적을 선포하겠나이다**

유대인들은 생명을 무덤에 가두었으나, / 한 강도는 낙원의 *문을* 열어젖히며, / 입으로 외치고 선포하기를: / “나와 함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나무에 매달려 계셨고, / 아버지 곁에 보좌에 앉아 계신 모습을 내게 보이셨나니, / 이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, 우리 하나님이시며, / 큰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!”

**슬라바: 복음 시편.**

**이제, 제2음조:** 지극히 복되시도다, 동정녀 성모여, / 주께서 당신에게서 육신을 입으심으로 지옥이 사로잡혔고, / 아담이 *그곳에서* 돌아왔으며, / 저주가 힘을 잃었고, / 하와가 해방되었으며, / 죽음이 무력화되었고, / 우리도 생명으로 충만해졌나이다. / 그러므로 찬양하며 외치 나이다: / “기쁘게 허락하신 그리스도 하느님, 찬미받으소서!”

**사제:** 우리에게 빛을 보여 주신 주님께 영광을!

**위대한 찬양.**

### **부활절 트로파리**

오늘 이 날, 세상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! / 무덤에서 부활하신 분과 / 우리 생명의 주재자를 찬양합시다. / 그분은 죽음으로 죽음을 멸하시고, / 우리에게 승리와 큰 자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.

**그리고 축도.**

성찬례에서

복되도다, 8절

그대의 계명을 거역한 자, 그리스도여, / 조상 아담을 낙원에서 쫓아내셨나이다; / 그러나 자비로우신 주께서는 그에게 강도를 갚아 주셨으니, / 십자가 위에서 주를 고백하며 외치던 자라: / “구세주여, 주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하소서!”

**마음이 청결한 이들은 복이 있나니,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.**

죄를 지은 우리를, 생명의 주님이시며 주님이신 주님께서는 / 죽음의 저주로 정죄하셨으나, / 주님, 당신의 육신으로 무죄하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/ “주님의 나라에서 우리도 기억해 주소서!”라고 외치는 죽을 운명의 자들을 살리셨습니다.

**화평을 이루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,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다.**

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, 주님, 주님의 부활로 우리를 정욕에서 일으키시고, / 죽음의 모든 권세를 멸하셨습니다. /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께, 구세주여, 외칩니다: / “주님의 나라에서 우리도 기억해 주소서!”

**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,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.**

삼일간의 장사를 통해 / 음부에서 죽은 자처럼 머물러 있던 자들을, / 주님은 하나님으로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주님과 함께 일으키셨으며, / 선하신 분으로서 우리 모두에게 불멸을 베풀어 주셨으니, / 믿음으로 항상 외치는 우리: / “주님의 나라에서 우리도 기억해 주소서!”

**너희는 복이 있도다. 나를 위하여 너희를 모욕하고 핍박하며 온갖 불의한 말로 비방할 때에도.**

주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, 가장 먼저 향유를 바치러 온 여자들에게 나타나시어, / “기뻐하라”고 외치셨나이다, 구세주여; / 그리고 그들을 통해 주님의 친구들에게 / 주님의 부활을 알리시나이다, 그리스도여. /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께 외치나이다: / “주님의 나라에서 우리도 기억해 주소서!”

**기뻐하고 즐거워하라,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.**

모세는 산 위에서 두 팔을 벌려 / 십자가를 예표하며 아말렉을 도망치게 하셨나이다. / 우리도 그의 믿음을 / 악마들에 대항하는 강력한 무기로 삼아, 모두 함께 외치나이다: / “주님의 나라에서 우리도 기억해 주소서!”

**영광이 삼위일체이시니, 성부, 성자, 성령께 / 신실한 자들아, 한 분 하나님이시며 한 분 주님이신 분을 찬양하리니, / 마치 한 분 태양으로부터 비치는 빛과 같이; / 삼위일체이신 분은 모든 이를 비추시며, “주의 나라에서 우리도 기억해 주소서!”라고 외치는 자들을 비추시나니.**

### 3번 파트

**그리고 이제, 성모여:** 기뻐하라, 하느님의 문이여, / 성육신하신 창조주께서 지나가시며, /  
너를 봉인하여 지켜주신 그 문이여! / 기뻐하라, 가벼운 구름이여, / 신성한 비, 곧 그리스도를  
실어 나르는 구름이여! / 기뻐하라, 하늘의 사다리이자 보좌여! / 기뻐하라, 거룩하고 비옥하며  
갈라지지 않는 산이여!

### 프로키멘

우리 하나님께 노래하라, 노래하라, / 우리 왕께 노래하라, 노래하라.

**구절:** 모든 민족들아, 손뼉을 치고, 기쁨의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라.

시편 46:7, 2

### 할렐루야

**절:** 주님, 저는 주님을 의지하오니, 영원토록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.

**구절:** 나를 구원하시려고, 나의 보호자이시며 피난처가 되어 주십시오.

시편 30:2A, 3B

## 제4음조

### 대저녁 기도 때

“주여, 내가 부르짖나이다”에 맞춰 10절의 스티히르를 부릅니다: 부활절 옥토이히 3개, 동방 4개, 미네이 3개. 성인을 기념할 때는 옥토이히 스티히르 4개를, 성인 스티히르 6개를 부릅니다. 영광송: 미네이, 그리고 “지금도”: 성모송 첫 번째, 해당 음조.

### 부활절 스티히라

**내 영혼을 어둠의 감옥에서 이끌어 내소서, / 내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소서.**

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십자가에 / 끊임없이 경배하며, 그리스도 하느님, / 우리는 셋째 날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나이다; / 이는 전능하신 주님께서 그것으로 썩어가는 인간의 본성을 새롭게 하시고, / 유일한 선하시고 인류를 사랑하시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하늘로 올라가는 길을 보여 주셨기 때문이니이다.

**의인들이 나를 기다릴 것이니, / 주께서 내게 보응하실 때까지.**

불순종의 나무에 대한 형벌을 / 주님은 십자가의 나무로 없애 주셨나이다, 구세주여, / 자발적으로 그 나무에 못 박히신 분이시여; / 그리고 지옥에 내려가신 전능하신 주님, / 주님은 하나님으로서 죽음의 사슬을 끊어 버리셨나이다. /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경배하며, / 기쁨으로 외칩니다: “전능하신 주님, 주님께 영광을!”

**깊은 곳에서 주님께 부르짖나이다, 주님, / 주님, 내 목소리를 들으소서.**

주님, 주님은 지옥의 문을 부수셨으며, / 당신의 죽음으로 죽음의 왕국을 무너뜨리시고, / 인류를 썩어짐에서 해방시키시어, / 세상에 생명과 불멸을 베풀어 주셨으며, / 위대한 자비를 베푸셨습니다.

### 동방 성가

**주님의 귀가 / 나의 간구하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기를.**

오라, 형제자매들아, 노래합시다. / 구세주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, /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뜨릴 수 없는 지옥의 쇠사슬에서 해방되었고, / 모두 썩지 않는 생명과 영생을 얻었으니, 우리는 외칩니다: “십자가에 못 박히시고, 장사되시고, 부활하신 분이시여! / 당신의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소서, / 유일하신 인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여!”

주님, 주님, 만일 주님께서 죄악을 따지신다면, 누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? / 주님께는 용서가 있으시니.

천사들과 사람들이 찬양하오니 / 구세주여, 사흘 만에 이루신 주님의 부활을, / 그로 말미암아 우주의 끝이 빛을 받았고, / 우리 모두는 원수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외치나이다: / “생명의 주님이시며, 전능하신 구세주여! / 주님의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소서, / 유일하신 인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여!”

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제가 주님을 기다렸나이다, 주님, 제 영혼이 주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었나이다, / 제 영혼이 주님께 의지하였나이다.

주님은 낯문을 부수시고, / 그리스도 하나님이니여, 빛장을 꺾으셨으며, / 타락한 인류를 부활시키셨습니다. / 그러므로 우리는 한 목소리로 외칩니다: / “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, 주님께 영광을!”

**아침 파수 때부터 밤까지, 아침 파수 때부터 / 이스라엘이 주님을 의지하게 하소서.**

주님! 아버지께로부터의 당신의 탄생은 – / 때를 초월하여 영원하시며; / 동정녀로부터의 성육신은 – / 사람들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으며; / 지옥으로의 강림은 – / 마귀와 그의 천사들에게 두려운 일입니다: / 이는 죽음을 정복하시고, 주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사 / 사람들에게 썩지 않음을 주시고 큰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.

**영광송: 미네아의 스티히라.**

**그리고 지금, 성모여:** 성모님, 당신을 통해, / 하나님의 조상이 ~~된~~ 선지자 다윗이 / 당신을 창조하신 분의 위대함 *앞에서* / 당신에 대해 아름답게 선포하였나니: / “여왕이 주님의 우편에서 계시도다.” /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생명의 모태이신 어머니로 삼으셨기 때문이니, / 아버지 없이 당신에게서 성육신하시기를 기뻐하셨으니, / 정욕으로 인해 상실된 *당신의* 형상을 *우리 안에서* 새롭게 하시고, / 산에서 길을 잃은 양을 찾아내어, / 어깨에 메고 아버지께로 데려가시며, / 당신의 뜻대로 하늘의 권능들과 연합시켜 세상을 구원하시려 하심이라 – / 위대하고 풍성한 자비를 지니신 그리스도.

**입장. “기쁨의 빛:”**

### **프로키멘, 6음조**

주님께서 왕좌에 앉으셨으니, / 영광으로 옷 입으셨도다.

**절:** 주님께서 권능을 입으시고, 허리에 띠를 두르셨도다.

**절:** 그분께서 우주를 굳게 세우셨으니, 그것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.

**절:** 주님, 주님의 궁전에는 거룩함이 어울리나이다, 영원토록.

시편 92:1, 5B

**그 다음에는 ‘주님, 허락하소서’라는 간구 기도인 특별 기도문이 이어집니다.**

### 성가대에서 부르는 스티히라

주님, 주님은 십자가에 오르사, / 우리 조상들로부터 전해진 저주를 없애 주셨으며, / 음부에 내려가시어, 태초부터 그곳에 갇혀 있던 자들을 해방시키시고, / 인류에게 썩지 않음을 주셨습니다. / 그러므로 우리는 찬양하며, /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의 부활을 찬미합니다.

**구절: 주님께서 왕이 되셨으니, / 영광의 옷을 입으셨도다.**

나무에 매달리신, 유일하신 전능자이신 주님은, / 온 피조물을 뒤흔드셨으며, / 무덤에 안치되셨을 때, / 무덤에 있던 자들을 부활시키시어, / 썩지 않음을 인류에게 베푸셨습니다. / 그러므로 우리는 찬양하며 / 사흘 만에 이루어지신 주님의 부활을 찬미합니다.

**구절: 그분께서 우주를 굳게 세우셨으니, / 그것은 흔들리지 않으리라.**

불의한 백성이 주님을 배반하여, 그리스도여, 빌라도에게 넘겨 /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였으니, / 자기의 은인께 배은망덕함을 드러낸 것입니다. / 그러나 주님은 자발적으로 장사를 당하시고, / 제3일에 신의 권능으로 부활하사, /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/ 큰 자비를 베푸셨습니다.

**구절: 주님, 주님의 집에는 거룩함이 마땅하니, / 영원토록 그러하소서.**

부인들은 눈물을 흘리며 무덤에 이르러, / 주님을 찾았으나, / 찾지 못하고 슬퍼하며 울부짖으며 외쳤다: / “아아,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시여! / 누가 주님을 흠쳐 갔나이까? / 그리고 주님의 생명이 깃든 육신은 어디에 있나이까?” / 그러자 천사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외쳤다: / “울지 말고 가서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알리시오, / 자비로우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으니!”

**영광송: 미네아에 수록된 스티히라, 있다면. 없다면:**

**영광송, 그리고 지금, 성모송:** 당신의 종들의 간구에 귀 기울이소서, 흠 없는 분이시여, / 우리에게 닥치는 재앙을 그치게 하시고, / 온갖 슬픔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: / 우리는 오직 당신만을 굳건하고 믿음직한 버팀목으로 삼으며, / 당신 안에서 보호를 얻었나이다. / 여왕이시여, 우리가 주님을 부르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! /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속히 들어주소서: / “기뻐하소서, 여왕이시여, 모든 이의 도움, / 기쁨과 보호자이시며 우리 영혼의 구원이시여!”

**그 다음: “이제 보내 주시니:” ‘주님의 기도’ 뒤에 삼위일체 찬송:**

### 트로파리

천사로부터 부활에 대한 기쁜 소식을 듣고, / 원조들의 정죄에서 해방된, / 주님의 제자들은 사도들에게 외치며 기뻐했습니다: / “죽음이 무너지니, 그리스도 하느님께서 부활하셨나니, / 세상에 큰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여!”

#### 4번 성부

**영광, 그리고 지금, 성모 마리아여:** 태초부터 감추어지셨고 / 천사들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던 신비가, / 당신을 통해, 성모여, 땅에 사는 *이들에게* 드러났으니, / – 두 본성이 혼합되지 않은 일체 안에서 성육신하신 하느님, /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분, – / 그분께서 원초적인 *아담*을 부활시키시고 / 우리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원하셨습니다.

같은 트로파르를 “하나님은 주님이시니:”에서도 부릅니다.

#### 아침 기도 때

“하나님은 주님이시니:”를 4성부로 부르고, 주일 트로파르를 두 번, 성모송을 한 번 부른다(대저녁기도 참조). 그 후 시편의 통상적인 낭송을 진행한다.

#### 세달렌 1편씩

무덤 입구를 바라보며 천사의 불꽃을 건디지 못한 채, / 향유를 가져온 여인들은 경외심에 휩싸여 놀라워하며 외쳤다: / “설마 낙원을 열어주신 분이 도둑에게 빼앗기신 것일까? / 부활을 예고하신 분이 고난을 겪기 전에 부활하신 것은 아니겠는가?” / 진실로 그리스도 하느님께서 부활하셨으니, / 하데스에 머물던 이들에게 생명과 부활을 베푸셨도다.

**구절:** 일어나소서, 주 나의 하나님이지여, 주의 손이 높이 들리시며, / 주의 가난한 자들을 끝까지 잊지 마소서!

시편 9:33

자발적인 결심에 따라 / 구세주이신 주님은 십자가를 건디셨고, / 새로운 무덤에 죽을 운명의 사람들이 / *세상을* 창조하신 분을 안치하였습니다. / 그리하여 원수는 결박당하였고, / 죽음은 끔찍한 패배를 당하였으며, / 음부에 머물던 모든 이들은 / 주님의 생명을 주는 부활을 보며 외쳤나니: / “부활하셨도다, 그리스도여 – 생명의 주님이시며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여!”

**영광이여, 지금도, 성모 마리아여:** 요셉은 초자연적인 광경을 보고 놀라워하였으며, / 성모 마리아여, 씨 없이 잉태되신 당신의 신비를 마음으로 깨달았나니, / 양털 위에 내린 비, 불 속에서 타지 않은 가시덤불, / 꽃을 피운 아론의 지팡이. / 그리고 당신의 약혼자이자 수호자인 그는, / 제사장들 앞에서 증언하며 외쳤다: / “처녀가 아이를 낳고, 출산 후에도 여전히 처녀로 남아 있다!”

#### 제2 시조 세달렌에 따라

구세주여, 주님은 무덤에서 불멸의 존재로서 부활하셨나이다; / 그리스도 우리 하느님, 주님의 부활로 세상을 다시 살리셨나이다; / 주님의 능력으로 죽음의 권세를 꺾으시고, / 자비로 우신 주님께서 모든 이에게 부활을 드러내셨나이다. /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나이다, 유일하신 인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여.

**구절:** 주님,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리니, / 주의 모든 기적을 선포하리이다.

시편 9:2

#### 4번 성부

하늘 높은 곳에서 내려오사 / 생명의 돌이 있는 바위 앞으로 나아가시니, / 흰 옷을 입은 가브리엘이 울고 있는 이들에게 외치기를: / “항상 자비로 가득 찬 너희여, 슬픈 울부짓음을 그치라; / 용기를 내라! 눈물로 찾고 계신 분은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. / 그러니 사도들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선포하십시오. / (기쁨을 얻었으니, 부활하신 분께 경배하십시오; / 용기를 내십시오, 이브도 용기를 내십시오.)

**영광송, 그리고 지금, 성모께:** 모든 천사 무리가 경탄하였나니, 순결하신 분이시여, / 당신의 잉태라는 신비에 전율하며: / 온 우주를 한 번의 손짓으로 다스리시는 분이 / 사람으로서 당신의 품에 안기시고, / 영원하신 분이 태어났으며 젖을 먹으시니, / 형언할 수 없는 자비로 모든 숨 쉬는 이를 양육하시는 분이시니? / 그리고 그들은 당신을 참된 하느님의 어머니로서 /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.

**그 다음 ‘흠 없는 이들에 대한’ 트로파리와 작은 에크테니아.**

#### 이파코이

당신의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/ 사도들에게 달려가 전한 향유 여인들은, / 그리스도여, 당신이 하나님으로서 부활하셨으며, / 세상에 큰 자비를 베푸셨음을 알렸습니다.

#### 계단송. 안티폰 1

내 젊은 시절부터 / 많은 정욕들이 나와 싸워 왔나이다; / 그러나 주께서 친히 나를 보호하시고 / 구원하소서, 나의 구세주여.

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아,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라: / 너희는 불에 타는 풀처럼 / 말라버릴 것이니.

**영광:** 성령으로 모든 영혼이 생명을 얻고 / 정화를 통해 고양되며, / 거룩한 신비 안에서 삼위일체의 일체성으로 빛을 발합니다.

**그리고 지금: 우리는 이를 다시 되새깁니다.**

#### 안티폰 2

주님, 제가 영혼 깊은 곳에서 /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나이다, / 주님의 신성한 귀가 / 제 기도를 들어주시기를.

주님을 희망으로 삼는 자는 / 모든 슬픔보다 높도다.

**영광송:** 성령께서 은총의 물줄기를 쏟아내시니, / 모든 피조물을 적셔 / 생명을 불어넣으시나이다.

**그리고 이제: 다시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.**

### 대송 3

나의 마음이 주님, 말씀이신 당신께로 높이 들리기를, / 세상의 쾌락 중 그 어떤 것도 나를 유혹하여 / ~~나~~를 비천하게 만들지 않게 하소서.

모든 이가 자기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처럼, / 주님께도 가장 따뜻한 사랑을 / 우리가 가져 ~~아~~합니다.

**영광송:** 성령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, / 관상, 그리고 지혜의 풍요이시니, / 그분을 통해 말씀께서 아버지의 모든 명령을 /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.

**그리고 지금:** 우리는 이를 다시 되새깁니다.

### 프로키멘

일어나소서, 주님, 우리를 도우시고 /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!

**절:** 하나님이지여, 우리는 귀로 들었고,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하였나이다. **시편 43:27, 2A**

“숨 쉬는 모든 것이 주님을 찬양하리라.” 하고 주일 아침 복음서를 읽습니다.

### 복음서 후 주일 찬송

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으니, / 거룩하신 주 예수님께 경배합시다, / 유일하시고 죄 없으신 분께. / 주님의 십자가에 경배합니다, 그리스도여, / 주님의 거룩한 부활을 노래하며 찬양합니다, /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니, / 주님 외에는 다른 분을 알지 못하며, / 주님의 이름을 부르나이다. / 오라, 모든 신자들아, /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배합시다, / 보라, 십자가를 통해 / 온 세상에 기쁨이 임하였나니. / 항상 주님을 찬양하며, / 그분의 부활을 노래합시다, /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겪으시고, / 죽음으로 죽음을 무찌르셨나니.

**시편 50편.**

**영광송:** 사도들의 기도로, 자비로우신 주님, 우리의 수많은 죄를 씻어 주소서.

**그리고 이제:** 성모 마리아의 기도로, 자비로우신 주님, 우리의 수많은 죄를 씻어 주소서.

**그 후, 6음조:**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, 하느님, 주님의 크신 자비와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나의 죄악을 씻어 주소서.

**그리고 스티히라:** 예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으니, / 예언하신 대로, /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/ 큰 자비를 베푸셨도다.

**그리고 기도:** 하나님이지여,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소서:

### 카논

첫 번째 – 주일용 4음조, 두 번째 – 십자가 부활용 3음조, 세 번째 – 성모송 3음조 및 미네이 4음조. 성인을 기념하는 날에는 6음조로, 십자가 부활용 2음조 및 성모송 2음조를 사용합니다.

## 제1곡

### 제1 캐논

**이르모스:** 붉은 바다의 심연을 / 발을 적시지 않고 / 건너간 옛 이스라엘은, / 모세가 십자가 모양으로 *벌린* 두 손으로 / 광야에서 아말렉의 군대를 패주시켰다.

**후렴:** 주님, 주님의 거룩한 부활에 영광을 돌리나이다.

주님, 주께서는 / 우리의 타락을 바로잡으시며 / 지극히 깨끗한 십자가 나무 위로 승천하셨고, / *지식의* 나무로 인한 *우리의* 온전한 파멸을 / 선하시고 전능하신 분으로서 치유하셨습니다.

무덤에서는 육신으로, 지옥에서는 영혼으로 하나님처럼 계셨으며, / 낙원에서는 강도 곁에 계셨고, / 보좌 위에서는 아버지께서와 성령과 함께 계셨나이다, 그리스도여, / 모든 것을 총만하게 하시는 무한하신 분이시여.

**성모송:** 아버지의 뜻에 따라 씨 없이 신성한 성령으로 /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셨으며, / 어머니 없이 아버지께로부터 육신으로 *태어나신 분*을 낳으셨고, / 우리를 위하여 – 아버지 없이 당신에게서 *태어나신 분*을 낳으셨습니다.

### 제2 캐논

주님, 주님은 상한 인류를 치유하시고, / 주님의 신성한 피로 그들을 새롭게 하셨으며, / 한 때 주님의 피조물을 상하게 했던 자를 / 통치자의 권능으로 꺾으셨습니다.

죽은 자들의 부활을 통해 / 주님은 *당신의* 죽음을 통해 그렇게 되셨나이다; / 이는 죽음을 지배하는 힘이 무효화되었으니, / 영원한 생명과 마주했음이라 – / 만물을 다스리시는 / 육신을 입으신 하느님이시니이다.

**성모송:** 하늘의 모든 권능 중 가장 아름답고 지고한, / 당신의 신성한 생명의 성전이 되셨나니 – / 당신을 태중에 품으신 동정녀, / 당신의 거룩한 산이시여, 우리 하느님이시여.

### 제3 캐논

민족들이 요동치고, 족속들이 혼란에 빠졌으며 / 강대한 왕국들이 무너졌으니, / 순결하신 분이시여, 당신에게서 태어나신 분을 두려워하여; / 이는 나의 왕이 오셔서, 고문자를 몰아내시고 / 세상을 파멸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.

하늘에 계신 당신의 거처를, / 그리스도께서 인간들에게 내려오사 거룩하게 하시고 / 흔들리지 않는 것으로 드러내셨나니; / 이는 창조주를 낳으신 분께서 / 출산 후에도 동정심의 보물로 남으셨기 때문이니라.

**그 후 미네아 전례서의 트로파리와 규정에 따른 카타바시아를 부른다.**

### 제3곡

#### 제1 캐논

**이르모스:** 주님, 당신의 교회는 당신을 기뻐하며 외치나이다: / “주님, 당신은 나의 힘, / 피난처, 그리고 견고한 터전이시니이다!”

생명의 나무, 영적이고 참된 포도나무, / 십자가에 매달려 모든 이에게 불멸을 베풀고 계십니다.

얼마나 위대하시고, 얼마나 두려우시며, / 지옥의 오만을 제압하시고, / 썩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으로서, 그분은 이제 육신을 입고 부활하셨습니다.

**성모님:** 땅 위에 사는 이들에게 / 초자연적인 은총의 근원이 되신 하느님의 어머니이시여, / 그러므로 우리는 당신께 “기뻐하소서”라는 *인사*를 드립니다.

#### 제2 캐논

독이 가득한 뱀의 이빨이 / 나를 찔렀으나, 구세주여, / 전능하신 주님께서는 그 이빨을 주님의 손의 못으로 부수셨습니다. / 성자들 중에서도 주님만큼 거룩한 이는 없나니, /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시여.

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시여, 생명의 주님이시여, / 자발적으로 죽은 자들의 무덤에 나타나시여, / 태초부터 *그곳에 머물러 있던* 영혼들을 위해 지옥의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. / 성자들 중에서도 / 사람을 사랑하시는 당신만큼 거룩한 이는 없나이다.

**성모송:** 주님은 갈아엎지 않은 밭으로 나타나시여, / 생명의 이삭을 맺으시고, / 그분과 하나 되는 모든 이에게 불멸을 베푸시는, - / 거룩하신 분, 성자들 가운데 거룩히 안식하시는 분.

#### 제3 캐논

필멸자의 본성은 정화되니, / 주님을 통해 건딜 수 없는 신성한 불꽃과 / 결합되었도다: / *그 불꽃으로 인해 그것은* 마치 감추어진 빵처럼 / 주님 안에서 구워졌도다, 지극히 순결하신 동정녀여, / *그러나* 주님 또한 흠 없이 보존되셨도다.

누구이시며, 참으로 하느님께 가까이 계신 이, / 마치 모든 천사 군단을 능가하신 분이시니? / *이*는 동정녀의 아름다움으로 빛나는 유일한 분이시니, / 전능자의 어머니이시라.

### 제4편

#### 캐논 1

**이르모스:** 십자가 위에 높이 들려 계신 / 진리의 태양이신 주님을 보고, / 교회는 제 자리에서서 합당하게 외치나이다: / “주님의 능력에 영광을 돌리나이다!”

#### 4번 성부

주께서는 십자가에 오르사, / 주께서 자발적으로 받아들이신 / 주님의 지극히 순결한 육신의 고난으로 / 나의 정욕을 치유하시려 하셨나이다. /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 외치나이다: / “주님의 능력에 영광을 돌리나이다!”

죽음은 죄와 무관한 / 생명을 주는 주님의 육신을 스치자, 주님, / 마땅히 죽임을 당하였나이다; / 우리는 주님께 외치나이다: / “주님의 능력에 영광을 돌리나이다!”

**성모 찬가:** 결혼을 경험하지 않고 잉태하셨나이다, 동정녀여, / 그리고 출산 후에도 여전히 동정녀로 나타나셨나이다; / 그러므로 우리는 그치지 않는 목소리로 주님, / 굳건한 믿음으로 외치나이다: “기뻐하소서!”

#### 제2 캐논

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은 / 당신을, 그리스도여,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나이다; / 그러나 율법을 어긴 자처럼 십자가에 / 율법에 어긋나게 당신을 못박았나이다, / 율법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여.

구원자이신 주님의 신성하신 영혼은, / 지옥의 보물고를 비우시고, / 태초부터 그곳에 머물러 있던 영혼들을 부활시키셨으며, / 생명을 주는 주님의 몸은 / 모든 이에게 썩지 않음을 베풀어 주셨습니다.

**성모송:** 우리 모두는 당신, 영원히 동정녀이시며 / 참된 성모님을 찬양하나이다. / 모세에게 불에 휩싸였으나 / 타지 않았던 가시덤불을 통해 / 미리 보여 주신 그분, 지극히 순결하신 분이시여.

#### 제3 캐논

보이지 않으시는 분이 / 보이시는 모습이 되어 / 사람들과 교제하셨으니: / 헤아릴 수 없는 신성의 형상을 지니시면서도 / 당신, 동정녀여,로부터 / 그분께는 본래 없던 형상을 취하심으로써, / 당신을 아는 자들을 구원하시나이다, 순결하신 성모여.

동정녀께서는 비물질적인 분을 물질적으로 받아들이셨으니, / 그분은 물질과 결합하여 그분에게서 젖먹이 아기로 나타나셨습니다. / 그러므로 그분은 두 본성 안에서 하나로 알려지시니: / 육신을 입으신 하느님이시며 / 초자연적인 인간이십니다.

출산 후에도 당신을 동정녀로 보존하신 분, / 당신 안에 거하시며 / 씨 없이 태어나신 하나님 말씀이시며, / 당신의 탄생 시에도 동정녀의 순결을 지키신 분, / 온 피조물의 주님이시며 창조주이십니다.

#### 제5편

##### 캐논 1

#### 4번 성부

**이르모스:** 주님, 주님은 빛으로 세상에 오셨나이다, / 거룩한 빛으로, 무지의 어둠에서 / 주님을 믿음으로 찬양하는 자들을 돌이키시나이다.

주님, 주님은 자비로이 땅에 내려오셨나이다; / 주님은 나무에 매달리심으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높이셨나이다.

그대, 그리스도여, 내게서 / 죄의 비난을 벗겨 주셨나이다; / 자비로우신 주여, 그대의 신성한 부활로 / 죽음의 고통을 풀어 주셨나이다.

**성모 찬가:** 주님의 신부이신 성모님, 우리는 주님을 원수들에 대항하는 / 꺾이지 않는 무기로 삼으며, / 주님 안에서 우리 구원의 버팀목과 / 희망을 얻었습니다.

#### 제2 캐논

미친 지옥이 온전히 그 입으로 주님을 삼켰나니: / 이는 나무에 못 박히신 주님을 보고, / 창에 찔리시고 숨이 끊기신 주님을, / 살아 계신 하나님을 / 단순한 인간으로 여겼기 때문이라; / 그러나 체험하고 나서야 주님의 신성의 능력을 깨달았도다.

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시여, 당신의 육신의 성전이 무너졌을 때, / 무덤과 지옥이 서로 나누어 가졌으나 / 두 곳 모두 어쩔 수 없이 마땅한 보응을 받게 되었나니: / 하나는 불멸의 주님, 당신의 성도들의 영혼을 내보내고, / 다른 하나는 그들의 육신을 내보내나이다.

**성모송:** 보라, 이제 예언자의 예언이 이루어졌나니: / 이는 혼인하지 않은 동정녀이신 주께서, /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을 태중에 품으시고 / 영원한 아들을 낳으셨으니, / 주를 찬양하는 모든 이에게 평화를 베푸시는 분이시라.

#### 제3 캐논

당신을 영광의 집, 거룩한 하느님의 산, / 신부, 궁전, 성화(聖化)의 성전으로 / 당신 안에 거하시게 하신 하느님의 아드님, 순결하신 이여, / 우리를 위한 영원한 기쁨의 낙원으로 만드셨습니다.

동정녀의 피로부터 난 육신을 / 그리스도여, 씨 없이 받아들이셨나이다, / 지극히 순결하고 위격적이며, / 말씀이시며 이성을 지니고, 생명이 깃든, / 활동적이며 의지를 지닌, / 자유롭고 자주적인 존재이시여.

폭군의 오만함이 동정녀의 태를 수치스럽게 하였나니; / 이는 아기가 영혼을 파멸시키는 독사들의 굴을 손으로 헤쳐 나가 / 오만한 배교자를 쓰러뜨리고, / 신실한 자들의 발 아래 그를 굴복시켰음이니라.

#### 제6편

##### 캐논 1

**이르모스:** “찬양의 목소리로 주님께 제물을 드리리이다”, / 교회가 주님께 부르짖나니, / 악마의 피에서 정화되었으니 / 주님의 갈비뼈에서 흘러나온 / 자비의 피로 말미암아.

주님은 십자가에 오르시어, / 권능으로 무장하시고, / 고문자와 싸우시어, / 하나님으로서 그를 높은 곳에서 쫓아내시고, / 아담을 *주님*의 무적의 손길로 부활시키셨습니다.

그대, 그리스도여, 찬란히 빛나시어, / 무덤에서 아름답게 부활하시고 / 그 신성한 권능으로 모든 원수들을 흠어뜨리시며, / 하나님으로서 모든 이를 기쁨으로 가득 채우셨나이다.

**성모송:** 오, 기적이며, 모든 기적 중 가장 놀라운 기적이며! / 처녀여, 남편을 알지 못한 채 잉태하시어, / 만물을 포용하시는 분을 / 태중에 모시되, 그분을 억누르지 않으셨나이다.

## 제2 캐논

지옥이 *입*을 벌려 나를 삼키려 하였으나, / 미친 자처럼 그 영혼을 뱉혔도다; /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사, / 인류를 사랑하시는 분으로서, 나의 생명을 *파멸*에서 구원하셨도다.

죽음은 죽음에 사로잡혔나니; / 죽은 이가 부활하셨으니, / 내게 썩지 않음을 베풀어 주셨도다; / 그리고 여인들에게 나타나시어, / 그분은 그들에게 기쁨을 선포하시나니, 불멸자시여.

**성모송:** 건딜 수 없는 신성의 거처로 / 당신의 깨끗한 자궁이 드러났나이다, 성모여, / 하늘의 군대들도 / 두려움 없이 바라볼 수 없는 그 자궁을.

## 제3 캐논

한때 뱀이 나의 첫 어머니 이브를 통해 / 나를 유혹하여 죽였으나; / 이제 순결하신 당신을 통해, 창조주께서 / 썩어짐에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.

자비의 심연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/ 당신을, 동정녀여, / 기적의 선택된 심연으로 드러내셨나니; / 이는 당신 안에서 신성의 번개처럼 / 진주 같은 그리스도께서 빛나셨기 때문이니라.

## 콘닥

나의 구세주이시며 무덤에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여, / 마치 하느님께서 땅에서 태어난 자들을 속박에서 부활시키시고, / 지옥의 문을 부수시며, / 주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.

**이코스:** 생명의 주이신 그리스도, / 무덤에서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, / 이날 그분의 능력으로 죽음의 문을 부수시고, / 지옥을 무력화시키시며 죽음의 독침을 꺾으시고, / 아담과 하와를 해방시키신 분을, / 땅에서 태어난 우리 모두가 찬양하며, / 감사의 마음으로 열렬히 찬미를 드리며, / 그분은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느님이시며 주님이시니, / 셋째 날에 부활하셨나이다.

제7편

캐논 1

**이르모스:** 페르시아의 용광로 속에 있던 아브라함의 자손들은, / 경건함에 대한 사랑으로 불길보다 더 뜨겁게 타오르며 외쳤다: / “주님, 주님의 영광의 성전에서 주님은 찬송받으시나이다!”

인류는 다시 썩지 않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, / 그리스도의 신성한 피로 씻김을 받고, / 감사하며 노래하노라: / “주님, 주님의 영광의 성전에서 주님은 찬송받으시나이다!”

생명의 근원이시며, 참으로 낙원보다 더 아름다운, / 그리고 그 어떤 왕궁보다도 더 빛나는 / 곳이 바로 주님의 관이시니, 그리스도여, / 우리 부활의 근원이시여.

**성모송:** 지극히 높으신 분의 신성한 성막이시여, 기뻐하소서! / 이는 당신을 통해, 성모여, / 부르짖는 이들에게 기쁨이 주어졌나니: / “여인들 중에서 복되시도다, / 흠 없는 여왕이시여!”

제2 캐논

주님은 나무에 매달리시어 오만한 시선을 낮추시고 / 치켜올린 눈썹을 땅으로 내리치시어, / 사람을 구원하셨나이다, 지극히 찬양받으실 분이시여. / 조상들의 주님이시며 하나님이지시여, 찬미받으소서!

주님,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/ 예전에 수많은 자들로 가득했던 지옥의 부를 황폐화시키신 분이시여, / 당신의 능력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존엄을 높여 주소서. / 조상들의 주님이시며 하나님이신 주님, 찬미받으소서!

**삼위일체 찬가:** 신성한 말씀에 따라, / 우리는 유일한 신성을 찬양하오니, / ~~마치~~ 세 등불 속에 혼합되지 ~~않고~~ 분리되지 않은, / 모든 피조물을 비추는 꺼지지 않는 광채처럼, / “하나님, 찬양받으소서!”라고 노래하오니.

제3 캐논

마음속의 불꽃이 나를 이끌어 / 동정녀의 사랑을 ~~가리~~는 찬송을 부르게 하니, / 어머니이시며 동정녀이신 분께 외치게 하노라: / “힘의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니, 찬미받으소서!”

당신은 ~~모든~~ 피조물 중 가장 높으신 분으로 나타나셨으니, / 창조주이자 주님을 낳으신 분이시니. / 그러므로 나는 당신께 외칩나이다, 성모여: / “힘의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나이다, 축복받으신 분이시여!”

**삼위일체:** 하나이시며 나뉘지 않는 주님을 공경하며, / 삼위일체를 찬양 ~~하~~는 노래로 노래하며, 당신께 외칩니다: / “축복받으신 삼위일체이시여, /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여!”

제8곡

캐논 1

**이르모스:** 두 팔을 벌린 다니엘은 / 해자 속 사자들의 입을 막았나니; / 또한 맹렬한 불길도 꺼뜨렸으니, / 덕으로 허리를 동여매고, / 경건함을 지키는 청년들이 외치며: / “주님의 모든 피조물들아, 주님을 찬양하라!”

십자가 위에서 두 팔을 벌리시어, / 모든 민족을 모으신 주님, / 땅과 하늘에서 한 목소리로 찬양하는 / 주님을 찬미하는 유일한 교회를 지목하시며 말씀하셨나니: / “주님의 모든 피조물들아, 주님을 찬양하라!”

흰 옷을 입고 / 부활의 접근할 수 없는 빛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/ 천사가 여자들에게 나타나 외치며: / “어찌하여 죽을 사람을 무덤에서 찾느냐?” / 진실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니, 그분께 우리는 외칩니다: / “모든 피조물아, 주님을 찬양하라!”

**성모송:** 모든 세대 중에서 오직 당신만이, 지극히 순결하신 동정녀여, / 하느님의 어머니로 나타나셨나이다. / 당신은 신성의 거처가 되셨나이다, 흠 없는 분이시여, / 접근할 수 없는 빛의 불길에 타지 않으셨나이다. /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당신을 찬미하나이다, / 마리아, 하느님의 신부여.

## 제2 캐논

당신의 부당한 희생의 광경을 보며, / 온 피조물이 슬픔에 잠겨 통곡하였나니: / 땅이 흔들렸고, / 해는 어둠으로 마치 검은 옷을 입은 듯 덮였으나, / 우리는 끊임없이 당신을 찬양하며 / 그리스도여, 영원토록 높이 찬미하오니.

주께서는 심지어 지옥까지 내려오셔서 / 모든 이에게 부활의 길을 열어 주시고, / 나를 주님의 어깨에 메고 아버지께 데려가시며 다시 승천하셨습니다. / 그러므로 나는 주께 외칩니다: / “피조물들아, 주님을 찬양하고 / 영원토록 높이 찬양하라!”

**삼위일체 찬가:** 모든 것의 근원이신 / 유일한 아버지, 시작이 없으신 분을 찬양하며, / 시작이 없으신 말씀과 위로자이신 성령, - / 유일한 하나님이자 주님, 만물의 창조주이신 / 분리될 수 없는 삼위일체께 경배하며 / 영원토록 그분을 찬양하노라.

## 제3 캐논

아담의 갈비뼈로 당신을 지으신 분, / 당신의 동정녀 몸에서 성육신하신 분, - 만물의 주님. /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며 외칩니다: / “모든 피조물아, 주님을 축복하고 찬양하라!”

아브라함은 장막 안에서 / 성모님, 당신 안에서 *이루어진* 신비를 보았나니; / 이는 그가 *그 안에서* 당신의 육신을 갖지 않은 아들을 영접하며 외쳤기 때문이니: / “모든 피조물아, 주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라!”

구세주께서는 삼위일체와 동등하신 / 당신의 동정심의 원형을 보여주셨나이다, 동정녀여, / 그들은 *자신의* 동정된 몸으로 / 불길을 밟아 끄며 외쳤나니: / “주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라!”

**그 다음,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님의 찬가를 부릅니다: “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나이다.”**

제9편

캐논 1

**이르모스:** 깎이지 않는 산에서 나온 / 모퉁이 돌이시여, 동정녀여, / 사람의 손길 없이 깎여 나왔나니, / – 갈라진 본성을 하나로 합치신 그리스도시여. / 그러므로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의 어머니를 찬양하나이다.

주께서는 온전히 나를 받아들이셨으니, / 분리되지 않은 결합을 통해 / 나의 하느님이시여, 주께서 십자가 위에서 육신으로 겪으신 고난으로 / 저에게 온전한 구원을 베풀어 주셨나이다, / 그분의 크신 자비로 말미암아.

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 후 / 열린 무덤과 / 하느님을 품었던 빈 수의를 보고, / 천사와 함께 외쳤나니: / “진실로 주님께서 부활하셨도다!”

**삼위일체 찬가:** 신적 본체의 일치, / 그러나 위격의 삼위일체, / 우리 모든 신자들은, / 분리된 위격들 안에서 동등하고 평등한 영광으로 경배하며, / 그분을 경건하게 찬양합니다.

제2 캐논

교활함으로 기어들어온 뱀이 / 나를 에덴에서 사로잡아 갔으나, / 그러나 뿔의 장소에 있는 가장 단단한 돌을, / 전능하신 주님께서 갓난아기처럼 부수시고, / 다시 기쁨에 이르는 길을 / 십자가의 나무를 통해 내게 열어 주셨나이다.

주께서는 이제 / 원수의 견고한 요새들을 황폐하게 하셨으며, / 그리스도여, 주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그의 재물을 빼앗으시고, / 지옥의 깊은 곳에서 나를 부활시키셨으며, / 한때 끝없이 자랑하던 자를 / 조롱과 모욕의 대상이 되게 하셨습니다.

억압받는 주님의 가난한 백성을 찾아오소서, / 자비로우시고 강력한 주님의 손으로 / 십자가를 지신 왕을 신성모독하는 원수들 앞에서 굳건히 세우소서, / 주님의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려 함이니, 그리스도여, / 주님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니이다.

제3 캐논

우리는 당신을 백합과 같이 봅니다, 지극히 순결하신 분이시여, / 신성한 성령의 자줏빛으로 장식되신 채, / 가시덤불 가운데서 빛나시며, / 진심으로 당신을 찬양하는 이들에게 향기를 가득 채워 주시는 분이시니.

변덕스러운 인간의 본성을 / 당신의 태중에서 받아들이신, 흠 없으신 분이시여, / 자비로 인해 당신 자신 안에서 썩지 않으시는 분이로서 / 변하지 않는 그 본성을 드러내셨나이다; / 그러므로 우리는 당신을 성모 마리아로 찬양하나이다.

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여! / 주님의 백성에게 승리의 기쁨을 베풀어 주시어, / 원수를 교회와 화해시키시어, / 우리가 주님을 성모 마리아로 찬양하게 하소서.

**카타바시아 후 소에크테니아, 그 다음: “거룩하시도다, 우리 주 하느님!” 그리고 부활절 엑사포스티라리온.**

**“찬양하라”에서 부활절 스티히라(8음조)를 부르고,**

**그들 가운데서 정해진 심판을 집행하시니, / 이 영광은 그분의 모든 성자들에게 있나이다**

·  
십자가와 죽음을 견디시고 /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전능하신 주님! / 주님의 부활을 찬양합니다.

**그분의 성자들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, / 그분의 굳건한 권능 안에서 그분을 찬양하라**

·  
그대의 십자가로, 그리스도여, / 그대는 우리를 옛 저주에서 해방시키셨나이다; / 그리고 그대의 죽음으로 / 우리 본성을 괴롭히던 마귀를 무력하게 드러내셨으며 / 그대의 부활로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가득 채우셨나이다. / 그러므로 우리는 그대께 부르짖나이다: / “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, 그대께 영광이 있나이다!”

**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라, / 그분의 위엄의 풍성함을 따라 찬양하라.**

그분의 십자가로, 구세주 그리스도여, / 우리를 그분의 진리로 인도하시고 / 원수의 올가미에서 우리를 건지소서. /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시여! /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, / 사람을 사랑하시는 주님, / 그분의 성도들의 기도를 따라 *우리에게* 그분의 손을 내미소서.

**나팔 소리로 그분을 찬양하라, / 수금과 비파로 그분을 찬양하라.**

아버지의 품을 떠나지 않으시고, /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시여, / 사람을 사랑하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, / 참된 사람이 되셨으며; / 육신으로 십자가와 죽음을 겪으셨으나, / 신성으로는 고통과 무관하셨고; /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, / 유일하신 전능자이시니, / 인류에게 불멸을 베풀어 주셨나이다.

**다른 스티히라, 동방**

**팀파니와 합창으로 그분을 찬양하라, / 현악기와 오르간으로 그분을 찬양하라.**

구세주여, 주님은 육신으로 죽음을 받아들이시어 / 우리에게 불멸을 주셨나이다; /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시어 / 우리를 지옥에서 해방시키시고, 주님과 함께 부활시키셨나이다, / 사람으로서 고난을 당하셨으나, 하나님으로서 부활하셨나이다. / 그러므로 우리는 외치나이다: / “영생을 주시는 주님, / 유일하신 인류를 사랑하시는 분, 영광이 주님께 있나이다!”

**아름다운 소리의 킨발로 그분을 찬양하라, 울림 있는 킨발로 그분을 찬양하라. / 숨 쉬는 모든 것이 주님을 찬양하리라!**

구세주여, / *골고다에서*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졌을 때 돌들이 산산조각 났나이다; / 주님께서 죽을 사람처럼 관에 안치되셨을 때 지옥의 문지기들이 떨었나이다; / 그리고 주님께서는 참

#### 4번 성부

으로 죽음의 권세를 무력화시키시고, / 부활하심으로 모든 죽은 자들에게 불멸을 베풀어 주셨  
나이다, 구세주여. / 생명의 주님이시여, 주님께 영광을!

**일어나소서, 주 나의 하나님이지여, 주의 손이 높이 들리시며, / 끝까지 주의 가난한 자들  
을 잊지 마소서!**

부인들은 / 주님의 부활을 보고자 하였나이다, 그리스도 하느님. / 누구보다 먼저 온 마리아  
막달레나는 / 무덤에서 돌이 굴러져 있는 것을 보았고, / 그 위에 앉아 외치는 천사를 보았  
나니: / “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산 이를 찾느냐? / 그분은 모든 이를 구원하시려고 하느님으로  
서 부활하셨느니라!”

**주님, 저는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겠나이다, / 주님의 모든 기적을 선포하겠나이다**

여러분이 지키려 했던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? / – 유대인들아, 말하라. / 돌을 봉인하  
여 무덤에 모신 그분은 어디에 계십니까? / 생명을 저버린 자들아, 죽은 자를 내어 놓으라; /  
묻힌 자를 내어 놓거나, 부활하신 분을 믿으라. / 만일 너희가 주님의 부활에 대해 침묵한다면,  
/ 돌들이 소리칠 것이며, *무엇보다도* 무덤에서 굴러 떨어진 돌이 소리칠 것이다. / 주님의 가정  
세우심의 신비는 참으로 위대하도다! / 우리의 구세주여, 주님께 영광을 돌리나이다!

**영광송: 복음 시편.**

**이제, 제2음조:** 지극히 복되시도다, 동정녀 성모여, / 주께서 당신에게서 성육신하심으로  
지옥이 사로잡혔고, / 아담이 그곳에서 돌아왔으며, / 저주가 힘을 잃었고, / 하와가 해방되었  
으며, 죽음이 죽임을 당하였고 / 우리도 생명으로 충만해졌나이다. / 그러므로 찬양하며 외치  
나이다: / “기쁘게 허락하신 그리스도 하느님, 찬미받으소서!”

**사제:** 우리에게 빛을 보여 주신 주님께 영광을!

**위대한 찬양.**

#### 부활절 트로파리

무덤에서 부활하사, 주님, 지옥의 쇠사슬을 끊으시고, / 죽음에 대한 심판을 무효화하시며  
, / 모든 이를 원수의 그물에서 구원하셨나이다; / 또한 주님의 사도들에게 나타나시어, / 그들  
을 전도하러 보내시고, / 그들을 통해 온 세상에 평화를 베풀었나이다, / 유일하시고 자비로우  
신 분이시여.

**그리고 축도.**

성찬례에서

복되도다, 8절

나무 한 그루 때문에 아담은 / 낙원에서 쫓겨났으나, / 십자가 나무를 통해 / 강도는 낙원에 들어갔나이다; / 첫 번째 사람은 열매를 맛보고 창조주의 계명을 저버렸으나, / 두 번째 사람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, / 하나님께 감추신 분을 고백하며 외치시기를: / “주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하소서!”

**마음이 청결한 이들은 복이 있나니,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.**

십자가에 높이 들려, / 죽음의 권세를 멸하시고, 주님, /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대적하는 죄의 기록을 지워 주신 분이시여! / 유일한 인자이신 주님, 우리에게도 그 강도의 회개를 베풀어 주소서, /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며,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시여, “주님의 나라에서 우리도 기억해 주소서!”라고 외치는 자들에게.

**평화를 이루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,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다.**

우리를 *대적*하는 죄의 기록을 / 십자가 위에서 창으로 찢어 버리시고, / 죽은 자들 가운데 계셨으나, / 그곳의 고문자를 결박하시어, / 당신의 부활로 지옥의 죄사슬에서 모든 이를 구원하셨으니, / 그 빛으로 우리가 깨달음을 얻은, 사람을 사랑하시는 주님, 우리가 당신께 부르짖나이다: / “주님의 나라에서 우리도 기억해 주소서!”

**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,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.**

십자가에 못 *박히셨으나* 부활하신 분이시여, / 전능하신 분으로서 사흘 만에 무덤에서 일어나시여, / 태초의 아담마저 부활시키신, 유일하신 불멸의 주님! / 주님, 저를 회개로 돌이키시고, / 제 온 마음과 따뜻한 믿음으로 / 끊임없이 주님께 외치게 하소서: / “구세주여, 주의 나라에서 저를 기억하소서!”

**사람들이 나를 위하여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온갖 부당한 말로 비방할 때, 너희는 복이 있도다.**

우리를 위해 무정하신 분께서 / 고통받으시는 인간이 되셨으며, /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, 우리를 그분과 함께 부활시키셨습니다. / 그러므로 우리는 / 십자가와 *함께* 고난과 부활을 찬양하며, / 그것들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되었고 / 그것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며, 이렇게 외칩니다: / “주님의 나라에서 우리도 기억해 주소서!”

**기뻐하고 즐거워하라.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.**

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, / 지옥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, / 향유를 지닌 여인들에게 나타나 “기뻐하라”고 말씀하신 분께, / 우리 신실한 자들은 우리 영혼이 멸망에서 구원받기를 기도하며, / 현명한 강도의 목소리로 그분께 끊임없이 외칩니다: / “당신의 왕국에서 우리도 기억해 주소서!”

#### 4번 성부

**삼위일체께 드리는 영광:** 모든 신자들아,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, / *우리*가 합당하게 찬양할 수 있도록 / 성부, 성자, 성령, /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며, / 분리되지 않고, 단순하며, 나뉘지 않고, 접근할 수 없는 / 신성의 단일성을, /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불의 형벌에서 구원받게 하소서.

**그리고 지금, 성모송:** 그리스도여, 당신의 어머니, / 육신으로 씨 없이 당신을 낳으신 분, 참된 동정녀, / 출산 후에도 흠 없이 머무르신 분, - / 그분께 간구하오니 / 자비로우신 주님 앞에서 중보해 주시기를! / 끊임없이 주님께 부르짖는 자들에게 죄 사함을 베풀어 주소서: / “주님의 나라에서 우리도 기억해 주소서!”

#### 프로키멘

주님, 주님의 행하심이 얼마나 위대하십니까, / 주님은 모든 것을 지혜로 창조하셨습니다

**절:** 내 영혼아, 주님을 찬양하라!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, 주님은 지극히 높으시도다.

시편 103:24, 1

#### 할렐루야

**절:** 굳건히 서시고, 번영하시며,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다스리소서.

**구절:** 주께서는 의를 사랑하시고 불의를 미워하셨습니다.

시편 44:5A, 8A

## 제5음조

### 대저녁 기도 때

“주여, 내가 부르짖나이다”에 맞춰 10절의 스티히라를 부른다: 부활절 옥토이히 3개, 동방 4개, 미네이 3개. 성인을 기념할 때는 옥토이히 스티히라 4개를, 성인을 기릴 때는 6개를 부른다. 영광송: 미네이, 그리고 “이제”는 성모송 첫 번째, 해당 음조로.

### 부활절 스티히라

내 영혼을 어둠의 감옥에서 이끌어 내소서, / 내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소서.

그대의 거룩한 십자가로, 그리스도여, / 그대는 마귀를 수치를 당하게 하셨으며, / 그대의 부활로 죄의 독침을 무디게 하시고 / 우리를 죽음의 문에서 구원하셨습니다. / 우리는 그대를 찬양하나이다, 독생자여.

의인들이 나를 기다리리니, / 주께서 내게 보응하실 때까지.

인류에게 부활을 베푸시는 분께서 / 마치 제물로 바쳐질 양처럼 이끌어 가셨습니다. / 지옥의 통치자들은 그분을 두려워하였고, / 슬픔의 문들이 열렸습니다; / 영광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. / 쇠사슬에 묶인 자들에게는 “나오라”고, /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는 “열려라”고 외치시며.

주여,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, / 주여, 내 목소리를 들으소서.

위대한 기적이로다!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신 분께서, / 인류를 사랑하심으로써 육신을 입고 고난을 겪으시고, / 불멸의 분으로서 부활하셨도다. / 오라, 만민의 족속들아, 그분께 경배하자; / 이는 우리가 그분의 자비로 인해 그릇된 길에서 구원받아, / 세 위격 안에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로다.

### 동방 스티히라

주님의 귀가 / 나의 기도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기를.

저녁 예배를 / 주님께 드리오니, 꺼지지 않는 빛이시여, / 세상의 끝에서 육신을 통해 마치 거울처럼 세상에 비추신 분이시여, / 심지어 지옥까지 내려가셔서, / 그곳의 어둠을 흩어뜨리시고, / 부활의 빛을 모든 민족에게 드러내신 분이시여. / 빛의 주인이신 주님, 주님께 영광을!

주여, 주여, 주께서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누가 견딜 수 있겠나이까? / 주께는 용서가 있다.

우리 구원의 주재자이신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; / 그분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/ 세상이 미혹에서 구원받았으니; / 천사들의 무리가 기뻐하며, / 악마들의 유혹은 물러가고, / 타락한 아담은 다시 일어났으며, / 마귀는 힘을 잃었나이다.

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주님을 기다렸나이다, 주님, 내 영혼이 주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었나이다, / 내 영혼이 주님께 의지하였나이다.

경비병들은 불의한 자들에게 *이렇게* 지시를 받았습니다: / “그리스도의 부활을 숨기라: / 돈을 받고 말하라, / 우리가 자는 사이에 무덤에서 시체를 훔쳐 갔다고.” / 누가 본 적이 있고, 누가 들은 적이 있느냐, 죽은 자를 훔쳐 간 일이, / 하물며 유향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벌거벗은 채, / 관 속에 / 심지어 자신의 장례용 수의까지 남겨 둔 자를? / 오해하지 마십시오, 유대인들아; / 선지자들의 말씀을 깨닫고 알라, / 그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이시며 전능하신 분임을.

**아침 파수 때부터 밤까지, 아침 파수 때부터 / 이스라엘이 주님을 의지하리이다.**

주님, 지옥을 정복하시고 / 죽음을 밟아 넘기신, 우리의 구세주이시여, / 당신의 거룩한 십자가로 세상을 비추신 분이시여! /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.

**영광송: 미네아의 스티히라.**

**그리고 이제, 성모송:** 홍해에서 / 결혼을 알지 못한 신부의 형상이 / 한때 새겨졌도다. / 저기서는 물을 가르 모세, / *여기서*는 기적을 행하는 가브리엘. / 그때 이스라엘은 *밭*을 적시지 않고 *바다* 깊은 곳을 건넜고, / 이제 동정녀는 씨 없이 그리스도를 낳았도다. / 이스라엘이 지나간 후 바다는 여전히 건널 수 없게 남았고, / 태어날 때부터 흠 없는 임마누엘은 온전하게 남으셨습니다. / 존재하시는 *하느님*, - / 존재하시기 전부터 계셨고, 사람으로 나타나신 분, /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!

**입장. “기쁨의 빛:”**

### **프로키멘, 6음조**

주님께서 왕좌에 오르셨으니, / 영광으로 옷 입으셨도다.

**절:** 주님께서 권능을 입으시고, 허리에 띠를 두르셨도다.

**절:** 그분께서 우주를 굳게 세우셨으니, 그것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.

**절:** 주님, 주님의 궁전에는 거룩함이 어울리나이다, 영원토록.

시편 92:1, 5B

**그 다음에는 ‘주님, 허락하소서’라는 간구 기도인 특별 기도문이 이어집니다.**

## 성가대에서 부르는 스티히라

육신을 입으신 구세주 그리스도이시여, / 하늘을 떠나지 않으신 분이시여, / 우리는 찬송의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나이다; / 이는 주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와 죽음을 받아들이셨으니, / 사람을 사랑하시는 주님이시라; / 지옥의 문을 무너뜨리시고,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, /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나이다.

**구절: 주님께서 왕좌에 오르셨으니, / 영광으로 옷 입으셨도다.**

생명의 주님이시여, 찢리신 갈비뼈에서 / 모든 이에게 용서와 생명과 구원의 / 강물을 쏟아 부으셨나이다; / 육신을 입고 죽음을 받아들이시어 우리에게 불멸을 주셨으며; / 관에 누우심으로써 우리를 해방시키시고, / 하나님으로서 영광 중에 *우리*를 당신과 함께 부활시키셨나이다. / 그러므로 우리는 외칩니다: “사람을 사랑하시는 주님, 영광을 받으소서!”

**구절: 그분께서 우주를 굳게 세우셨으므로, 그것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.**

주님의 십자가 처형과 / 지옥으로의 강림은 참으로 놀랍나이다, 사람을 사랑하시는 주님: / 지옥을 정복하시고, 옛 포로들을 영광 가운데 / 하나님으로서 주님과 함께 부활시키시며 천국의 문을 열어 주심으로써, / *그들에게* 다시 지옥을 되찾게 하셨나이다. / 그러므로 제삼일에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는 우리에게도, / 죄 사함을 베풀어 주시어, / *우리*를 천국의 주민이 될 자격을 갖추게 하소서, / 유일하신 자비로우신 분이시여.

**찬송: 주님, 주님의 집에는 영원토록 거룩함이 어울리나이다.**

우리를 위하여 육신으로 고난을 겪으시고 /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시여! / 우리 육신의 정욕을 치유하시고, / 중대한 죄악에서 *우리*를 일으키시며, /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시여, 우리를 구원하소서.

**영광송: 미네아에 수록된 스티히라, 있는 경우. 없는 경우:**

**영광, 그리고 지금, 성모송:** 성전과 문, 궁전과 왕의 보좌, - / 존경받으실 동정녀이신 당신; / 당신을 통해 나의 구세주이신 그리스도 주님께서, / 어둠 속에서 잠든 자들에게 의의 태양 *처럼* 나타나시어, / 그분이 창조하신 자들을 비추고자 하셨으니, / 그분의 손으로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자들을 / 비추고자 하셨나이다. / 그러므로, 온전히 찬양받으시는 분이시여, / 그분께 대한 어머니의 담대함을 얻으신 분이시니, / 끊임없이 중보하시어 / 우리 영혼의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.

**그 다음: “이제 용서하소서:” ‘주님의 기도’ 뒤에 삼위일체 찬송:**

## 트로파리

아버지와 성령과 *같이* 시작이 없으신 말씀이시여, / 우리의 구원을 위해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신 분을, / 우리 신자들은 찬양하며 *그분께* 경배합시다. / 그분은 육신을 취하여 십자가에

## 5번 성부

오르시기를 기꺼이 하시고, / 죽음을 겪으시며, 죽은 자들을 / 그분의 영광스러운 부활로 다시 살리셨나이다.

**영광송, 그리고 지금, 성모송:** 기뻐하라, 주님의 통과할 수 없는 문이여! / 기뻐하라, 주님께 피신하는 자들의 성벽이자 보호자여! / 기뻐하라, 고요한 안식처이시며 결혼을 알지 못하신 *동정녀여*, / 육신으로 당신의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을 낳으신 분이시여! / 당신에게서 태어나신 분을 찬양하고 / 경배하는 자들을 위해 중보해 주심을 그치지 마소서.

같은 **트로파르**를 “하나님이시요 주님이시여:”에서도

## 아침 기도 때

“하나님이시요 주님이시여:”를 5음조로 부르고, 부활 트로파리를 두 번, 성모송을 한 번 부릅니다(대저역기도 참조). 그 후 시편의 통상적인 낭송이 이어집니다.

## 세달렌 1편씩

주님의 십자가를 찬양하며, / 성스러운 장례를 찬송으로 기리며 / 그분의 부활을 찬양하리니; /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으로서 무덤에 있던 죽은 자들을 *자신과* 함께 부활시키시고, / 죽음의 권세와 마귀의 힘을 멸하시며, / 음부에 있던 자들에게 빛을 주셨기 때문이니라.

**성구:** 일어나소서, 나의 주 하나님이시여, 주의 손이 높이 들리시기를, / 주의 가난한 자들을 끝까지 잊지 마소서!

시편 9:33

주님! 주님은 죽음을 죽이신 분이시나 죽은 자로 여겨지셨고, / 무덤을 텅 비게 하신 분이시나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. / 땅 위에서는 군인들이 *주님*의 관을 지키고 있었으나, / 음부에서는 주님께서 태초부터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셨습니다. / 전능하시고 헤아릴 수 없으신 주님,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!

**영광이여, 지금 이 순간에도, 성모 마리아여:** 기뻐하라, 거룩한 산이시여, 오직 하느님만이 지나가시는 분이시여! / 기뻐하라, 생명이 깃들고 타지 않는 가시덤불이시여! / 기뻐하라, 세상을 위해 하느님께로 이어지는 유일한 다리시여, / 죽을 운명의 자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분이시여! / 기뻐하라, 흠 없는 동정녀여, / 남편을 알지 못하고 / 우리 영혼의 구원을 낳으신 이여!

## 제2 시조 세달렌에 따라

주님! 주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/ 사도들이 경배드린 후, / 베드로가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: / “여인들은 담대함을 가졌으나 나는 두려워하였고, / 강도는 주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했으나 나는 주님을 부인했습니다. / *오* / 일 후에 나를 제자로 부르시겠나이까, / 아니면 다시

바다에서 어부로 삼으시겠나이까? / 그러나 회개하는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, 하나님, / 그리고 나를 구원하소서!”

**구절:** 주님,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리니, / 주의 모든 기적을 선포하리이다.

시편 9:2

주님! 정죄받은 자들 가운데서 / 불의한 자들이 주님을 *십자가에* 못 박았고 / 창으로 주님의 갈비뼈를 찔렀나이다, 오 자비로우신 분이시여. / 지옥의 문을 무너뜨리신 주님께서 장사를 치르셨고, / 사흘 만에 부활하셨나이다. / 여인들이 *무덤에 계신* 주님을 보려고 달려왔으나, / 사도들에게 부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. / 찬양받으시는 구세주, 천사들이 찬양하는 분, / 복되신 주님, 주님께 영광을 돌리나이다!

**영광이여, 이제, 성모 마리아여:** 결혼을 알지 못하신 신부, 하느님의 어머니, / 하와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신 분이시여! / 우리 신자들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나이다; / 주님께서 우리를 옛 저주에서 구원해 주셨나이다. / 이제, 온전히 찬양 받으시고 온전히 거룩하신 분이시여, /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해 주소서.

그 후 ‘흠 없는 이들에 대한’ 트로파리와 소에크테니아.

### 이파코이

천사의 현현에 마음으로 경탄하며 / 신성한 부활을 통해 영혼이 밝아진 성모녀들은 사도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: / “주님의 부활을 모든 민족 가운데 선포하십시오. / 기적들로 *여러분*을 도우시며 / 우리에게 큰 자비를 베푸시는 주님을!”

### 성가. 안티폰 1

나의 슬픔 속에서 다윗처럼 / 나의 구세주이신 주님을 찬양하오니: / “교활한 헝가리로부터 내 영혼을 구원하소서!”

은둔자들의 삶은 복되니, / 신성한 사랑으로 날개를 달고 있다.

**영광:** 성령께서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나니, / 이는 그분께서 주권자이시며 / 참으로 삼위일체의 한 분이시기 때문이니라.

**그리고 지금:** 우리는 이를 다시 고백합니다.

### 안티폰 2

산으로 올라가자, 영혼아, / 그곳으로 가자, / 도움이 오는 곳으로.

그대의 오른손이 / 그리스도여, 나를 어루만지시여, / 온갖 간계로부터 지켜 주소서.

**영광송:** 성령께 경배하며 외치나이다: / “주님은 하나님이시며, 생명이시며, 사랑이시며, 빛이시며, 지혜이시니; / 주님은 선하심이시며, 영원토록 다스리시나이다!”

**그리고 지금:** 우리는 다시 같은 말을 되풀이합니다.

### 안티폰 3

나에게 “주님의 뜰로 가자”고 말한 이들에게 / 나는 큰 기쁨으로 가득 차 / 기도를 올립니다.

다윗의 집에서 두려운 일이 일어나나니: / 거기에는 모든 타락한 마음을 태우는 / 불이 있나이다.

**영광송:** 성령께서는 생명을 주시는 능력을 지니시니, / 그분으로부터 모든 살아 있는 피조물이 생명을 얻나니, / 아버지께서 그러하시듯, 또한 말씀과 함께 그러하시도다.

**그리고 지금:** 우리는 이를 다시 되풀이합니다.

### 프로키멘

일어나소서, 주 나의 하나님이지여, 주의 손이 높이 들리시기를, / 주께서는 영원토록 다스리시나이다.

**절:** 주님,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겠나이다. 주님의 모든 기적을 선포하겠나이다.

참조. 시편 9:33A, 37B, 2

“숨 쉬는 모든 것이 주님을 찬양하리라.” 하고 주일 아침 복음서를 읽습니다.

### 복음서 후 주일 찬송

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으니, / 거룩하신 주 예수님께 경배합시다, / 유일하시고 죄 없으신 분께. / 주님의 십자가에 경배하며, 그리스도여, / 주님의 거룩한 부활을 노래하고 찬양하리니, /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지니, / 주님 외에는 다른 분을 알지 못하며, / 주님의 이름을 부르나이다. / 오라, 모든 신자들아, /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배합시다, / 보라, 십자가를 통해 / 온 세상에 기쁨이 임하였나니. / 항상 주님을 찬양하며, / 그분의 부활을 노래합시다, /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겪으시고, / 죽음으로 죽음을 무찌르셨나니.

시편 50편.

**영광송:** 사도들의 기도로, 자비로우신 주님, 우리의 수많은 죄를 씻어 주소서.

**그리고 이제:** 성모 마리아의 기도로, 자비로우신 주님, 우리의 수많은 죄를 씻어 주소서.

**그 후, 제6음조:**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, 하느님, 주님의 크신 자비와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나의 죄악을 씻어 주소서.

**그리고 스티히라:** 예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으니, / 예언하신 대로, /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/ 큰 자비를 베푸셨도다.

**그리고 기도:** 하나님이지여,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소서:

카논

첫 번째 – 주일용 4음조, 두 번째 – 십자가 부활용 3음조, 세 번째 – 성모송 3음조 및 미네이 4음조. 성인을 기념하는 날에는 6음조로, 십자가 부활용 2음조 및 성모송 2음조를 사용합니다.

제1곡

제1 캐논

**이르모스:** 붉은 바다에서 말과 기수를 / 높이 든 손으로 전투에서 분쇄하신 / 그리스도께서 쓰러뜨리시고, /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니, /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자로다.

**후렴:** 주님, 주님의 거룩한 부활에 영광을 돌리나이다.

가시관을 바치는 유대인의 회당은, / 은인인 주님께 대한 어머니의 사랑을 지키지 못하고, / *가시관*을 주님, 그리스도께 씌웠으니, / *우리* 조상을 / 가시의 형벌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시여.

구덩이에 빠진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, / 주저함 없이 도와주신 생명의 주님이시여, / 나의 악취 나는 썩어가는 몸을 치워 주시되, / 그 악취에 물들지 않으시고, 그리스도여, / 신성한 본성의 향기로 나를 감싸 주셨습니다.

**성모송:** 저주가 소멸되고 슬픔이 끝났나니, / 이는 복되고 은총 가득한 *동정녀께서* / 신자들에게 기쁨을 안겨 주셨기 때문이니, / *마치* 꽃이 피어나듯 축복이신 그리스도께서 / *땅의* 모든 끝자락에 퍼지셨나이다.

제2 캐논

자발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육신 / 그리고 옛날의 정죄에서 / 나무로 인해 타락한 자들을 해방시키신 분께, – / 그분 한 분께만 찬양합시다; / 그분은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.

*죽으셨으나*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, / 타락한 자들을 *그분과* 함께 부활시키시고 / 아버지 곁에 앉히심으로 영광을 주신 *그분께*, – / 오직 그분만을 찬양합시다; / 그분은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.

**성모송:** 지극히 순결하신 하느님의 어머니여! / 당신으로부터 성육신하시고 / 당신 어머니의 태를 떠나지 않으신 하느님께 / 끊임없이 간구하소서 –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이들을 / 온갖 불행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도록.

제3 캐논

당신 안에 거하시며, 지극히 순결하신 분이시여, / 신성의 광채로 세상을 비추신 그리스도, – / 간구하소서, 당신을 찬양하는 모든 이가 / 빛을 받게 하소서, 동정녀 어머니여.

미덕의 아름다움으로 단장된, 은총 받으신 분이시여, / 성령의 광채로 찬란한 아름다움을 / 받아들이신, 온전히 순결하신 분이시여, – 만물을 아름답게 꾸미신 분을.

한때 시나이 산에서 가시덤불이 / 당신을 예표하였으나, / 불길에 휩싸였음에도 타지 않았나이다, 동정녀여; / 이는 당신, 동정녀께서 아들을 낳으시고도 동정녀로 남으셨기에, / 이성으로 헤아릴 수 없는 동정녀 어머니가 되셨음이니이다.

그 후 미네아 전례서의 트로파리와 규정에 따른 카타바시아.

### 제3곡

#### 제1 캐논

**이르모스:** 당신의 명령으로 땅을 아무것도 없이 굳건히 세우시고 / 지탱할 곳 없이 무거운 땅을 들어 올리신 분이시여! / 당신의 계명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/ 당신의 교회를 굳건히 세우소서, / 유일하신 선하시고 인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여!

바위에서 꿀을 마신 자들이, / 광야에서 기적을 행하신 주께, / 담즙을 바쳤나이다, 그리스도여; / 그리고 식초로 – 마차/만나에 대한 은혜인 양 주께 갚은 /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자손들이여.

한때 빛나는 구름으로 덮여 계셨던 / 생명이신 주님을 무덤에 모셨나이다, 그리스도여; / 그러나 주님의 권능으로 부활하사, / 모든 신자들에게 / 위로부터 신비롭게 비추시는 성령의 광채를 내려 주셨나이다.

**성모송:** 주님은 혼인 없이 / 영원한 아버지께로부터 빛나신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셨으며, / 어머니들이 겪는 고통을 겪지 않으셨습니다. / 그러므로 우리는 성육신하신 말씀을 낳으신 분으로서, / 주님을 정통적으로 성모 마리아로 고백합니다.

#### 제2 캐논

그대는 무덤에서 부활하셨나이다, 그리스도여, / 죽음의 썩음을 벗어나게 하시고 / 찬양하는 자들에게, 생명의 주님이시여, / 그대의 자발적인 십자가 처형을.

그리스도여, 당신의 몸을 향유로 기름 바르려고 / 향유를 지닌 여인들이 서둘러 갔으나, / 찾지 못하고 돌아오며, / 당신의 부활을 찬양하였습니다.

**성모 찬가:** 끊임없이 간구하소서, 순결하신 분이시여, / 당신의 자궁에서 육신을 입으신 분을 위하여, /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구원받게 하소서, / 당신을 찬양하는 자들을 위하여, 순결하신 동정녀여.

#### 제3 캐논

지극히 높으신 분이 우리에게 내려오신 사다리를 통해, / 썩어가는 우리/의 본성을 회복하시려고, / 존귀하신 분이시여, / 이제 모든 이에게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셨나이다: / 이는 지극히 복되신 분이 당신을 통해 / 이 세상에 머무르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니이다.

처녀여, 옛적에 예정되었던 그 신비, /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전지하신 하느님께 알려졌던 그 신비가, / 이제 마지막 때에, / 당신의 태중에서, 온전하신 분이시여, / 실현되어 드러났습니다.

고대의 저주가 가져온 정죄는 / 당신의 중보로 말미암아 소멸되었나니, 지극히 순결하신 동정녀여: / 주님께서 당신을 통해 나타나시어, / 지극히 복되신 분으로서, / 유일하신, 필멸자들의 영광이시여, 모든 이에게 축복을 쏟아 부으셨나이다!

## 제4편

### 캐논 1

**이르모스:** 당신의 신성을 깨달은 아바쿰은 / 예언자의 눈으로 / 떨리는 마음으로 당신께 부르짖었나이다, 그리스도여: / “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, / 당신의 기름부음 받은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나이다!”

가장 쓴 샘물들을 / 주님은 나무를 통해 달게 하셨나이다, 선하신 분이시여, / 마치 성화상에 묘사된 것처럼 / 죄의 맛을 없애는 주님의 지극히 깨끗한 십자가를.

지식의 나무 대신 십자가를, / 달콤한 양식 대신 담즙을 / 받아들이셨나이다, 나의 구세주여; / 그리고 썩어 없어질 육신을 대신하여 / 당신의 신성한 피를 흘리셨나이다.

**성모송:** 부부 간의 친밀함 없이 / 당신은 흠 없이 태중에서 잉태하셨고, / 고통 이전에 낳으셨으며, / 출산 후, 하나님을 육신으로 낳으시고도 / 동정녀로 남으셨습니다.

### 제2 캐논

땅 위에 /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세워졌을 때, / 그때 지옥의 빗장과 / 영원한 문지기들이 무너졌고, 모두가 외쳤나니: / “주님, 주님의 능력에 영광을 돌리나이다!”

구세주께서 지옥으로 내려가셔서 / 죽을 몸으로 그곳의 포로들에게 다가가셨을 때, / 태초부터 죽은 자들이 그분과 함께 부활하여 외쳤다: / “주님, 당신의 능력에 영광을 돌립니다!”

**성모송:** 동정녀께서 아들을 낳으셨으나 어머니들이 겪는 고통을 겪지 않으셨나니: / 그러나 그분은 동정녀로 남으셨음에도 어머니이시니. / 그분을 찬양하며 우리는 외치나니: / “기뻐하라, 성모여!”

### 제3 캐논

마음과 정신과 영혼과 입으로, / 온전한 경외심으로 / 당신을 참으로 성모이시며 순결하신 분으로 고백하며, / 나는 구원의 열매를 거두고 구원받나니 / 처녀이신 당신의 중보로 말미암아.

## 5번 성부

무에서 만물을 창조하신 분께서 / 당신 안에서, 순결하신 이여, / 구원의 은인으로서 기꺼이 / 믿음과 사랑으로 / 당신을 찬양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, 온전무흠하신 이여.

초월적인 천상 합창단이 / 당신으로부터 태어나신 그리스도를 찬양하오니, 온전하신 분이시여, / 당신을 참된 성모로 여기며 / 구원을 기뻐하는 자들아, / 오, 더러움과 무관하신 동정녀여!

이사야는 당신을 가지라 불렀으니, / 그 가지에서 우리를 위해 / 아름다운 꽃, 곧 그리스도 하느님께서 자라나셨나니, / 믿음과 사랑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 / 당신의 보호를 의지하는 자들을 위하여.

## 제5편

### 캐논 1

**이르모스:** 빛을 옷처럼 입으신 분이시여! / 새벽부터 주님께로 나아가며 주님께 부르짖나이다: / “오, 유일하신 자비로우신 그리스도여, / 어둠에 잠긴 내 영혼을 비추소서!”

영광의 주님께서 비천한 모습으로, 모욕을 당하시며, / 자발적으로 나무에 매달리시어, / 나에게 신성한 영광을 / 형언할 수 없이 예비해 주셨나이다.

그대는 나를 썩지 않는 몸으로 입히셨나이다, 그리스도여, / 죽을 사람의 썩음을 그대의 육신으로 썩지 않게 맛보시고 / 셋째 날 무덤에서 빛나시며 부활하셨나이다.

**성모송:** 주님은 진리와 속죄이신 그리스도를, / 씨 없이 우리에게 낳으셨으니, 성모여, / 저 주에서 해방된 / 족조의 본성을 만드셨나이다.

### 제2 캐논

우리의 구세주이시여, 주님은 나무 위에 두 팔을 펼치시어, / 모든 이를 당신께 부르시니, / 참으로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라.

우리의 구세주여, 주님은 당신의 장사와 부활로 지옥을 정복하시고 / 기쁨으로 모든 것을 가득 채우셨습니다.

(무덤에서 부활하셨나이다 / 셋째 날에, 생명의 주님이시여, / 모든 이에게 멸망하지 않는 불멸을 부어 주셨나이다.)

**성모송:**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나이다, 성모여, / 동정녀이시며 출산 후에도 *그리하시니*; / 이는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/ 세상에 하나님 말씀이신 분을 낳으셨기 때문이니이다.

### 제3 캐논

모든 예언자들은 주님께 대해 분명히 예언하였나니, /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실 분, /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 마리아여; / 이는 오직 주님만이, 순결하신 분이시여, / 온전히 흠이 없으셨기 때문입니다.

생명의 물로 이루어진 밝은 구름처럼, / 썩지 않는 비, 곧 그리스도를 / 절망에 빠진 우리에게 쏟아 부으신 분으로, / 우리는 당신을 인정합니다, 거룩하신 분이시여.

온전히 아름답고 흠 없는, / 동정심으로 순결하게 인치신 당신을 / 얼마나 깊이 사랑하셨는지, / 당신 안에 거하시며 / 유일하신 자비로우신 하느님이시여.

## 제6편

### 캐논 1

**이르모스:** 정육의 치명적인 폭풍으로 / 거칠게 요동치는 바다여, / 그리스도 주님, 자비로우신 분이시여, / 나를 진정시키시고 / 파멸에서 건져 주소서.

우리/의 조상은 멸망에 빠졌나니, / 불순종의 열매를 맛보았으나, / 그리스도 주님, 주님의 고난으로 / 생명으로 일으키셨나이다.

생명이신 주 그리스도여, 주께서는 지옥에 이르셨으며, / 우리/를 멸망시킨 자의 멸망이 되심으로써, / 썩어가는 몸을 통해 부활을 이루셨습니다.

**성모 찬가:** 동정녀께서 낳으시고, 낳으신 후에도 순결함을 지키셨으니, / 참으로 동정녀이시며 어머니이시니, / 만물을 품에 안으신 분을 품으셨도다.

### 제2 캐논

주께서는 두 팔을 펼치사, / 주께로부터 멀리 떠난 / 이방인들의 무리를 모아 주셨나이다, 그리스도 우리 하느님, / 생명을 주는 십자가로,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으로서.

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지옥의 문을 부수셨나이다; / 포로였던 아담은 해방되어 주님께 외쳤나이다: / “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셨나이다, 주님!”

**성모 찬가:** 주님을 – 타지 않는 가시덤불이시며, / 산이시며, 생명이 깃든 사다리이시며, / 하늘의 문이신 주님을, 우리는 마땅히 찬양하나이다, / 영광스러운 마리아여, 정교인들의 찬미이시여.

### 제3 캐논

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존재를 베푸신 분께서, / 우리 본성에 성육신하신 분으로서 / 당신을 모시나이다, 흠 없는 성모님.

영혼을 치유하는 샘물이 솟아나는 / 주님의 영광스러운 보호를 믿음으로 찾는 이들을 위해, 여왕이시여, / 우리는 당신을 온전하신 분으로 인정합니다.

## 5번 성부

구원의 근원이시며 생명의 주이신 분을, / 주께서 우리를 위해 낳으셨으니, / 영원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을 / 참된 성모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.

### 콘다

주님, 나의 구세주여, 주님은 지옥에 내려가시어 / 전능하신 분으로서 그 문을 부수시고, / 창조주로서 죽은 자들을 주님과 함께 부활시키시며, / 죽음의 독침을 없애시고, [그리스도여,] / 아담을 저주에서 구원하셨나이다,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시여. /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주님께 외칩니다: / “주님, 우리를 구원하소서!”

**이코스:** 아내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, / 울음을 그치고 기쁨으로 가득 차, / 경외심에 사로잡혀 부활을 바라보았다. / 그러자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시며, / “기뻐하라, 용기를 내라! / 내가 세상을 이기고 포로들을 해방시켰다. / 서둘러 제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전하라, /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그 소식을 알리리라.” / 그러므로 우리 모두 주님께 외칩니다: / “주님, 우리를 구원하소서!”

## 제7편

### 카논 1

**이르모스:** 조상들의 주님이시여, / 불길을 끄시고 소년들에게 물을 뿌리시니, / 그들은 조화롭게 노래하며: / “하나님, 주님은 복되시나이다!”

육신을 입으시어 *마치* 낚싯바늘의 미끼처럼, / 당신의 신성한 능력으로 뱀을 쓰러뜨리시고 / *지옥에서* “하나님, 찬양받으소서!”라고 부르짖던 자들을 구원하셨습니다.

헤아릴 수 없는 땅의 구조를 창조하신 분, / 육신으로는 무덤 속에 숨어 계시나, 그분은 그 무엇에도 답을 수 없으시니. / 우리 모두 그분께 노래하노라: / “하나님, 찬양받으소서!”

**성모송:** 두 본성 안에 하나이신 위격을 / 당신께서 낳으셨나이다, 흠 없는 분이시여, - / 육신을 입으신 하느님께, 우리 모두 찬양하노니: / “하느님, 찬미받으소서!”

### 제2 캐논

십자가의 나무로 / 우상 숭배의 미혹을 멸하신 분! /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께 찬미를!

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/ 음부에 *있던 자들을 당신과* 함께 일으키신 분! /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께 찬미를!

(그대의 죽음으로, 그리스도여, /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신 분이시여! /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께 찬미를 드립니다!)

**성모송:**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신 분 / 그리고 그분을 성모로 드러내신 분! /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께 찬미를!

**제3 캐논**

한계 없으시면서도 변함없이, / 자비로우신 분으로서 이포스타시적으로 육신과 결합하셨으니, / 당신 안에서 – 온전하게 거룩하신 *동정녀여*, / 유일하신 축복받으신 분이시여!

당신을, 흠 없는 신부*로서*, / 성모 여왕이시여, 한 목소리로 찬양하며, / 또한 당신의 창조주이신 분의 보좌*로서*, / 그분께 우리 모두가 노래하노니: / “하나님, 찬미받으소서!”

동정녀여, 성령으로 정화되사, / 당신을 창조하신 만왕의 어머니가 되셨으니, / 그분께 우리 모두 찬양하노라: / “하나님, 찬미받으소서!”

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나니, 지극히 순결하신 성모여, / 주님께서는 당신을 통해 육신의 옷을 입으셨나이다. / 그분께 우리 모두 찬양하노니: / “하나님, 찬미받으소서!”

**제8곡**

**제1 캐논**

**이르모스:** 만물의 창조주이신 주님께, 용광로 속의 청년들이 / 온 세상을 뒤흔드는 환호를 올려 노래하되: / “모든 피조물아, 주님을 찬양하라 / 그리고 영원토록 찬양하라!”

주께서는 자발적으로 드신 구원의 고난의 잔에 대하여, / *마치* 강제로 드신 *것처럼* 기도하셨습니다; / 이는 주께서 두 본성에 따라 두 뜻을 지니셨기 때문이니, 그리스도여, / 영원토록.

만물의 창조주이신 주님의 강림으로 조롱받으셨으나, / 지옥은 한때 속임수로 죽임을 당했던 자들, /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을 영원토록 내쫓았습니다.

**성모송:** 이성으로 헤아릴 수 없으시나, / *우리/의* 표현대로 신성하신 분, / 주님을 낳으시고 동정성을 지키신 분, / *우리/와* 모든 피조물이 당신을 축복하며, 동정녀여, / 영원토록 찬양합니다.

**제2 캐논**

십자가 위에서 자발적으로 두 팔을 벌리시고 / 죽음의 사슬을 끊으신 그리스도 하느님을, / 사제들은 찬양하고, / 백성들은 영원토록 찬양하라.

무덤에서 부활하신 신랑이신 그리스도 하느님을, / 향유를 가져온 여인들에게 나타나시어, / 그들에게 기쁨을 선포하신 분을, / 사제들은 찬양하고, / 백성들은 영원토록 찬양하라.

**성모송:** 케루빔들보다 더 높으신 분이시여, / 순결하신 성모여, / 그분께서 품에 안고 계신 분을 당신의 태중에 품으셨으니, / 우리 필멸자들이 무형의 존재들과 *함께* / 영원토록 그분을 찬양하오니.

**제3 캐논**

이제 조상들의 슬픔이 그쳤으니, / 성모님, 주님께서 기쁨을 얻으셨기 때문입니다. /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찬양하며, / 영원토록 높이 찬양합니다.

우리와 함께 무형의 천사들이 / 동정녀이신 당신을 통해 이루어진 헤아릴 수 없는 탄생을 찬양하며, / 사랑으로 하나 된 합창을 이루어 / 영원토록 그분을 높이 찬양합니다.

투명한 불멸의 물줄기가 / 당신에게서 솟아났나이다, 동정녀여, – 만물의 주님이시여, / 믿음으로 당신을 찬양하는 자들의 더러움을 씻어 주시고 / 영원토록 찬양하는 자들을 높이시나이다.

진실로 신성하고 빛을 발하는 보좌이자 / 은총의 돌판으로, 우리는 당신을 고백하오니, 동정녀여, / 아버지의 말씀을 당신 안에 받아들이신 분으로서, / 우리가 영원토록 찬양하는 그분을.

**그 후,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님의 찬가를 부릅니다: “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나이다.”**

## 제9편

### 카논 1

**이르모스:** 이사야여, 기뻐하라! / 동정녀께서 태중에 잉태하시고 / 아들이신 임마누엘을 낳으셨으니, /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분, / 그분의 이름은 ‘동방’이라. / 그분을 찬양하며, 우리는 동정녀를 찬미하노라.

주 그리스도여, 주께서는 동정녀의 태중에서 / 타락한 인간의 *본성*을 취하셨나이다: / 온전히 *그와* 하나가 되셨으나, / 단 하나의 죄에도 물들지 않으시고, / 주님의 지극히 순결한 고난으로 / 그를 썩어짐에서 온전히 해방시키셨나이다.

주 그리스도여, 당신의 지극히 순결하고 생명을 주는 갈비뼈에서 / 끝까지 쏟아진 신성한 피로 말미암아, / 우상 숭배의 제사는 중단되었고, 온 땅이 / 당신께 찬양의 제물을 바칩니다.

**성모 마리아:** 육체가 없는 신도, 단순한 인간도 아닌 / 순결하고 거룩한 동정녀께서 낳으신 분은, / 완전하고 참된 인간이자, 완전한 신이시며, / 우리가 성부와 성령과 *함께* 찬양하는 분이십니다.

### 제2 캐논

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아들이시고 / 죽음으로 지옥의 세력을 꺾으신 주님을, / 우리 신자들은 정통적으로 찬양합니다.

셋째 날 무덤에서 부활하시고, / 지옥을 이기시고 세상을 비추신 주님을, / 우리 신자들은 한마음으로 찬양합니다.

**성모송:** 기뻐하소서, 성모 마리아여, 그리스도 하느님의 어머니시여! / 주님께서 당신을 통해 태어나신 분께 간구하소서, / 당신을 믿음으로 찬양하는 이들에게 / 죄의 용서를 베풀어 주시도록.

### 제3 캐논

당신의 맑은 피에서, 영원히 동정녀이신 성모님, /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이시며 독생자이신 아들에게 / 초자연적으로 육신이 형성되었으니, / 남자로부터가 아니라 씨 없이, / 이성을 지니고 생명이 깃든 육신으로.

당신은 끊임없고 막을 수 없는 죽음의 기세를 / 멈추셨으니, 참으로 이성으로 헤아릴 수 없이 / 육신으로 영원한 생명을 낳으셨고, / 그분께 잔혹한 입술로 닿자 / 지옥은 힘을 잃었나이다,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녀 어머니.

당신의 아들은, 주권자의 보좌에 앉아, / 신성한 미덕이라는 황금 테두리로 눈부시게 빛나는 당신을, / 자신의 오른편에 모시고, / 어머니이신 당신께 마땅한 영광을 드리며, / 온전무흠하신 분이시여.

(당신의 탄생은 이성을 초월하오니, 성모여; / 남편 없이 잉태가 이루어졌고, / 동정녀의 탄생이었으니, 태어난 분은 하나님이니라. / 그분을 찬양하며, 우리는 당신을, 동정녀여, 찬미하오니.)

**카타바시아 후 소에크테니아, 그 다음: “거룩하시도다, 우리 주 하느님.” 그리고 부활절 엑사포스티라리온.**

**“찬양하라”에서 부활절 스티히라(8음조)를 부르고,**

**그들 가운데서 정해진 심판을 집행하시니, / 이 영광은 그분의 모든 성자들에게 있나이다**

주님! 비록 주님의 관이 불경건한 자들에 의해 봉인 되었으나, / 주님은 성모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것처럼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. / 주님의 무형의 천사들은 주님께서 어떻게 성육신하셨는지 알지 못하였고, / 주님을 지키던 병사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이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. / *이* 두 기적은 탐구하는 자들에게는 감춰져 있으나, / *이* 신비를 믿음으로 경배하는 자들에게는 드러나 있나이다; / 이를 찬양하는 우리에게 / 기쁨과 큰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

**그분의 거룩한 자들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, / 그분의 하늘에서 그분의 능력을 찬양하라.**

주님! 영원한 빛장을 부수시고 / 쇠사슬을 끊으시어, 주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셨나이다, / 주님의 장례용 수의는 / 주님의 사흘간의 매장이라는 진리의 증거로 남겨두시고, / *이/마* 갈릴리에서 만나실 준비를 마치셨나이다, / *아직* 동굴에 계실 때에도 *병사들*이 주님을 지키고 있었나이다. / 주님의 자비는 크시니, / 헤아릴 수 없는 구세주여!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.

**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라, / 그분의 위엄이 무궁무진함을 찬양하라.**

주님! 아내들이 주님의 무덤으로 서둘러 갔으니, /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신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찾기 위함이었습니다. / 그리고 도착하여, 돌 위에 앉아 계신 천사를 발견하였는데, / 그 천사는 깜짝한 *광경*에 놀라 뒤로 물러나 있었습니다. / 그 천사가 그들에게 소리쳐 말하기

를, “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; / *그분의* 제자들에게 전하십시오,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/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라고!”

**나팔 소리로 그분을 찬양하라, / 수금과 비파로 그분을 찬양하라.**

주님! 주님께서 봉인된 무덤에서 나오신 것처럼, / 문이 잠겨 있을 때에도 제자들에게 들어가셔서, / 인내심 많으신 구세주이신 주님께서 감내하신 육신의 고난을 / 그들에게 보이셨나이다. / 다윗의 *후손으로서* 상처를 입으셨고, /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. / 주님의 자비는 크시니, / 헤아릴 수 없는 구세주여!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.

### 다른 스티히라, 동방식

**팀파니와 합창으로 그분을 찬양하라, / 현악기와 오르간으로 그분을 찬양하라.**

주님, 세상의 왕이시며 만물의 창조주이시여, / 우리를 위하여 육신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되셨으니, / 지옥에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려 하심이라! /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니, / 주님 외에는 우리가 아는 이가 없나이다!

**아름다운 소리의 킨발로 그분을 찬양하라, 울림 있는 킨발로 그분을 찬양하라. / 숨 쉬는 모든 것이 주님을 찬양하리라!**

주님! 주님의 가장 찬란한 기적들을 누가 묘사하리이까? / 혹은 주님의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신비들을 누가 선포하리이까? / 우리를 위하여,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육신을 입으시고, / 주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드러내셨나니: / 주님의 십자가로 강도에게 천국을 열어 주셨고, / 주님의 장사로 지옥의 문을 부수셨으며, / 주님의 부활로 모든 이를 풍요롭게 하셨나이다. / 자비로우신 (주님), 주님께 영광을 돌리나이다!

**일어나소서,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, 주의 손이 높이 들리시며, / 주의 가난한 자들을 끝까지 잊지 마소서!**

향유를 지닌 여인들은 이른 아침 주님의 무덤에 이르러, / 불멸의 말씀이시며 하나님이신 주님을 향유로 기름 부으려 하였으나; / 그러나 천사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돌아와, / 사도들에게 공개적으로 선포하였으니, / 모든 이의 생명이신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며, / 세상에 평화와 / 큰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을.

**주님, 저는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겠으며, / 주님의 모든 기적을 선포하리이다.**

신성한 무덤을 지키던 파수꾼들이 유대인들에게 말하되: / “너희의 의논이 얼마나 무의미한가! / 무한하신 분을 지키려 애쓰며 헛수고했도다; /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의 부활을 숨기려 했으나, 오히려 그것을 명백히 드러내 버렸도다. / 너희 산헤드린은 얼마나 경솔한가! / 감출 수 없는 것을 왜 또다시 숨기려 하느냐? / 차라리 우리 말을 듣고 / 일어난 *모든* 일의 진실을 믿기로 결심하라: / 번개 같은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돌을 굴러 냈고, /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죽은 사람처럼 되었으니; / 분별 있는 향유를 바친 여인들에게 돌아서서 말하길: / “경비

병들이 죽은 듯 쓰러져 있고, / 봉인이 깨어졌으며 지옥이 텅 비어 있는 것을 보지 못하십니까?  
 ? / 지옥을 무력화시키시고 / 죽음의 독침을 부수신 분을, 어찌 죽은 자처럼 찾고 계십니까?  
 그러니 서둘러 사도들에게 가서 /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, 두려움 없이 외치십시오: / ‘진  
 실로 주님께서 부활하셨나니, / 그분은 큰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라!’

**영광송: 복음 시편.**

**그리고 이제, 제2음조:** 지극히 복되시도다, 동정녀 성모여, / 주님께서 당신에게서 육신을  
 입으심으로 지옥은 사로잡혔고, / 아담은 그곳에서 돌아왔으며, / 저주는 힘을 잃었고, / 하와  
 는 해방되었으며, 죽음은 무력화되었고 / 우리는 생명으로 충만해졌나이다. / 그러므로 찬양  
 하며 외치나이다: / “기쁘게 허락하신 그리스도 하느님, 찬미받으소서!”

**사제:** 우리에게 빛을 보여 주신 주님께 영광을!

**위대한 찬양.**

### 부활절 트로파리

오늘 이 날, 세상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! / 무덤에서 부활하신 분과 / 우리 생명의 주재  
 자를 찬양합니다. / 그분은 죽음으로 죽음을 멸하시고, / 우리에게 승리와 큰 자비를 주셨기 때  
 문입니다.

**그리고 축도.**

### 성찬례에서

### 복되도다, 8

십자가 위의 강도여, / 주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고, /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고백하  
 며 외치니: / “주여, 주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하소서!”

**마음이 청결한 이들은 복이 있나니, 그들이 하나님을 뵈겠음이라.**

십자가의 나무 위에서 / 우리 민족을 살리시고 / 나무를 통해 ~~내려~~저주를 없애신 분을, /  
 구세주이자 창조주로서 한 목소리로 찬양합니다.

**화평을 이루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,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다.**

그대의 죽음으로, 그리스도여, / 그대는 죽음의 권세를 멸하시고 / 태초부터 죽은 자들을  
~~그대~~와 함께 부활시키셨으니, / 그들은 참 하나님이시며 / 우리의 구세주이신 그대를 찬양하  
 도다.

**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,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.**

그리스도여, 당신의 무덤에 이르러 / 경건한 여인들이 생명의 주이신 당신을 찾아 / 향유를  
 바르려 하였더니, /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 외치며 말하되 / “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!”

너희는 나를 위하여 모욕을 당하고 쫓김을 당하며 온갖 불의한 말로 비방받을 때 복이 있도다.

그리스도여, 주님께서 두 명의 정죄받은 강도들 사이에 /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, / 그때 주님을 비방하던 한 사람은 / 정당한 심판을 받았고, / 주님을 고백한 다른 한 사람은 / 낙원에 들어갔나이다.

**기뻐하고 즐거워하라.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.**

사도들의 무리에 다가와, / 경건한 여인들이 외쳤나니: / “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도다! 그분을 주님이시며 창조주이신 분으로 / 경배합시다!”

**삼위일체께 영광을:** 삼위일체,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이시며, /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, / 성부, 성자, 성령이시여! / 참 하나님이시며 / 우리의 구세주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.

**그리고 지금, 성모송:** 기뻐하라, 생명이 깃든 하나님의 성전 / 그리고 누구도 통과할 수 없는 문이여! / 기뻐하라, 타지 않는 불꽃 같은 보좌여! / 기뻐하라, 임마누엘의 어머니여, / –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여!

### 프로키멘

주님,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리니 / 이 세대에서부터 영원토록.

**구절:** 주여, 나를 구원하소서. 의로운 자가 없나이다.

시편 11:8, 2A

### 할렐루야

**구절:** 주님, 저는 주님의 자비를 영원토록 노래하겠으며, 대대로 제 입으로 주님의 진리를 선포하리이다.

**구절:** 주께서 “자비는 영원히 굳게 세워지리라”고 말씀하셨으니, 하늘에서 주의 진리가 확고히 서리라.

시편 88:2, 3

## 제6음조

### 대저녁 기도 때

“주여, 내가 부르짖나이다”에 맞춰 10절의 스티히라를 부릅니다: 부활절 옥토이히 3개, 동방 4개, 미네이 3개. 성인을 기념할 때는 옥토이히 스티히라 4개를, 성인을 기념할 때는 6개를 부릅니다. 영광송: 미네이, 그리고 “이제”는 성모송 첫 번째, 해당 음조로.

### 부활절 스티히라

내 영혼을 어둠의 감옥에서 이끌어 내소서, / 내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소서.

지옥을 이기시고, / 십자가에 오르신 그리스도여, / 죽음의 어둠 속에 앉아 있던 자들을 주님과 함께 부활시키시려; / 죽은 자들 가운데서도 자유로우시며, / 주님의 빛으로부터 생명을 흘러내리시는, / 전능하신 구세주여,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!

의인들이 나를 기다릴 것이니, / 주께서 내게 보응하실 때까지.

오늘 이 날,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, /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으며, / 세상에 기쁨을 주셨으니, / 우리 모두가 *그분께* 찬송을 부르며 이렇게 말하리라: / “생명의 근원이시요, 접근할 수 없는 빛이시며, / 전능하신 구세주여,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!”

주님, 깊은 곳에서 주님께 부르짖나이다, / 주님, 내 목소리를 들어주소서.

주님, 주님께서 창조하신 온 피조물 가운데, / 우리 죄인들이 어디로 도망칠 수 있겠나이까? / 하늘로? *그러나* 주님께서 *그곳에* 거하시니. / 지옥으로? *그러나* 주님께서 죽음을 짓밟으셨으니. / 바다 깊은 곳으로? / 그곳에도 주님의 손길이 닿나이다, 주님. / 주님께 피신하며,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오니: / “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,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!”

### 동방 성가

주님의 귀가 / 나의 간구하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기를.

그리스도여,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며, / 주님의 부활을 노래하고 찬양하나이다; /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니, / 주님 외에는 다른 분을 알지 못하나이다.

주여, 주여, 주께서 죄악을 해아리신다면 누가 건딜 수 있겠나이까? / 주께는 용서가 있나이다.

항상 주님을 찬양하며, / 그분의 부활을 노래하오니, / 십자가를 건디시고, / 죽음으로 죽음을 멸하셨나이다.

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주님을 기다렸나이다, 주님, 내 영혼이 주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었나이다, / 내 영혼이 주님께 의지하였나이다.

주님의 능력에 영광을 돌리나이다! /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의 힘을 꺾으시고, /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, / 우리에게 생명과 썩지 않음을 주셨나이다.

**아침 파수 때부터 밤까지, 아침 파수 때부터 / 이스라엘이 주님을 의지하게 하소서.**

주님의 장사하심이, / 지옥의 쇠사슬을 부수고 끊어 버렸나이다; /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 하심/ 세상을 비추었나이다. / 주님, 주님께 영광을 돌리나이다!

**영광송: 미네아의 스티히라.**

**그리고 이제, 성모송:** 누가 주님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,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녀여? / 누가 주님으로부터의 동정녀 탄생을 노래하지 않겠습니까? / 이는 시간을 초월하여 아버지께로부터 빛나신 독생자이시니, / 그분께서 친히 순결하신 주님으로부터 나오셨으니, 형언할 수 없이 성육신하셨도다. / 그분은 본성상 하나님이며, / 우리를 위하여 본성상 사람이 되셨으나, / 두 인격으로 나뉘지 않으시고, / 두 개의 분리되지 않은 본성으로 인식되시나이다. / 성모님, 지극히 복되신 분이시여, / 그분께 우리 영혼의 자비를 간구하소서.

**입장. “기쁨의 빛.”**

### **프로키멘, 6음조**

주님께서 왕좌에 앉으셨으니, / 영광으로 옷 입으셨도다.

**절:** 주님께서 권능을 입으시고, 허리에 띠를 두르셨도다.

**절:** 그분께서 우주를 굳게 세우셨으니, 그것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.

**절:** 주님, 주님의 궁전에는 거룩함이 어울리나이다, 영원토록.

시편 92:1, 5B

**그 다음에는 ‘주님, 허락하소서’라는 간구 기도인 특별 기도문이 이어집니다.**

### **성가대석에서의 스티히라**

그리스도 구세주여, 주님의 부활을 / 천사들이 하늘에서 찬양하오니: / 땅에 있는 우리도 / 깨끗한 마음으로 /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소서.

**구절:** 주님께서 왕좌에 오르셨으니, / 영광으로 옷 입으셨도다.

놋쇠 문을 부수시고 / 지옥의 빗장을 깨뜨리시어,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, / 타락한 인류를 부활시키셨나이다. / 그러므로 우리도 노래로 외치나이다: / “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, 영광이 주께 있나이다!”

**성구:** 그분께서 우주를 굳게 세우셨으니, / 우주는 흔들리지 않으리라.

그리스도께서는, 옛 썩어짐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사, /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안치되셨나이다. / 향유를 지닌 여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그분을 찾으며, 통곡하며 외쳤나니: / “아아, 만물의 구세주여! / 어찌하여 무덤에 들어가시기를 허락하셨나이까? / 만일 주님께서 자발적으로 들어가셨다면, 어찌하여 주님을 흠쳐 갔나이까? / 어찌하여 주님을 옮겨 갔나이까? / 그리고 어떤 곳이 주님의 생명을 주는 몸을 감추었나이까? / 그러나 주님,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나타나시어, / 우리의 눈물 어린 통곡을 그치게 하소서.” / 그들이 울고 있을 때, 천사가 그들에게 외쳤다: / “울음을 그치고 사도들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알리시오, / 세상에 평화와 큰 자비를 베푸셨으니!”

**구절: 주님의 집에는 거룩함이 마땅하니, / 주님, 영원토록.**

자신의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여, / 죽음도 당신의 부활로 이기신 분이시여, / 당신은 셋째 날에 하나님으로서 영광 중에 부활하셨으니, / 세상에 영원한 생명과 / 큰 자비를 베푸시나이다.

**영광송: 미네아에 수록된 스티히라, 있는 경우. 없는 경우:**

**영광송, 그리고 지금, 성모송:** 나의 창조주이시며 구세주이신, 온전히 순결하신 분, / 그리스도 주님께서, / 당신의 태중에서 나오사, / 나, *인간*을 입으시고 / 아담을 옛 저주에서 해방시키셨나이다. / 그러므로 당신께, 온전히 순결하신 분, / 하느님의 어머니이자 참된 동정녀로서 / “기뻐하소서”를 천사와 함께 쉬지 않고 외칩니다: / “기뻐하소서, 여왕이시여, 보호자이시며, 피난처이시며, / 우리 영혼의 구원이시여!”

**그 다음: “이제 용서하소서:” ‘주님의 기도’ 뒤에 삼위일체 찬송:**

### 트로파리

천사들의 군대 – 주님의 관 곁에서, / 그것을 지키던 자들은 죽어 버렸고, / 마리아는 무덤에 서서 / 주님의 지극히 순결한 몸을 찾고 있었습니다. / 주님은 지옥을 비우시고, 그곳에서 아무런 고통도 받지 않으셨으며, / 생명을 주시는 동정녀를 만나셨습니다. /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,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!

**영광송, 그리고 지금, 성모송:** 복되신 분을 당신의 어머니로 삼으시고, / 당신은 자발적으로 고난을 받으러 오셨으며, / 아담을 찾고자 하시며 십자가 위에서 빛나시며, / 천사들에게 외치시기를: “나와 함께 기뻐하라, / 잃어버린 드라마를 찾았으니!” / 모든 것을 지혜롭게 마련하신 (우리 하나님), 주님께 영광을!

**같은 트로파르를 “하나님은 주님이시니:”**

아침 기도 때

“하나님은 주님이시니:”를 6음조로 부르고, 부활 트로파리를 두 번, 성모송을 한 번 부릅니다(대저녁기도 참조). 그 후 시편의 통상적인 낭송이 이어집니다.

세달렌 1편씩

무덤이 열리고 지옥이 울부짖을 때, / 마리아는 숨어 있던 사도들에게 외쳤다: / “나오라, 포도원 일꾼들이여, / 부활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라: /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니, 세상에 큰 자비를 베푸셨도다!”

**구절:** 일어나소서, 나의 주 하느님, 주의 손이 높이 들리시며, / 주의 가난한 자들을 끝까지 잊지 마소서!

시편 9:33

주님! 마리아 막달레나가 주님의 무덤 앞에 서서, / 울부짖으며 눈물을 흘리고, 주님을 정원사로 여겼다가 외쳤나이다: / “주께서 영원한 생명을 어디에 숨기셨나이까? /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을 어디에 두셨나이까? / 그분을 두려움으로부터 지키던 자들은 이미 죽었나이다. / 내 주님을 내게 돌려주시거나, / 아니면 나와 함께 외치소서: / ‘죽은 자들 가운데 계셨다가, /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신 분이시여, 영광이 주께 있나이다!’”

**영광이여, 지금도, 성모여:** 게데온이 *당신*의 잉태를 예고하고, / 다윗은 당신에게서 태어난 것을 전하오니, 성모여; / 이는 말씀이 비처럼 당신의 태중 양털 위에 내리셨고, / 씨 없이도 당신, 거룩한 땅이 세상에 구원을 / –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, 은총받으신 분이시여 – 자라나게 하셨나이다.

제2 절에 따른 세달렌

생명이 무덤에 누워 있었고, / 돌 위에 인장이 찍혀 있었나니; / *마치* 잠든 왕을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지키고 있는 *듯했으나*, / 그러나 보이지 않는 가운데 원수들을 무찌르시고, / 주님께서 부활하셨도다.

**구절:** 주님,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리니, / 주의 모든 기적을 선포하리이다.

시편 9:2

요나는 주님의 장사를 미리 예언하였고, / 시메온은 신성한 부활을 전하도다, 불멸의 주님. / 이는 마치 죽은 자처럼 무덤에 내려가셨으나 / 지옥의 문을 무너뜨리신 주님께서, / 썩음을 겪지 않으시고 주님으로서 부활하사, /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,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여, / 어둠 속에 있던 자들을 비추셨나이다.

**영광송, 그리고 지금, 성모송:** 동정녀 성모님! 당신의 아드님, /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/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,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께, /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 간구해 주소서.

그 후 ‘흠 없는 이들에 대한’ 트로파리와 소에크테니아.

**이파코이**

자발적이고 생명을 주는 당신의 죽음으로, 그리스도여, / 지옥의 문을 부수시고, 하나님으로  
서, / 우리에게 옛 낙원을 열어 주셨으며, /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, / 우리의 생명을 썩어짐에  
서 구원하셨습니다.

**성가. 안티폰 1**

하늘을 향해 내 눈을 들어, 주님, 말씀이시여; /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, / 내가 주님을 위해 살  
게 하소서.

우리 이 비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, / 주님, 말씀이시여, 주님께 합당한 그릇으로 삼  
아 주소서.

**영광송:** 성령께서는 모든 이의 구원의 근원이시니, / 그들 중 누구에게나 그분의 뜻에 따  
라 그분의 은총을 부어 주시면, / 그분을 곧 세상의 일에서 들어 올리시고, / 날개를 달아 주시  
며, 굳건하게 하시고, 높은 곳으로 이끌어 주십니다.

**그리고 지금:** 우리는 다시금 이를 되새깁니다.

**안티폰 2**

만일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지 않으셨다면, / 우리 중 그 누구도 원수와의 싸움을 견뎌  
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; / 이기는 자들은 이곳에서 승천하기 때문입니다.

그들의 이빨이 내 영혼을 새처럼 삼키지 않게 하소서, 말씀이시여. / 그러나 아아, 죄를 사  
랑하는 내가 / 어떻게 원수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는가?

**영광송:**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에게 신성함이 주어지며, / 은총과 지혜와 평화와 축복  
이 있나니; / 이는 그분의 행하심이 성부와 성자와 동등하시기 때문이니라.

**그리고 지금:** 우리는 이를 다시 되풀이합니다.

**안티폰 3**

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/ 원수들에게는 두려운 존재이며 모든 이에게는 놀라운 존재이  
니, / 이는 그들이 하늘을 우러러보기 때문이라.

그들의 의로운 손은, / 구세주이신 주님을 도우미로 삼아, / 불의에 빠지지 않습니다.

**영광송:** 성령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니, / 하늘의 군대들이 그분께 경배하며 / 땅 위에서 숨  
쉬는 모든 것과 함께 경배하도다.

**그리고 이제:** 우리는 다시 같은 말씀을 되풀이합니다.

## 프로키멘

주님, 당신의 능력을 펼치시고 /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.

**구절:** 이스라엘의 목자이시여, 요셉의 양 떼를 이끄시는 분이시여, 귀를 기울이소서. **시편 79:3B, 2A**

“숨 쉬는 모든 것이 주님을 찬양하리라.” 하고 주일 아침 복음서를 읽습니다.

## 복음 낭독 후의 주일 찬송

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으니, / 거룩하신 주 예수님께 경배합시다, / 유일하시고 죄 없으신 분께. / 주님의 십자가에 경배하오니, 그리스도여, / 주님의 거룩한 부활을 노래하며 찬양하오니, /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니, / 주님 외에는 다른 분을 알지 못하오니, / 주님의 이름을 부르나이다. / 오라, 모든 신자들아, /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배합시다, / 보라, 십자가를 통해 / 온 세상에 기쁨이 임하였나니. / 항상 주님을 찬양하며, / 그분의 부활을 노래합니다, /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겪으시고, / 죽음으로 죽음을 무찌르셨나니.

**시편 50편.**

**영광송:** 사도들의 기도로, 자비로우신 주님, 우리의 수많은 죄를 씻어 주소서.

**그리고 이제:** 성모 마리아의 기도로, 자비로우신 주님, 우리의 수많은 죄를 씻어 주소서.

**그 후, 제6음조:**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, 하느님, 주님의 크신 자비와 풍성한 은혜로 나의 죄악을 씻어 주소서.

**그리고 스티히라:** 예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으니, / 예언하신 대로, /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/ 큰 자비를 베푸셨도다.

**그리고 기도:** 하나님이니시여,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소서:

## 카논

**첫 번째 – 주일용 4음조, 두 번째 – 십자가 부활용 3음조, 세 번째 – 성모송 3음조 및 미네이 4음조. 성인을 기념하는 날에는 6음조로, 십자가 부활용 2음조 및 성모송 2음조를 사용합니다.**

**제1 캐논**

**이르모스:** 이스라엘이 마치 육지를 건듯 / 심연을 발자국으로 건너가며, / 핍박자 파라오가 물에 빠져 죽는 것을 보고 외쳤다: / “하나님께 승리의 찬송을 부르자!”

**후렴:** 주님, 주님의 거룩한 부활에 영광을 돌리나이다.

십자가에 두 팔을 벌리시고 / 주님은 아버지의 기뻐하심을 따라 모든 것을 이루셨나이다, 선하신 예수여. / 그러므로 승리의 찬송을 / 우리 모두 주님께 부르리이다.

두려움에 사로잡혀 마치 여종처럼, / 죽음은 명령에 순종하여, / 생명의 주인이신 당신께 다가오나이다. / 그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/ 끝없는 생명과 부활을 베풀어 주신 분이시여.

**성모송:** 당신의 창조주를 받아들이시어, / 그분께서 원하신 대로, / 씨 없는 당신의 태중에서 / 이성을 초월하여 성육신하신, 순결하신 분이시여, / 당신은 참으로 모든 피조물의 여주인이 되셨습니다.

### 제2 캐논

빌라도의 재판정에 자발적으로 / 부당한 고발을 받고 피고인으로서 서 계시며, / 불의한 자의 손에서 / 얼굴을 맞으시는 하나님, / 그분 앞에서는 땅과 / 하늘의 *피조물들*이 떨고 있나이다.

구세주이시여, 주께서는 지극히 깨끗하고 생명을 주는 십자가 위에서 / 신성한 두 팔을 펼치시고 / 주님을 알기 위해 / *주님께로* 민족들을 모으셨나이다, 주님, / 주님의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경배하는 자들이여.

**십자가의 성모 찬가:** 눈물의 강을 흘리며 서 계셨나니, / 구세주여, 당신의 십자가 곁에 서 계신 흠 없는 성모께서, / 그리스도여, 당신의 갈비뼈에서 *흘러나오는* 피방울을 보시며, / 당신의 비할 데 없는 자비를 찬양하시나이다.

### 제3 캐논

낙원의 나무에서 불순종의 열매를 맛보신 / 하와가 저주를 불러왔으나, /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없애셨나이다, 순결하신 분, / 축복의 시작이신 그리스도를 낳으심으로써.

신성한 광채의 진주이신 / 그리스도를 낳으신 분, / 나의 정욕의 어둠과 죄악의 소용돌이를 / 주님, 순결하신 분이시여, / 그분의 빛으로 흠여주소서.

만민의 소망이신, 당신 안에서 성육신하신 분을, / 야곱은 신비롭게 영적인 눈으로 예견하였으니, - / 당신의 중보로 우리를 구원하신 / 하나님을.

유다 지파의 왕들이 사라졌을 때, / 지극히 순결하신 분이시여, / 당신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인 분이 지도자로 나서시어 / 땅의 끝을 넘어 진실로 / 이제 왕좌에 오르셨습니다.

**그 후 미네아 전례서의 캐논에 나오는 트로파리와 규정에 따른 카타바시아.**

## 제3곡

### 제1 캐논

**이르모스:** 주님, 나의 하나님이시여, / 당신처럼 거룩하신 분은 없나이다. / 선택하신 주님, 당신께 충성하는 자들의 존엄을 높이시고, / 우리를 당신의 고백이라는 반석 위에 굳건히 세우셨나이다.

육신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을 뵈시자, / 온 피조물은 두려움에 휩싸여 무너져 내렸으나, /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분의 감싸 안는 손길에 / 굳건히 붙들려 있었습니다.

## 6번 성부

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멸망당한, / 숨을 거둔 비참한 죽음이 누워 있나니; / 이는 신성한 생명의 압박을 견디지 못해, / 강한 자도 죽임을 당하고, / 모든 이에게 부활이 주어지나니.

**성모송:** 순결하신 분이시여, 당신을 통한 신성한 탄생의 기적은 / 모든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오니; / 이는 당신이 초자연적으로 태중에서 하느님을 잉태하시고 / 낳으신 후에도 영원히 동정녀로 계시기 때문이요.

### 제2 캐논

무덤에 사흘 동안 머무르신 후, / 주님은 생명의 부활로 / 먼저 죽었던 자들을 살리셨으니, / 그들은 심판에서 해방되어 기쁨으로 환호하며: / “보라, 주님, 주님께서 구속하러 오셨나이다!”라고 외쳤나이다.

우리의 구세주이시여, 주님의 부활에 영광을 돌리나이다. / 주께서는 전능하신 분으로서 지옥과 부패와 죽음에서 / 우리를 구원하셨나이다. / 그리하여 우리도 찬송하며 외치나이다: / “주님, 사람을 사랑하시는 주님, 주님 외에는 거룩하신 분이 없나이다!”

**십자가의 성모송:** 주님께서 당신에게서 태어나신 아들이 / 창에 찔리는 것을 보셨을 때, / 지극히 거룩하시고 흠 없는 성모님, / 마음 깊이 아파하시며 공포에 질려 외치셨습니다: / “~~나~~아 이여, 불의한 백성이 / 주님께 무슨 보답을 했던 말이오!”

### 제3 캐논

변덕스럽고 죽을 운명의 내 육신을, / 당신의 태중에서, 온전하게 깨끗하신 성모님, / 선택하신 분께서 헤아릴 수 없이 받아들이시고 썩지 않게 하사, / 영원토록 당신과 하나로 결합하셨습니다.

동정녀여, 당신 안에서 성육신하시는 하느님을 보며, / 천사들의 무리는 경외심에 사로잡혔고, / ~~이제~~ 그들은 당신을 하느님의 어머니로서 / 그치지 않는 찬송으로 찬양합니다.

선지자 다니엘은 놀라워하였으니, / 당신을 영적인 산으로 보았기 때문이요, 성모여, / 그 산에서 사람의 손길없이 돌이 잘려 나와, / 악마들의 제단을 / 위력 있게 부수었나이다.

필멸자의 말도, 혀도 / 처녀이신 당신을 합당하게 찬양할 수 없나니; / 이는 당신, 지극히 순결하신 분으로부터, 생명의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/ 씨 없이 육신을 입으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.

## 제4편

### 제1 캐논

**이르모스:** “그리스도는 나의 힘, / 하나님이자 주님이시니,” / – 거룩한 교회가 경건히 노래하며, / 맑은 이성으로 선포하고, / 주님 안에서 기뻐합니다.

## 6번 성부

참된 생명의 나무가 꽃피었나이다, 그리스도여; / 십자가가 세워졌고 / 주님의 흠 없는 갈비뼈에서 흘러나온 피와 물로 적셔져 / 우리에게 생명을 싣기 주셨나이다.

뱀은 더 이상 거짓으로 / 나에게 신격화를 제안하지 않습니다; / 이는 인간 본성의 신성한 창조주이신 그리스도께서, / 이제 나에게 생명의 길을 / 방해받지 않고 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.

**성모송:** 참으로 형언할 수 없고 / 헤아릴 수 없이 신비로운 / 당신의 신성한 잉태, 성모여, /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이에게 / 영원히 동정녀이신 분!

### 제2 캐논

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를 경배하며 / 못들, 그리스도여, / 거룩한 창과 갈대, / 가시관을 경배하나이다. 이 모든 것 덕분에 / 우리는 파멸적인 지옥에서 구원받았나이다.

관(棺)은 당신을 받아들이었나이다, 구세주여, / 우리를 위해 자발적으로 죽으신 분이시여, / 그러나 결코 **당신**, 말씀이신 분을 붙잡아 둘 수는 없었나이다; / 이는 당신이 하나님으로서 부활하사, / 우리 인류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니이다.

**크레스토보고리치엔:** 하느님의 어머니이시며, 영원히 동정녀이시며, / 구세주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낳으신 분이시여! / 신앙으로 주님의 신성한 보호를 구하는 우리를 / 모든 고통과 고난에서 구해 주소서.

### 제3 캐논

우리는, 지극히 순결하시고 흠 없는 당신을 찬양하나이다, / 당신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가, / 경건히 찬양하며 외치나이다: / “복되시도다, 영원한 동정녀여, / 하느님을 낳으신 분이시여!”

처녀여, 주님은 세상의 어둠 속에 머무는 이들에게 / 육신을 통해 빛을 비추시는 / 감추어진 빛을 낳으셨나이다, 지극히 복되신 분이시여, /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이들에게 / 기쁨을 쏟아 부으셨나이다, 영원히 동정녀이시여.

은총이 꽃피고 율법은 끝났나니 / 주를 통해, 지극히 거룩하신 이여; / 이는 주, 순결하신 이가 주님을 낳으셨기 때문이니, / 우리에게 용서를 베푸시는, 영원히 동정녀이시여.

**낙원의**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써 / 나는 죽은 자가 되었으나, / 그러나 당신으로부터 나타난 생명나무가 / 나를 부활시키셨나이다, 지극히 순결하신 분이시여, / 그리고 나를 낙원의 기쁨을 상속받을 자로 삼으셨나이다.

## 제5편

### 캐논 1

**이르모스:** 당신의 신성한 빛으로, 선하신 분이시여, / 새벽부터 당신께로 향하는 영혼들을 / 사랑으로 비추소서, - 제가 기도하오니, - /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시여, / 죄의 어둠에서 / 당신께로 부르시는 당신을 알게 하소서.

이제 케루빔들이 내 앞에서 물러나고, / 불타는 칼이 나를 위해 뒤로 돌아서나이다, 주여, / 당신을 뵈고서,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분, / 강도에게 천국으로 가는 길을 열어 주신 분을.

이제 나는 /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, 그리스도 주님; / 주께서 크신 자비로 / 땅에서 잊혀진 나를 / 부활하심으로 썩지 않는 높이로 들어 올리셨기 때문입니다.

**성모송:** 주님을 성모로 진심으로 고백하는 자들을, / 구하소서, 세상의 선하신 여주인이시여, / 이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, / 참된 하느님의 어머니로서, 무적의 보호를 누리기 때문입니다.

## 제2 캐논

에덴의 나무 열매에 유혹되어, / 주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은 우리/ 조상은 썩어가는 운명에 빠졌나이다, 지극히 선하신 주님; /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를 통해 그를 다시 본래의 아름다움으로 높이 올리셨나이다, / 구세주이신 주님께서 아버지께 순종하심을 보이셨나이다.

선하신 주님의 죽음으로, / 죽음의 권세가 멸망되었고, / 우리에게 생명의 샘이 쏟아져 내렸으며, 불멸이 주어졌습니다. /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경배합니다, / 주님의 장사와 부활을, / 그것들로 주님은 하나님으로서 온 세상을 비추셨습니다.

**십자가의 성모송:** 하늘에 계시고 만물의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/ 온전하신 동정녀이신 당신의 태중에 불가사의하게 거하시어, / 하늘의 지극히 높으신 분이자 / 비물질적 군대 중 지극히 거룩하신 당신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. / 그러므로 이제 땅에 사는 우리는 / 당신을 복되신 분이 라 칭하나이다.

## 제3 캐논

순결함으로 환히 빛나시어, / 주님의 신성한 거처가 되신, 찬양받으실 분; / 이는 오직 당신만이 참으로 하나님의 어머니로 나타나셨으니, / 그분의 품에 아기처럼 안고 계셨기 때문입니다.

이해할 수 있는 아름다움을 지니신 / 그대의 가장 아름다운 영혼으로, / 그대는 신의 신부가 되셨으니, / 동정심으로 인치심을 받은 거룩하신 분이시며, / 순결의 광채로 세상을 장식하십니다.

당신을 맑고 순결한 하나님의 어머니로 분명히 고백하지 않는 / 불경한 자들의 무리가 울부짖게 하소서; / 이는 당신이 우리에게 신성한 빛의 문으로 나타나시어, / 죄악의 어둠을 몰아내셨기 때문입니다.

## 제6편

### 캐논 1

**이르모스:** 유생의 바다를 보며 / 유혹의 파도가 치솟는 것을, / 나는 주님의 고요한 항구로 피신하여 주님께 부르짖나이다: / “파멸에서 나의 생명을 건지소서, / 자비로우신 분이시여!”

못에 못 박히신 주님, / 우리를 향한 저주를 지워 주셨으며, / 갈비뼈에 창을 찔리시어, / 아담을 향한 죄의 기록을 찢어 버리시고, / 세상을 해방시키셨습니다.

속임수에 넘어간 아담은 / 지옥의 심연으로 떨어졌으나; / 그러나 본성상 하나님이시며 자비로 충만하신 주님은 / 그를 찾으러 내려오셔서 / 그분을 *당신의* 어깨에 메시고 / 당신과 함께 부활시키셨습니다.

**성모송:** 온전히 순결하신 여왕이시여, / 필멸자들에게 항해자이신 주님을 낳으신 분이시여, / 제 내면의 번덕스럽고 두려운 정열의 파도를 가라앉히시고, / 제 마음에 평온을 내려 주소서.

### 제2 캐논

그리스도를 죽이고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은 / 수많은 유대인들이었나니; / 옛날에 그들이 진리의 신비로운 광선이었던 / 선지자들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처럼, / 지금도 시기심에 사로잡혀 주님을 죽였으니, / 바로 그분께서 옛날에 그들이 선포했던 분이시라. / 그러나 우리를 위해 그분의 죽음은 생명이 되었습니다.

감히셨으나 붙잡히지 않으셨나이다, / 구세주여, 무덤 속에서; / 이는 말씀이시신 주께서 자발적으로 죽음을 맛보셨으나, / 불멸의 하나님으로서 부활하셨으며, / 하데스에 *갇혀 있던* 포로들을 주와 함께 부활시키시고, / 아내들에게 이전의 슬픔 대신 기쁨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.

**성모송:** “고난의 시간에, 사람들 앞에서 모욕당하고 비하된 / 당신의 육신의 모습이 드러났나이다; / 그러나 신성한 본성에 따라 / 당신은 다윗에게 완전한 아름다움으로 나타나셨나이다. / 그러나, 당신의 왕국의 지팡이로 원수들의 힘을 꺾으시고, / 오, 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이시여,” – 성모 마리아께서 외치시며, / – “무덤에서 부활하소서!”

### 제3 캐논

선지자들 중 위대한 모세는 / 이전에 주님을 성막과 상, / 등불과 *만나가 담긴* 그릇으로 *묘사하며*, /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육신을 / 동정녀 어머니이신 주님을 통해 비유적으로 나타내었습니다.

죽음은 무력해지며, / 오 주권자여, 당신의 태아를 만진 순간; / 썩어짐, 곧 아담의 심판도 사라지나니; / 이는 당신이 썩어짐에서 구원하시는 생명을 낳으셨기 때문이니, / 당신을 찬양하는 자들을.

## 6번 성부

율법은 힘을 잃고 그 그림자는 사라졌나니, / 당신의 태중에서 태어나신 하나님이자 구세주의 탄생이라는, / 이성과 생각을 초월한 은총이 내게 드러났을 때, / 끊임없이 찬양받는 동정녀여!

### 콘닥

생명의 근원이신 *그분의* 손길로 / 어둠의 심연에서 모든 죽은 자를 부활시키신, / 생명의 주님이신 그리스도 하느님께서는, / 인간 본성에 부활을 베푸셨으니, / 그분은 모든 이의 구세주이시며, 부활이시며 생명이시며 / 만물의 하느님이시니라!

**이코스:** 생명의 주님이시여, 당신의 십자가와 관을, / 우리 신실한 자들은 찬양하며 *당신께* 경배합니다; / 이는 당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지옥을 결박하셨고, / 죽은 자들을 *당신과* 함께 부활시키셨으며, / 지옥의 문을 부수시고, / 하나님으로서 죽음의 권세를 멸하셨기 때문입니다. / 그러므로 땅에서 태어난 우리는 사랑으로 주님을 찬양하오니 / – 부활하셔서 모든 것을 멸하는 원수의 힘을 없애시고, / 주님을 믿는 모든 이를 부활시키시고, / 뱀의 화살로부터 세상을 구원하시며, / 유일하신 전능자이시여, 우리를 원수의 유혹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시니. / 그러므로 우리는 경건하게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나이다, / 주님은 만물의 하느님이시니이다.

### 제7편

#### 캐논 1

**이르모스:** 천사가 경건한 소년들을 위해 / 이슬이 맺힌 화로를 마련하였고, / 칼데아인들을 태워버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/ 고문자를 다음과 같이 외치게 하였나니: / “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시여, 찬미받으소서!”

주님의 고난을 애도하며, / 해는 어둠으로 뒤덮였고, / 낮에도 온 땅에, 주님, / 빛이 어두워지며 외쳤나니: / “축복받으소서,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시여!”

지옥은 빛으로 환해졌으니 / 그리스도여, 주께서 내려오심으로써; / 그리고 조상께서는 기쁨으로 가득 차 나타나시어, / 황홀함에 환호하며 외치시니: / “축복받으소서,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시여!”

**성모 찬가:** 동정녀 어머니이신 당신을 통해, / 온 우주를 비추는 찬란한 빛이 떠올랐나이다; / 이는 당신이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느님을 낳으셨기 때문이니이다. / 온전하신 분이시여, 그분께 간구하소서, / 우리 신자들에게 위대한 자비를 내려 주시도록.

#### 제2 캐논

아, 전례 없는 사건이로다! / 파라오의 노예 생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이, / *자신의* 뜻대로 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어 / 죄의 멍에를 풀어 주셨도다. /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께 찬양하노니: / “구원자이신 하느님, 찬미받으소서!”

구세주이신 당신을 *골고다에서* / 불경한 악인들의 후손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, /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*지옥의* 낚시와 빛장을 부수신 분이시여, / 찬양하는 우리에게: / “구원자이신 하느님, 찬미받으소서!”

**성모송:** 옛 이브의 해방을 낳으시여, / 저주에서 아담을 구원하시는, 순결한 동정녀여. / 그러므로 우리는 천사들과 *함께* 당신과 당신의 아들을 / 찬양하며 부르짖나이다: / “구원자이신 하느님, 찬미받으소서!”

### 제3 캐논

세 청년을 태우지 않은 그 화로는, / 주님으로부터 *그리스도가* 태어나심을 예표하였나이다; / 이는 신성한 불이 주님을 태우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하시며, / 모든 이에게 이렇게 부르짖게 하셨나이다: / “축복받으소서,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!”

*땅* 끝의 백성들은 / 당신의 예언대로, 온전하신 어머니이신 당신을 ‘복되신 분’이라 부르며, / 당신의 찬란한 광채로 비추심을 받고 / 은총에 *이끌려* 노래하며 외칩니다: / “우리 조상들의 하느님이시여, 찬미받으소서!”

가장 적대적인 뱀이 / 그해로운 이빨을 내게 박았으나; / 그러나 당신의 아들께서, 성모님, 그 뱀을 분쇄하시고 / 내게 외칠 힘을 주셨나니: / “우리 조상들의 하느님, 찬미받으소서!”

*우리* 본성을 화해시키신 분이 되신 / 오직 하나님 안에서 복되신 분이시여: / 헤루비움들의 어깨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/ 그분의 품에 안고 계시는 주께서 외치시니: / “축복받으소서,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지요!”

## 제8편

### 카논 1

**이르모스:** 불꽃 속에서 주께서는 경건한 자들을 위해 이슬을 흘리셨고, / 의인의 제물을 물로 적셨나이다. / 이는 그리스도여, 주께서 *당신의* 뜻 하나로만 모든 것을 이루시기 때문이니이다. / 우리는 영원토록 주를 찬양하나이다.

유대 백성은, / 옛날에 선지자들을 죽였던 *자들이었으나*, / 이제 시기심 때문에 신을 죽이는 자들이 되어, / 십자가에 당신, 하나님의 말씀을 매달았으니, / 우리가 영원토록 찬양하는 분이시라.

하늘의 궁창을 떠나지 않으시고, / 지옥에 이르러, / 그리스도여, 주께서는 *주와 함께* 썩어가는 무덤에 누워 있던 모든 사람을 일으키셨으니, / 그들은 영원토록 주를 찬양하도다.

**성모송:** 빛이신 말씀, 곧 빛의 주님을 잉태하시고 / 말로 다 할 수 없이 그분을 낳으시여 영광을 받으셨나니, / 신성한 성령께서 당신 안에 거하셨기 때문이니이다, 동정녀여. /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토록 당신을 찬양하나이다.

제2 캐논

모든 것이 경외심에 사로잡혔으니, / 지극히 높으신 분이 자발적으로 땅에 오셔서 / 십자가와 장사로 지옥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/ 모든 이로 하여금 외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: / “처녀들아, 축복하라, 사제들아, 찬양하라, / 백성들아, 영원토록 찬양하라!”

지옥의 폭정이 그쳤고, / 이제부터 그 왕국은 멸망하였나니; / 이는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/ 만물의 주재이신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무너뜨리셨기 때문이라. / 소년들아, 축복하라, 사제들아, 찬양하라, / 백성들아, 영원토록 찬양하라.

오, 그리스도여, *당신*의 형언할 수 없는 인간 사랑과 / 표현할 수 없는 *은혜* / 이는 내가 지옥의 감옥에서 멸망해 가는 것을 보시고, / 당신은 고난을 겪으시며 *나*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. / 그러므로 우리는 당신을 찬양하며, 만물의 주님을 / 영원토록 찬양합니다.

제3 캐논

금으로 수놓은 옷—성령의 광채—로 / 당신의 아들이 당신을 여왕처럼 단장하시고, / 당신을 자신의 오른편에 모셨습니다, 지극히 순결하신 분이시여. / 우리는 그분을 영원토록 찬양합니다.

단 *하나*의 뜻으로 세상을 굳건히 세우신 분께서 / 당신의 지극히 순결한 태중에서 육신을 취하시어, / 위로부터 그것을 새롭게 창조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. / 우리는 그분을 영원토록 찬양합니다.

말씀을 나, 인간과 결합시키기 *위해* / 주님은 신성한 거처가 되셨나이다, 온전히 순결하신 분, / 동정녀의 광채로 뚜렷이 빛나시니. /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나이다.

금으로 빛나는 등불이 / 말로 다 할 수 없이 / 접근할 수 없는 빛, 모든 것을 자기 자신에 대한 깨달음으로 비추시는 분을 받아들이신 당신을 예표하셨습니다. / 그러므로 우리는 당신을, 순결하신 분을, 영원토록 찬양합니다.

그 다음,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님의 찬가를 부릅니다: “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나이다.”

제9편

카논 1

**이르모스:**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나니, / 천사들의 군대조차 감히 쳐다보지 못하는 그분을; / 그러나 당신을 통해, 온전히 순결하신 분이시여, / 육신을 입으신 말씀이 필멸자들에게 보이게 되었나이다. / 그분을 찬양하며, / 우리는 하늘의 군대들과 함께 / 당신을 찬미하나이다.

고통과는 무관하신 분이시여, 하나님의 말씀이시여, / 육신으로는 고통에 동참하셨으나, / 정육으로부터 사람을 해방시키시니, / 정육을 정복하신 우리 구세주이시여; / 오직 주님만이 정육이 없으시고 전능하시나이다.

죽음의 파멸을 받아들이시어, / 주님은 당신의 몸을 썩음에 휩싸이지 않게 보존하셨으며,  
/ 주님의 생명을 주시는 신성한 영혼은 / 음부에 버려지지 않았나이다, 주님; / 그러나 마치 잠  
에서 깨어나신 것처럼, / 주님은 우리를 주님과 함께 일으키셨나이다.

**삼위일체:** 하나님 *아버지와* 동등하신 아들을 / 우리 모든 필멸자들은 깨끗한 입술로 찬양하  
며 / 형언할 수 없고 지극히 영광스러운 / 성령의 능력을 경배하나이다; / 이는 오직 주님만이  
전능하시며, / 분리될 수 없는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입니다!

## 제2 캐논

비록 생명의 주님이시지만, 죽을 사람으로서 무덤에 내려가셨으나, / 지옥의 힘을 멸하셨  
나이다, 그리스도여, / 지옥이 삼켜 버린 죽은 자들을 *주님과* 함께 일으키시고, / 하나님으로서  
모든 이에게 부활을 베푸시니, / 믿음과 사랑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에게.

*모든* 피조물이 기뻐하며 백합꽃처럼 피어나기를; /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서 죽은 자들  
가운데서 부활하셨나니. / “이제 어디 있느냐, 죽음아, 네 독침은?” – 우리가 외치노라; – / “어  
디 있느냐, 지옥아, 네 승리는? / 우리의 존엄을 높이신 분이 너를 땅에 엎드리뜨리셨으니, / 얼  
마나 자비로우신가!”

**십자가의 성모송:** 모든 것을 지탱하시는 분을 품고 계신, 지극히 순결하신 여주인이시여; /  
그리고 미움받는 원수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을 / 갓난아기처럼 두 팔에 안고 계  
시며; / 악의 심연에서 우리를 높이 들어 올리신 분이 / 십자가 나무 위에 높이 들려오시는 것  
을 보시나이다.

## 제3 캐논

신성의 광채로 빛나는 별이, / 이제 야곱의 후손들 가운데 어둠 속에 머물러 있던 자들에게  
/ 당신을 통해, 지극히 순결하신 분, – 성육신하신 말씀이신 그리스도 하느님께서 떠오르셨습  
니다. / 그 빛으로 비추심을 받은 우리는, / 하늘의 군대들과 함께 / 당신을 찬양합니다.

주님의 힘과 은총으로 굳건해진 나는, / 진심을 다해 주님께 이 찬송을 바쳤나이다; / 그러  
나 이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, 순결하신 동정녀여, / 썩지 않는 보물창고에서 / 빛나는 은총으  
로 갱아 주시옵소서, / 하나님 안에서 복되신 분이시여.

동정녀이시여, 주님은 참으로 신성을 *위한* 직기가 되셨으니, / 그 위에서 말씀께서 육신의  
옷을 짜내시어, / 저를 신성한 형상으로 만드셨나이다; / 그 옷을 입으신 주님께서는, / 순수한  
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모든 이를 구원하셨나이다.

이제 죽은 자들에게 부활이 주어졌으니, / 헤아릴 수 없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/ 당신의 잉태  
를 통해, 온전하게 순결하신 성모여; / 이는 당신으로부터 육신을 입으신 생명이 모든 이에게  
빛을 비추셨고, / 죽음의 절망을 명백히 흠어 버리셨기 때문입니다.

**카타바시아 후 소에크테니아, 그 다음: “거룩하시도다, 우리 주 하느님:” 그리고 부활절 엑사포스티리온.**

**“찬양하라”에서 부활절 스티히라(8음조)를 부르고,**

**그들 가운데서 정해진 심판을 집행하시니, / 이 영광은 그분의 모든 성자들에게 있나이다**

주님, 주님의 십자가는 / 주님의 백성에게 생명과 부활이시니; / 그 십자가를 의지하여, / 부활하신 우리 하나님 주님을 / 우리는 찬양하며 노래하노니: “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!”

**그분의 성자들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, / 그분의 굳건한 권능 안에서 그분을 찬양하라**

주님의 장사하심, 주님, / 인류에게 낙원을 열어 주셨나이다; / 썩어짐에서 구원받은 우리는, / 부활하신 우리 하나님 주님을 / 찬양하며 노래하노라: “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!”

**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라, / 그분의 무수한 위엄을 찬양하라.**

성부와 성령과 함께, /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며, / 그분께 부르짖으리니: / “주님은 우리의 생명이시며 부활이시니, /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!”

**나팔 소리로 그분을 찬양하라, / 수금과 거문고로 그분을 찬양하라.**

제삼일에 주 그리스도여, / 기록된 대로 무덤에서 부활하시어, / 우리 조상을 주와 함께 일으키셨나이다. / 그러므로 인류가 주를 찬양하며 / 주의 부활을 노래하나이다.

**다른 스티히라, 동방식**

**팀파니와 합창으로 그분을 찬양하라, / 현악기와 오르간으로 그분을 찬양하라.**

주님, 위대하고 경외로운 / 주님의 부활의 신비여! / 주께서 무덤에서 나오신 것은, / 마치 신랑이 혼인 잔치장에서 나오듯, / 죽음으로 죽음을 멸하시고, / 아담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셨나이다. / 그러므로 하늘에서는 천사들이 기뻐하며, / 땅에서는 사람들이 찬양하나이다. / 우리를 향한 주님의 자비를,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시여.

**아름다운 소리의 킨발로 그분을 찬양하라, 울림 있는 킨발로 그분을 찬양하라. / 숨 쉬는 모든 것이 주님을 찬양하리라!**

오, 불의한 유대인들아! / 너희가 군인들에게 준 인장과 은전들은 / 어디에 있느냐? / 보물은 도둑맞은 것이 아니라, / 그분은 강하신 분이므로 부활하셨도다! / 너희는 스스로 수치를 당하였으니, / 영광의 주님이시며, / 고난을 당하시고 묻히셨다가 /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부인하였도다; / 그분께 경배합시다!

**일어나소서, 나의 주 하나님이시여, 주의 손이 높이 들리시며, / 끝까지 주의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소서!**

무덤이 봉인되어 있었는데, / 유대인들아, 너희는 어떻게 경비병들을 배치하고 봉인을 찍은 자들을 약탈해 버렸느냐? / 문이 잠겨 있었을 때, 왕께서 그 문을 통과하셨다! / 그분을 죽은

자로 여기든지, / 아니면 우리와 함께 노래하며 그분을 하나님으로 경배하든지: / “주님,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영광을 돌리나이다!”

**주님, 저는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겠나이다, / 주님의 모든 기적을 선포하겠나이다**

생명을 품은 주님의 무덤에 / 향유를 바르러 온 여인들이 울며 이르렀나이다, 주여, / 향유를 지니고 주님의 지극히 깨끗하신 몸을 기름으로 바르려 하였나이다. / 그러나 빛나는 천사가 돌 위에 앉아 / 그들에게 외치며 말하길: / “세상에 생명을 쏟아 부으신 분의 갈비뼈를 왜 애도하느냐? / 어찌하여 죽을 사람을 찾듯, 무덤 속에서 불멸의 분을 찾고 계십니까? / 차라리 서둘러 제자들에게 가서 / 그분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온 세상의 기쁨을 전하십시오!” / 그들에게도 우리에게도, 구세주여, 빛을 비추시고, / 용서와 큰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.

**영광송: 복음 시편.**

**그리고 지금, 제2음조:** 지극히 복되시도다, 동정녀 성모여, / 주께서 당신에게서 성육신하심으로 지옥이 사로잡혔고, / 아담이 그곳에서 돌아왔으며, / 저주가 힘을 잃었고, / 하와가 해방되었으며, 죽음이 무력화되었고 / 우리도 생명으로 충만해졌나이다. / 그러므로 찬양하며 외치나이다: / “기쁘게 허락하신 그리스도 하느님, 찬미받으소서!”

**사제:** 우리에게 빛을 보여 주신 주님께 영광을!

**위대한 찬양.**

### 부활절 트로파리

무덤에서 부활하사, 주님, 지옥의 쇠사슬을 끊으시고, / 죽음에 대한 심판을 무효화하시며, / 모든 이를 원수의 그물에서 구원하셨나이다; / 또한 주님의 사도들에게 나타나시어, / 그들을 전도하러 보내시고, / 그들을 통해 온 세상에 평화를 베푸셨나이다, / 유일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여.

**그리고 축도.**

### 성찬례에서

### 복되도다, 8절

나의 구주이신 하느님, / 주님의 왕국에 오실 때 / 나를 기억해 주시고, / 유일하신 인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여, 나를 구원하소서.

**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,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니라.**

나무로 인해 유혹받은 아담을, / 주께서는 십자가의 나무로 다시 구원하셨나니, / 마차/“주여, 주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하소서!”라고 부르짖던 강도처럼.

**화평을 이루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,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다.**

지옥의 문과 빗장을 부수시고, 생명의 주님이시여, / 주님, 구세주이시여, “주의 부활에 영광이 있나이다!”라고 외치던 모든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셨나이다.

**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,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.**

당신의 장사로 죽음을 이기시고, / 부활로 모든 이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하신 분이시여, / 자비로우신 주님, 저를 기억해 주소서.

**너희는 나를 위하여 모욕을 당하고 쫓김을 당하며 온갖 부당한 비방을 받을 때 복이 있다.**

무덤에 온 향유 여인들은, / 천사가 외치는 소리를 들었으니: / “모든 것을 비추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도다!”

**기뻐하고 즐거워하라.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.**

십자가 나무에 못 박히시고 / 세상을 미혹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/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찬양합시다.

**삼위일체께 영광을:** 성부와 성자를 찬양하며, / 성령께도 외치며: / “거룩하신 삼위일체여, 우리 영혼을 구원하소서!”

**이제, 성모여:** 마지막 날에 말로 다 할 수 없이 잉태하시고 / 당신의 창조주를 낳으신 분이시여! / 동정녀여, 당신을 찬양하는 자들을 구원하소서.

### 프로키멘

주님,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/ 당신의 유산을 축복하소서.

**절:** 주님, 제가 주님께 부르짖나이다. 나의 하나님이시여, 저를 외면하지 마시고 묵과하지 마소서.

시편 27:9, 1A

### 할렐루야

**구절:** 지극히 높으신 분의 도움으로 사는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게 되리라.

**구절:** 주님께 말하리라. “주님은 나의 보호자시요, 나의 피난처시며, 나의 하나님이시니, 나는 주님을 의지하리이다.”

시편 90:1, 2

## 제7음조

### 대저녁 기도 때

“주여, 내가 부르짖나이다”에 맞춰 10절의 스티히라를 부른다: 부활절 옥토이히 3개, 동방 4개, 미네이 3개. 성인을 기념할 때는 옥토이히 스티히라 4개를, 성인을 기릴 때는 6개를 부른다. 영광송: 미네이, 그리고 “지금도”: 첫 번째 성모송, 해당 음조.

### 부활절 스티히라

내 영혼을 어둠의 감옥에서 이끌어 내소서, / 내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소서.

오라, 주님을 기뻐합시다, / 죽음의 권세를 꺾으시고 / 인류를 비추신 주님을, / 무형의 존재들과 함께 외치며: / “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세주이신 주님, 주님께 영광을!”

의인들이 나를 기다리리니, / 주께서 내게 갚아 주실 때까지.

구세주여, 주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시고 / 우리를 위하여 장사되셨으나, / 하나님의 죽으심으로 죽음을 무력화시키셨나이다. / 그러므로 우리는 /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하나이다. / 주여, 영광이 주께 있나이다!

깊은 곳에서 주님께 부르짖나이다, 주님, / 주님, 내 목소리를 들으소서.

사도들은 창조주의 부활을 보고 놀라워하며, / 천사들의 찬양을 노래하되: / “이것이 곧 교회의 영광이요, 이것이 곧 왕국의 풍요로움이다. /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주님, 주님께 영광을!”

### 동방 성가

주님의 귀가 / 나의 간구하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기를.

비록 주님, 그리스도여, 주님께서 불의한 자들에게 붙잡히셨으나, /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 시니,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나이다; / 주님의 등을 채찍질하였음을, 나는 부인하지 않나이다; /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을, 나는 숨기지 않나이다; /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자랑하나이다, / 이는 주님의 죽음이 내게는 생명이기 때문이니라. / 전능하시고 사람을 사랑하시는 주님,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!

주여, 주여, 주께서 죄악을 따지신다면 누가 견딜 수 있겠나이까? / 주께는 용서가 있나이다.

다윗의 예언을 이루시며, / 그리스도께서는 시온에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셨으니, / 당신에 대해, 찬양받을 만한 분이시며 / 성부와 성령과 함께 끊임없이 영광받으시는 분임을 가르치셨으니, / 처음에는 말씀으로서 육신이 없으셨고, / 그 후에는 우리를 위하여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서 죽임을 당하셨으며, / 인류를 사랑하시는 분으로서 권능으로 부활하셨습니다.

**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을 기다렸나이다, 주님, 내 영혼이 주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었나이다, / 내 영혼이 주님께 의지하였나이다.**

그리스도여, 주께서 원하신 대로 음부에 내려가셨고, / 하나님이자 주님으로서 죽음을 이기셨으며, / 셋째 날에 부활하셨으니, / 음부와 썩어짐의 죄사슬에서 아담을 주와 함께 일으키시며, / 아담은 외치며 선포하되: / “주님의 부활에 영광을 돌리나이다, 유일한 인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여!”

**아침 경비 시간부터 밤까지, 아침 경비 시간부터 / 이스라엘이 주님을 의지하리로다.**

주님, 주님은 마치 잠든 이처럼 관에 안치되셨으나, / 셋째 날에 전능하신 분으로서 부활하셨으며, / 전능하신 분으로서 아담을 죽음의 썩음에서 일으키사 주님과 함께 부활시키셨나이다.

**영광송: 미네아의 스티히라.**

**그리고 이제, 성모여:** 주님의 어머니이신 성모님, 당신은 초자연적으로 어머니가 되셨으나, / 처녀로 남아 계셨으니, / 는 생각과 이성을 초월하는 일이며, / 당신을 통해 이루어진 탄생의 기적은 / 어떤 언어로도 다 표현할 수 없나이다. / 왜냐하면, 잉태가 얼마나 기이했는지, 순결하신 분이시여, / 탄생의 모습 또한 헤아릴 수 없으니, - /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는, / 자연의 법칙이 물러나기 때문입니다. /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당신을 하느님의 어머니로 공경하며, / 간절히 당신께 기도합니다: / “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 중보해 주소서!”

**입장. “기쁨의 빛:”**

### **프로키멘, 6음조**

주님께서 왕좌에 앉으셨으니, / 영광으로 옷 입으셨도다.

**절:** 주님께서 권능을 입으시고, 허리에 띠를 두르셨도다.

**절:** 그분께서 우주를 굳게 세우셨으니, 그것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.

**절:** 주님, 주님의 궁전에는 거룩함이 어울리나이다, 영원토록.

시편 92:1, 5b

**그 다음에는 ‘주님, 허락하소서’라는 간구 기도인 특별 기도문이 이어집니다.**

## 성가대에서 부르는 스티히라

세상의 구세주이시여, 주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나이다, / 그리고 주님의 육신과 함께 사람들을 부활시키셨나이다. / 주님, 주께 영광을 돌리나이다!

**절: 주님께서 왕좌에 앉으셨으니, / 영광으로 옷 입으셨도다.**

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만물을 비추신 분께 / 경배합시다; / 그분은 지옥의 지배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, /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/ 우리에게 생명과 큰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.

**구절: 그분은 우주를 굳건히 세우셨으니, 그것은 흔들리지 않으리라.**

지옥에 내려가신 그리스도여, 주께서는 죽음을 정복하셨으며 / 셋째 날 부활하사 우리를 주와 함께 일으키셨으니, / 주님의 전능하신 부활을 찬양하는 우리를, / 주님,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시여.

**구절: 주님, 주님의 집에는 영원한 거룩함이 마땅합니다.**

주님, 주님께서 마치 잠든 사람처럼 관 속에 누워 계실 때 보는 것이 참으로 두려웠나이다; / 그러나 셋째 날에 강하신 분으로서 부활하시어, / “주님의 부활에 영광을 돌리나이다, 유일하신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시여!”라고 외치던 아담을 주님과 함께 부활시키셨나이다.

**영광송: 미네아에 수록된 스티히라, 있는 경우. 없는 경우:**

**영광, 그리고 지금, 성모송:** 주님의 보호 아래 피신하여, 여왕이시여, / 땅에서 태어난 우리 모두는 주님께 부르짖나이다: / “성모님, 우리의 희망이시여, / 셀 수 없는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/ 우리 영혼을 구원하소서!”

**그 다음: “이제 보내 주시옵소서:” “주님의 기도” 뒤에 삼위일체 찬송**

## 트로파리

주께서는 당신의 십자가로 죽음을 꺾으시고, / 강도에게 천국을 열어 주셨으며, / 향유를 바치러 온 여인들의 울음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/ 당신의 사도들에게 선포하라고 명하셨으니, / 주 그리스도 하느님, 주께서 부활하셨음을, / 세상에 / 위대한 자비를 베푸시니.

**영광이여, 지금도, 성모여:** 우리 부활의 보물창고이시여, /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아, 만민에게 찬양받으시는 분이시여, / 죄의 구렁과 심연에서 우리를 건져 올리소서. / 이는 주께서 구원을 낚으심으로 죄에 빠진 자들을 구원하셨나니: / 그분의 탄생 전에도 동정녀이시며, 탄생 시에도 동정녀이시며, / 탄생 후에도 / 여전히 동정녀로 계시기 때문입니다.

**같은 트로파르를 “하나님은 주님이시니:”에서도 부릅니다.**

## 아침 기도 때

“하나님이시요 주님이시여:”를 7음조로 부르고, 부활 트로파리를 두 번, 성모송을 한 번 부릅니다(대저녁기도 참조). 그 후 시편의 통상적인 낭송을 진행합니다.

### 세달렌 1편씩

생명은 무덤에 잠들어 있었고, / 돌 위에 인장이 찍혀 있었도다; / 마치 잠든 왕을 지키듯 그리스도의 군대들이 지키고, / 천사들은 그분을 불멸의 하느님으로 찬양하였으며, / 여인들은 외쳤다: / “주님께서 부활하셨으니, 세상에 큰 자비를 베푸시도다!”

**구절: 일어나소서,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, 주의 손이 높이 들리시며, / 주의 가난한 자들을 끝까지 잊지 마소서!**

시편 9:33

삼일간의 장사를 통해 죽음을 이기시고 / 멸망한 인간을 생명의 부활로 / 다시 살리신,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하느님, / 영광을 받으소서!

**영광, 그리고 지금, 성모송:**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/ 부활하신 그리스도 하느님, /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멸하신 분을 위하여, / 끊임없이 기도하소서, 성모 동정녀여, /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도록.

### 제2절 세달렌

비록 무덤이 봉인되었으나, / 생명이신 주님, 주님은 무덤에서 빛을 발하셨나이다, 그리스도 하느님; / 그리고 문이 잠겨 있었을 때, / 모든 이의 부활이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나이다, / 그들을 통해 의로운 성령을 우리 안에 새롭게 하시며 / 주님의 크신 자비로 말미암아.

**구절: 주님,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리니, / 주의 모든 기적을 선포하리이다.**

시편 9:2

여인들이 관 앞으로 서둘러 갔으니, / 눈물을 흘리며 향유를 지니고, / 군인들이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지키고 있을 때, / 서로 말하기를: / “누가 우리를 위해 돌을 굴려 줄까? / 죽음을 이기신 위대한 의회의 천사가 부활하셨도다.” / 전능하신 주님, 주님께 영광을!

**영광이여, 지금 이 순간에도, 성모께:** 기뻐하소서, 은총 받으신 성모 동정녀여, / 인류의 피난처이자 보호자시여: / 주께서 당신을 통해 세상의 구세주가 육신을 입으셨나니; / 오직 당신만이 어머니이시며 동정녀시니, / 언제나 축복받으시고 찬양받으시는 분이시니이다. / 그리스도 하느님 앞에서 중보하소서 / 온 우주에 평화를 내려 주시도록.

**그 다음 ‘흠 없는 이들에 대한’ 트로파리와 작은 에크테니아.**

### 이파코이

우리의 형상을 취하시고 / 육신으로 십자가를 겪으신 분이시여! /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시여, 그리스도 하느님, / 당신의 부활로 나를 구원하소서.

**성가. 안티폰 1**

시온의 포로들을 방황에서 돌아오게 하신 주님, / 저 또한, 구세주여,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어, / 정육의 속박에서 구원하소서.

남풍이 불 때 슬픔을 뿌리는 자, - / 눈물 어린 금식, / - 그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니, / 그 단은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기르리라.

**영광:** 성령께서는 신성한 보물의 근원이시니: / 그분께로부터 지혜와 총명과 경외심이 나며; / 그분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권세가 있나이다.

**그리고 지금: 우리는 이를 다시 되풀이합니다.**

**안티폰 2**

주님께서 영혼의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, / 우리는 헛되이 수고할 뿐이니; / 그분 없이는 어떤 일도, 어떤 말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.

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성도들은, / 우리를 하느님을 위한 태종의 열매로 만들어 주시는 입양에 관한 아버지의 가르침을 가꾸어 나갑니다.

**영광:** 성령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존재하오니, / 그분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이며, 만물을 다스리시고, / 접근할 수 없는 빛이시며, 모든 이의 생명이시니라.

**그리고 지금: 우리는 이를 다시 되새깁니다.**

**안티폰 3**

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생명의 길을 찾아, / 이제와 영원토록 켜지 않는 영광과 함께 / 복된 자라 불릴 것입니다.

식탁 주위에서, 마치 가지처럼 자라난 자녀들을 보며, / 기뻐하고 즐거워하라, 목자들의 수장아, /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자여.

**영광송:** 성령 안에는 영적 은사의 심연, / 영광의 풍요, 심판의 깊은 심연이 있나니; / 영광으로 아버지께와 아드님께 동등하신 그분께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.

**그리고 지금: 우리는 다시금 이를 되풀이합니다.**

**프로키멘**

일어나소서,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, 주의 손이 높이 들리시며, / 주의 가난한 자들을 끝까지 잊지 마소서!

**절:** 주님,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리니, / 주의 모든 기적을 선포하리이다.

시편 9:33, 2

**“숨 쉬는 모든 것이 주님을 찬양하리라:” 하고 주일 아침 복음서를 읽습니다.**

## 복음서 후의 주일 찬송

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으니, / 거룩하신 주 예수님께 경배합시다, / 유일하시고 죄 없으신 분께. / 주님의 십자가에 경배하오니, 그리스도여, / 주님의 거룩한 부활을 노래하며 찬양하오니, /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니, / 주님 외에는 다른 분을 알지 못하며, / 주님의 이름을 부르나이다. / 오라, 모든 신자들아, /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배합시다, / 보라, 십자가를 통해 / 온 세상에 기쁨이 임하였나니. / 항상 주님을 찬양하며, / 그분의 부활을 노래합시다, /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겪으시고, / 죽음으로 죽음을 무찌르셨나니.

**시편 50편.**

**영광송:** 사도들의 기도로, 자비로우신 주님, / 우리의 수많은 죄를 씻어 주소서.

**그리고 이제:** 자비로우신 주님, 성모 마리아의 기도로 / 우리의 수많은 죄를 씻어 주소서.

**그 후, 6음조:**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, 하느님, / 주님의 크신 자비로, /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/ 나의 죄악을 씻어 주소서.

**그리고 스티히라:** 예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나니, / 예언하신 대로, /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/ 큰 자비를 베푸셨나이다.

**그리고 기도:** 하나님이니시여, 당신의 백성을 구원주소서:

## 카논

**첫 번째 – 주일용 4음조, 두 번째 – 십자가 부활용 3음조, 세 번째 – 성모송 3음조 및 미네이 4음조. 성인을 기념하는 날에는 6음조로, 십자가 부활용 2음조 및 성모송 2음조를 사용합니다.**

## 제1곡

**제1 캐논**

**이르모스:** 주님의 손짓으로 / 땅에 본래 있는 단단함이 변하여 / 이전에는 쉽게 흘러넘치던 / 물의 본성이 되었나이다, 주님; / 그러므로 마른 땅을 걸어서 건너간 이스라엘이 / 주님께 승리의 찬송을 부릅니다.

**후렴:** 주님, 주님의 거룩한 부활에 영광을 돌리나이다.

죽음의 폭정이 나무에 의해 정죄되었으니, / 주님, 주님께서 부당하게 / 사형 선고를 받으셨을 때; / 그러므로 주님을 이기지 못한 어둠의 군주는 / 마땅히 쫓겨났습니다.

지옥이 주님께 다가와 / 주님의 몸을 이빨로 씹어 부수려 했으나 / 힘이 미치지 못해 / 턱이 부서진 채로 *남았나니*; / 그러므로 구세주이신 주님께서서는 죽음의 고통을 깨뜨리시고 / 사흘 만에 부활하셨나이다.

**성모송:** 원조 어머니 이브의 고통은 끝났습니다; / 고통도 느끼지 않으시고, 당신은 동정녀로서 아들을 낳으셨으니; / 그러므로, 당신을 참으로 성모로 인정하며, / 우리 모두는 *당신*, 온전히 순결하신 분을 찬양합니다.

### 제2 캐논

생명을 주는 두 샘물을 / 구세주께서 십자가 위에서 / 찢리신 갈비뼈에서 우리를 위해 쏟아내셨나이다. / 그분께 찬양합니다. 그분은 영광을 받으셨나이다.

무덤에 안치되셨다가 / 셋째 날 부활하심으로써, / 그리스도께서는 죽을 운명의 자들에게 소망하던 썩지 않음을 베푸셨습니다. / 그분께 찬양합니다. 그분은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.

**성모 찬가:** 오직 당신만이 출산 후에도 동정녀로 나타나셨으니, / 이는 육신을 입으신 세상의 창조주를 낳으셨기 때문입니다. /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당신께 외칩니다. “기뻐하소서!”

### 제3 캐논

자비의 심연을 낳으신 동정녀여! / 내 영혼을 주님의 빛나는 광채로 비주소서, / 그리하여 내가 사랑으로 / 주님의 기적의 심연을 합당하게 찬양하게 하소서.

죄의 화살에 맞은 우리를 보시고, / 말씀께서 은인처럼 긍휼을 베푸셨나니; / 그러므로 지극히 신성하신 *그분*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/ 당신, 온전하신 분으로부터 *받으신* 육신과 결합하셨나이다.

인간의 썩어 없어질 운명의 본성은 / 죽음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으나, / 그러나 당신, 온전하신 분은 생명을 잉태하사, / 썩어 없어짐에서 그를 생명으로 이끌어 올리셨습니다.

**그 후 미네아 전례서의 캐논에 나오는 트로파리와 규정에 따른 카타바시아.**

## 제3곡

### 제1 캐논

**이르모스:** 태초에 하늘을 / 전능하신 당신의 말씀으로 굳건히 세우신 주님, 구세주여, / 그리고 전능하시고 신성한 성령으로 그 모든 군대를 세우신 분이시여! / 당신의 고백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/ 저를 굳건히 세워 주소서.

주님, 나무에 오르사 /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받으시는 자비로우신 구세주여, / 신자들에게 평화와 구원을 가져다주는 / 상처를 건디시니; / 이를 통해 우리 모두, 자비로우신 주님, / 주님의 아버지께 화해하게 하소서.

그대, 그리스도여, 나를 상처에서 구원하셨나이다, / 용이 내 영혼에 입힌 상처에서, / 그리고 빛을 내게 보여주셨나이다, / 예로부터 어둠과 썩음 속에 머물러 있던 나에게; / 이는 그대가 음부에 내려가셔서, / 십자가로 나를 *그대와* 함께 부활시키셨기 때문이니이다.

**성모 찬가:** 남편을 알지 못하신 당신의 어머니의 간구로, / 세상에 평화를 베풀어 주소서, 구세주여, / 그리고 왕에게 원수인 이방인들에 대한 승리를 허락하시고, / 당신의 형언할 수 없는 영광을 / 찬양하는 자들에게 그 영광을 누릴 자격을 주소서.

### 제2 캐논

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겪으시고 / 강도에게 낙원을 열어 주신 분이시여! / 은인이며 하나님이신 주님, / 나의 마음을 주님의 뜻에 굳게 세워 주소서, / 유일하신 인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여.

제삼일에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/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여! / 생명의 주님이시며 하나님이시여, / 나의 마음을 주님의 뜻에 굳게 세워 주소서, / 유일하신 인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여.

**성모송:** 씨 없이 하느님을 잉태하시고 / 이브를 저주에서 구원하신, / 동정녀 어머니 마리아여! / 당신 안에서 육신을 입으신 하느님께 간구하사 / 당신의 양떼를 구원해 주소서.

### 제3 캐논

에덴에서 기어 나온 용이, / 신격화되려는 욕망으로 나를 유혹하여 땅에 내동댕이쳤으나, / 본성상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분께서, / 불쌍히 여기사 나를 신격화하시며, / 당신의 태중에 들어오셔서, / 나와 같은 모습이 되셨나이다, 동정녀 어머니.

당신의 태중의 열매는 복되시나이다, / 동정녀 성모님, 모든 이의 기쁨이시여; / 이는 당신이 온 세상에 / 참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낳으셨으니, / 죄로 인한 슬픔을 쫓아내시는, 하느님의 신부이시니이다.

영원한 생명과 빛, /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동정녀여, /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낳으셨나니, / 아버지와 하느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오랜 원한을 / 주님의 은총에 대한 믿음과 고백으로 / 끊어내시나이다.

## 제4편

### 캐논 1

**이르모스:** 아버지의 품을 떠나지 않으시고 / 땅에 내려오신 그리스도 하느님! / 저는 주님의 섭리의 신비를 듣고 / 유일하신 인간을 사랑하시는 분을 찬양합니다.

타격을 받기 위해 당신의 등을 내어주시고, / 동정녀에게서 육신을 입으신 죄 없으신 주님, / 죄를 지은 종을 위해 고난을 당하시며, / 나의 죄악을 씻어 주십니다.

법정 앞에 서시어 / 율법을 어긴 재판관들 앞에서, / 피고인처럼 고발당하시고 / 헛된 손들로부터 얼굴에 매를 맞으시는 /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, / 이 땅의 의로운 재판관이시여.

**성모 찬가:** 참된 하느님의 어머니이시여, / 당신의 창조주이시며 아드님이신 분께 간구하소서, / 온전하신 분이시여, 저를 구원의 안식처인 / 그분의 영광스러운 뜻으로 인도하소서.

### 제2 캐논

죄를 알지 못하시면서도 / 주님, 죄를 위해 본래 아니셨던 모습이 되시어, / *우리* 모습을 취하시고, / 낯선 *본성*을 입으시어, / 세상을 구원하시고 / 폭군을 붙잡아 죽이시려 하셨습니다.

주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셨으며, / 조상 아담의 죄를 씻어내시고, / 조모에게 기쁨을 채워 주셨나이다, 주님; / 이는 주님께서 당신의 모든 기름부음 받은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셨기 때문입니다.

**성모송:**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시어 죽으시나, / 정신을 잃고 방황하던 아담을 다시 살리시니, / 죽음조차 주님의 권능을 두려워하였나이다; / 이는 모든 멸망한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음이니이다.

### 제3 캐논

하나님 앞에서 *모든* 피조물 중 *가장* 선택받고 아름다운 분으로 / 나타나신 분이시여, / 당신의 풍성한 빛의 광채로, 찬양받으실 분이시여, / 당신을 찬양하는 자들을 비추소서.

순결하신 분이시여, 주님은 죽을 운명의 자들에게 / 당신의 순결한 피로부터 성육신하신 / 많은 이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/ 사랑으로 당신을 찬양하고 / 노래하는 이들을 구원하시는, 동정녀 어머니이십니다.

이성적인 본성이 성사를 거행하오니, / 당신에게서 나오신 분, 모든 찬미를 받으시는 이여, / 당신의 잉태라는 형언할 수 없는 신비 속에 / 이제 봉헌된, 모든 복을 받으시는 이여.

## 제5편

### 캐논 1

**이르모스:** 불신자들에게는 어두운 밤이지만, / 신자들에게는 당신의 신성한 말씀의 기쁨 속에서 / 빛이 되시나이다, 그리스도여; / 그러므로 나는 새벽부터 당신께 나아가 / 당신의 신성을 찬양하나이다.

그리스도여, 주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며, / 얼굴에 가해지는 매질을 참아내시니, / 이는 주를 찬양하는 이들에게 자유를 가져다주나이다: / “새벽부터 주께로 나아가며 / 주의 신성을 찬양하나이다!”

그대의 신성한 능력으로, 그리스도여, /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 / 그대는 강자를 쓰러뜨리셨고, / 나를 죽음의 정복자로, 구세주여, / *그대*의 부활을 통해 드러내셨나이다.

**성모 찬가:** 주님을 낳으셨나이다, 순결하신 어머니여, / 당신으로부터 신성하게 성육신하신 분을, 찬양받으실 분이시여; / 이는 당신이 혼인의 침상을 알지 못하셨으나, /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입니다.

### 제2 캐논

주께서 불의한 자들 가운데 계셨을 때, / *굴고다에서 십자가에* 못 박히셨을 때, / *그때* 천체들은 숨어 버렸고 땅은 흔들렸으며, / 성전의 빛나는 *휘장이* 찢어지며, / 유대인들의 배교를 드러내셨습니다.

당신은 당신의 헤아릴 수 없는 신성의 힘으로 / 폭군의 모든 권세를 무너뜨리시고, / 당신의 부활로 죽은 자들을 일으키신 분을 / 우리는 찬송으로 찬양합니다.

**성모송:** 왕이시며 하느님이신 분의 어머니, / 온 세상에 찬양받는 성모님! / 믿음과 사랑으로 / 항상 찬송으로 당신을 찬양하는 이들에게 / 당신의 간구로 / 죄의 용서를 내려 주소서.

### 제3 캐논

야곱이 하늘로 뻗은 사다리를 보고, / 그 높이에 올라간 것을 보며, / 결혼을 알지 못하신 당신을 *그 속에서* 깨달았나이다; / 이는 당신을 통해 하느님께서 사람들에게 가까이 오셨기 때문이니, / 온전히 순결하신 여왕이시여.

영원한 구속을 / 당신을 통해, 동정녀여, 이제 얻었으니, / 우리는 간절히 당신께 외칩니다: “기뻐하라, 하느님의 신부여!” / 그리고 당신의 빛을 기뻐하며, 온전히 찬양받으시는 분이시여, / 찬송가 속에서 당신을 찬양합니다.

신랑께서는 오직 당신만을 찾으시여, / 가시덤불 속의 백합과 *같이*, 동정녀여, / 순결의 광채와 / 동정의 빛으로 빛나는, 온전히 흠 없는 분이시여, / *당신*을 신부로 택하셨습니다.

## 제6곡

### 카논 1

**이르모스:** 세상의 근심과 걱정 속에서 고통받는 자, / *나*를 따라다니는 죄들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자, / 영혼을 삼키는 짐승에게 내던져진 자, / 요나처럼 주께 부르짖나이다, 그리스도여: / “죽음을 부르는 심연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!”

지옥에 갇힌 자들과 / 기진맥진한 의인들의 영혼들이 / 주님을 기억하며, / 주님,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베풀어 주신 구원을 / 자비로우신 분으로서 *지하의 곳으로* 내려가셔서 /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.

당신의 생명이 깃든,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성전, / 고통으로 인해 무너져 내린 그 곳을, / 사도들의 무리는 다시 볼 수 있으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; / 그러나 기대를 뛰어넘어 부활하신 분께 경배한 후, / 곳곳에서 *그분*에 대해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.

**성모송:** 온전하신 분이시여, 당신으로부터 비롯된 헤아릴 수 없는 탄생의 모습, / 우리를 위해 오신, 동정녀이시며 하느님의 신부이신 분, / 누가 이 일을 말로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? / 하느님 말씀께서 당신과 형언할 수 없이 결합하사, / 당신을 통해 육신을 입으셨나이다.

### 제2 캐논

십자가에 자발적으로 오르신 구세주여, / 주께서는 원수의 힘을 제압하시고, / 선택하신 분이시여, / 죄의 기록장을 그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.

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구세주여, *당신의* 권능으로, / 당신은 인류를 *당신과* 함께 일으키시고, / 우리에게 생명과 썩지 않음을 베풀어 주셨으니, / 참으로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라.

**성모송:** 우리 하느님을, 성모님, / 말로 다 할 수 없이 낳으신 분이시여, / 당신을 찬양하는 자들이 / 환난에서 구원받도록 끊임없이 간구해 주소서, / 순결하신 영원한 동정녀여.

### 제3 캐논

율법과 예언자들의 예언은 / 당신에 대해, 순결하신 분이시여, / – 곧 온 피조물의 은인, / 당신을 믿음으로 찬양하는 이들에게 / 여러 번, 다양한 방식으로 은혜를 베푸신 분을 / 낳으실 분에 대해 / 분명히 예고하였습니다.

한때 살인자의 계략으로 / 신성한 낙원의 기쁨에서 쫓겨났던 원조 아담을, / 당신은 결혼을 알지 못한 채 다시 그곳으로 돌려보내셨으니, /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분을 낳으셨기 때문입니다.

신성한 뜻과 창조의 힘으로 / 무에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/ 당신의 태중에서 태어나셨나이다, 순결하신 이여, / 그리고 죽음의 어둠 속에 머물던 자들을 / 지극히 신성한 번개로 비추셨나이다.

## 콘닥

이제 더 이상 죽음의 권세가 사람들을 붙잡아 둘 수 없나니, /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사 그 힘을 분쇄하고 파괴하셨기 때문이라. / 지옥은 묵였고, 선지자들은 한목소리로 기뻐하며 말하노니: / “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 구세주가 나타나셨도다; / 부활을 위해 나오라, 신실한 자들아!”

**이코스:** 이날 지하의 지옥은 떨어졌으니, / 지옥과 죽음은 삼위일체의 한 분 앞에서; / 땅이 흔들렸고, 지옥의 문지기들은 / 주님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도다; / 그리고 모든 피조물은 선지자들과 함께 / 기뻐하며 승리의 찬가를 부르고 있나니 / 우리의 구속자이신 하나님께, / 이제 죽음의 권세를 멸하신 분께. / 우리는 승리의 합성을 지르며 외치리라 /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에게: / “*십자가의* 나무가 *구원*을 가져왔으니, / 신실한 자들아, 부활을 위해 나오라!”

제7곡

카논 1

**이르모스:** 소년들이 불타오르던 가마를 / 옛날에 이슬이 맺힌 것으로 드러내며, / 유일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외치기를: / “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며, 지극히 영광받으소서!”

나무로 인해 아담은 죽임을 당하였으니, / 자신의 뜻대로 불순종을 저질렀으나, / 그리스도를 순종함으로 그는 다시 창조되었도다; / 이는 나를 위하여 / 지극히 찬양받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이니라.

무덤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여, / 온 피조물이 주를 찬양하나이다; / 주께서는 음부에 *있던 자들에게* 생명을 주시고, / 죽은 자들에게는 부활을, 어둠 속에 *있던 자들에게*는 빛을 주셨나이다, / 오 지극히 영광받으신 분이시여!

**성모송:** 기뻐하라, 죽은 아담의 딸이여! / 기뻐하라, 유일하신 하느님의 신부여! / 기뻐하라, 썩어짐이 쫓겨났으니 / 주님을 잉태하신 너를 위하여; / 청하소서, 순결하신 이여, / 우리 모두의 구원을 위하여.

제2 캐논

십자가 나무 위에서 죄의 독침을 무디게 하시고 / 아담의 죄악을 기록하신 문서를 / 당신의 갈비뼈를 찢어 없애신 분이시여! / 찬미받으소서, 주님,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니시여.

갈비뼈에 찢리사 / 신성한 피의 방울로 땅을 정화하셨으니, / 우상 숭배의 광기로 더럽혀진 땅을! / 찬미받으소서, 주님,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니시여.

**성모송:** 해보다 먼저 *존재하셨던* 광채를 / 주님을 태중에 품으시고 세상에 낳으신 분이시여, / – 어둠에서 구원하시고 / ‘주님,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니시여, 찬미받으소서!’라고 외치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을 알게 하시는 그리스도이니시여!

제3 캐논

금실로 수놓은 화려한 / 예복을 입으신 당신을, / 당신의 창조주이시며 주님이신 분, / 조상들의 높이 찬양받는 / 하나님이자 지극히 영광받으신 분이 사랑하셨습니다.

옛날 이사야는 / *타오르는* 솥을 받아 / *오* 형상 속에서 당신의 아기, 동정녀여, / 조상들의 높이 찬양받는 하나님 / 그리고 지극히 영광받으신 분을 관상하며 정화되었나이다.

옛날에 그대 안에서 *그리스도가* 신성하게 태어나신 상징들을 바라보며, /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예언자들은 / 기쁨으로 찬양하며 외쳤나니: / “조상들의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며 / 지극히 영광받으소서!”

## 제8곡

### 캐논 1

**이르모스:** 시나이 산에서 불에 타지 않는 / 가시덤불을 통해 하느님을 드러내신 분은 / 말더듬고 어눌하게 말하던 모세에게; / 그리고 불 속의 세 소년에게 하느님의 열정을 / 흔들림 없는 찬양자로 보여주셨으니: / “모든 피조물아, 주님을 찬양하고 / 영원토록 찬양하라!”

세상을 위해 희생되신 지극히 순결하고 지혜로운 어린 양이시여, / 율법에 따라 바쳐지던 제사를 그치셨으니, /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죄에서 정결하게 하시고, / 끊임없이 외치시기를: / “모든 피조물아, 주님을 찬양하라 / 그리고 영원토록 높이라!”

이전에 썩지 않던 고난을 겪지 않았던, / 창조주께서 받아들이신 우리의 육신은, / 그분의 고난과 부활 이후 / 썩지 않는 것이 되었으며, / “모든 피조물아, 주님을 찬양하라 / 영원토록 높이라!”라고 외치는 죽을 운명의 자들을 새롭게 하십니다.

**성모 찬가:** 동정녀여, 당신의 순결과 / 흠 없는 완전함이 / 우주의 더러움과 가증함을 정화하셨나이다; / 그리고 온전히 순결하신 당신은 / 우리가 하느님과 화해하게 된 주역이 되셨나이다. /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당신을 찬미하며, 동정녀여, / 영원토록 찬양하리이다.

### 제2 캐논

자발적으로 고난을 겪으시고, / 자신의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, / 지옥의 세력을 멸하신 분을, / 사제들이여, 찬양하라, / 백성들이여, 영원토록 찬양하라!

죽음의 권세를 없애시고, / 무덤에서 영광 중에 부활하시며, / 인류를 구원하신 분을, / 사제들이여, 찬양하라, / 백성들이여, 영원토록 찬양하라!

**성모송:** 유일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영원하신 말씀이시여, / 마지막 때에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시여, / 옛 저주를 없애신 분이시니, / 사제들이여, 찬양하라, / 백성들이여, 영원토록 찬양하라!

### 제3 캐논

주님으로부터의 탄생의 광채로 / 주님은 우주를 비추셨나니, / 놀라운 방식으로, 하느님의 어머니여; / 참 하느님을 품에 안으셨으니, / 신자들을 비추시며, 끊임없이 외치는 자들: / “모든 피조물아, 주님을 찬양하라 / 그리고 영원토록 찬양하라!”

우리는 경건히 찬양하오니, 순결하신 분이시여, / 하나님을 품으신 당신의 자궁을, / 형언할 수 없이 성육신하시고 / 모든 신자들에게 하느님을 아는 빛을 주셨으니, / 끊임없이 외치는 이들: / “모든 피조물아, 주님을 찬양하라 / 그리고 영원토록 찬양하라!”

당신의 빛의 광채로 / 당신을 찬양하는 자들을 빛나는 자들로 만드소서, / 빛의 어머니, 순결하신 성모 마리아여; / 이는 당신이 빛의 성막으로 나타나셨으니, / 끊임없이 외치는 자들을 빛으로 비추시나이다: / “모든 피조물아, 주님을 찬양하라 / 그리고 영원토록 높이라!”

그 후,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님의 찬가를 부릅니다: “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나이다.”

## 제9편

### 카논 1

**이르모스:** 동정성을 잃지 않고 태중에 품으시고 / 전지전능하신 말씀께 육신을 주신, / 남편을 알지 못하신 어머니, 동정녀 성모님, / 담을 수 없는 분을 품으신 분, / 무한하신 창조주께서 거하시는 성소이신, / 당신을 우리가 찬양합니다.

그릇된 생각을 품은 자들아, 모두 잠잠하라, / 신성께 고통을 돌리는 자들아; / 영광의 주님을, 육신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, / 신성으로는 결코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신 분을, / 두 본성 안에서 하나이신 분으로, / 우리가 찬양하노라.

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아! / 그리스도의 무덤에 와서 확인하라, / 생명의 주님의 육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음을, / 우리가 기다리는 마지막 부활의 증거로서.

**삼위일체** 찬가: 삼위일체를 신들이 아니라 위격으로, / 그리고 단일성을 인격들이 아니라 신성으로 숭배하며, / 우리는 그분을 분열시키는 자들을 정죄하고, / 우리가 찬양하는 그분을 혼합하려 감히 시도하는 자들을 혼란에 빠뜨립니다.

### 제2 캐논

빛으로부터 나온 빛이신 그리스도, / 아버지의 영광을 비추시는 분, / 시간을 초월하여 빛나신 분, / 어둠 속에서 인간의 삶을 비추시고 / 우리를 쫓아오던 어둠을 쫓아내신 분. / 우리 신실한 자들은 그분을 끊임없이 찬양합니다.

육신의 고난과 신성의 능력을 / 그리스도 안에서 관상하며, / 하나의 복합적인 본성에 대해 현명하게 논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소서; / 이는 그분께서 사람으로서 죽으시되, / 만물의 창조주로서 부활하시기 때문입니다.

(“죽은 자들에게는 향유, 살아 계신 분께는 찬양, / 죽어가는 자들에게는 눈물, / 모든 이의 생명에게는 노래, 아내들아, 가져오라”, / 부활의 선구자가 외치며, /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였다.)

**성모송:** “주님 외에는 다른 신을 알지 못하나이다, / – 교회가 주님께 외치나이다, – / 불신하는 이방인 중에서 나를 주님의 신부로 택하신 분이시여!” / 그러니 자비로우신 분이시여, 말씀이시여, 주님을 낳으신 분의 중보에 따라 신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.

### 제3 캐논

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이 되신 / 주님, 영원히 동정녀이신 성모님, / 구세주를 태중에 품으시고, / 진리와 신성한 성령으로 구원하시며 / 그분을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자들을 구원하소서.

당신을 찬양하며, 당신의 조상 다윗은, 지극히 순결하신 분, / 당신을 신성한 성소의 성막이라 부르니, /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을 품으셨으니, / 아버지의 품에 앉아 계신 분이시라. / 우리 신실한 자들은 그분을 끊임없이 찬양하노라.

진실로 주님은, 동정녀여, / 모든 피조물 중 가장 높으신 분이 되셨으니, / 만물의 창조주를 육신으로 우리에게 낳으셨기 때문입니다. / 그러므로 주님은 유일한 주님의 어머니로서, / 태초부터 모든 이보다 우월하십니다.

**카타바시아 후 소에크테니아를 바치고, 이어서 “거룩하시도다, 우리 주 하느님:”과 부활절 엑사포스티라리움을 바친다.**

### **“찬양하라”에 부활절 스티히라, 8음조**

**그들 가운데서 정해진 심판을 집행하시니, / 이 영광은 그분의 모든 성자들에게 있나이다**

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으니, / 죽음의 족쇄를 끊으셨도다. / 땅아, 이 큰 기쁨을 선포하라; / 하늘들아,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라!

**그분의 성인들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, / 그분의 견고한 권능을 찬양하라.**

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, / 거룩하신 주 예수님께 경배합시다, / 유일하시고 죄 없으신 분께.

**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라, / 그분의 무수한 위엄을 따라 찬양하라.**

그리스도의 부활을 / 씬 없이 경배합시다; / 그분은 우리의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, - / 부활을 드러내신 거룩하신 주 예수님.

**나팔 소리로 그분을 찬양하라, / 수금과 비파로 그분을 찬양하라.**

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대해 /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보답하리요? / 우리를 위하여 - 사람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; / 타락한 본성 때문에 /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거하셨으니; / 배은망덕한 자들에게는 은인이 되시고, / 포로들에게는 해방자가 되시며, /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는 의의 태양이 되셨으니; / 십자가 위에서는 무정하시며; / 음부에서는 빛이시요, 죽음 속에서는 생명이시며; / 타락한 자들을 위하여 부활이 되셨도다. / 그분께 외치자: “우리 하나님, 영광이 주께 있나이다!”

### **다른 스티히라, 동방식**

**팀파니와 합창으로 그분을 찬양하라, / 현악기와 오르간으로 그분을 찬양하라.**

주님, 주께서는 지옥의 문을 부수시고, / 죽음의 권세를 주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없애셨으며, / 태초부터 어둠 속에서 잠들어 있던 죽은 자들을 / 주님의 신성하고 영광스러운 부활로 주님과 함께 일으키셨으니, / 만물의 왕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.

**아름다운 소리의 킴발로 그분을 찬양하라, 울림 있는 킴발로 그분을 찬양하라. / 숨 쉬는 모든 것이 주님을 찬양하리라!**

오라, 주님을 기뻐하며 / 그분의 부활을 즐거워하자; / 그분은 깨뜨릴 수 없는 지옥의 쇠사슬에서 / 죽은 자들을 그분과 함께 부활시키시고 / 하나님으로서 세상에 / 영원한 생명과 큰 자비를 베푸셨으니.

**일어나소서, 나의 주 하나님이시여, 주의 손이 높이 들리시며, / 주의 가난한 자들을 끝까지 잊지 마소서!**

빛나는 천사가 / 생명이 담긴 관의 돌 위에 앉아 / 향유를 바르러 온 여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며 말하되, / “주님께서 너희에게 예언하신 대로 부활하셨으니, / 그분의 제자들에게 전하라, / 그분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며, / 세상에 영원한 생명과 / 큰 자비를 베푸신다고!”

**주님, 저는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겠나이다, / 주님의 모든 기적을 선포하겠나이다**

왜 너희는 모퉁이의 머릿돌을 버렸느냐, / 불의한 유대인들이여? / 이것이 바로 그 돌이니, / 하나님께서 시온에 놓으신 돌, / 광야에서 바위에서 물을 솟아나게 하시고 / 그분의 갈비뼈에서 우리에게 불멸을 부어주신 분; / 이 돌은, 남자의 뜻 없이 동정녀의 산에서 깎아낸 돌, / – 하늘의 구름을 타고 /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옛날부터 계신 분께로 오실 / 인자이시며, / 그분의 왕국은 영원하도다.

**영광송: 복음 시편.**

**그리고 지금, 제2음조:** 지극히 복되시도다, 동정녀 성모여, / 주께서 당신에게서 성육신하심으로 지옥이 사로잡혔고, / 아담이 그곳에서 돌아왔으며, / 저주가 힘을 잃었고, / 하와가 해방되었으며, 죽음이 죽임을 당하였고 / 우리도 생명으로 충만해졌나이다. / 그러므로 찬양하며 외치나이다: / “기쁘게 허락하신 그리스도 하느님, 찬미받으소서!”

**사제:** 우리에게 빛을 보여 주신 주님께 영광을!

**위대한 찬양.**

### **부활절 트로파리**

오늘 이 날, 세상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! / 무덤에서 부활하신 분과 / 우리 생명의 주재자를 찬양합시다. / 그분은 죽음으로 죽음을 멸하시고, / 우리에게 승리와 큰 자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.

**그리고 축도.**

성찬례에서

복되도다, 8절

아름답고 맛있었던 / 나를 죽게 한 열매. / *그러나* 그리스도는 생명의 나무이시니, / 그 열매를 맛보면 나는 죽지 않고, / 강도와 함께 외치노라: / “주여, 나를 기억하소서, / 주의 나라에서!”

**마음이 청결한 이들은 복이 있나니,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.**

십자가에 높이 들려오신 자비로우신 주님, / 아담의 옛 죄의 기록을 지우시고 / 온 인류를 타락에서 구원하셨나이다. /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나이다, / 은혜의 주님!

**화평을 이루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,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다.**

자비로우신 그리스도여, 주께서는 십자가에 / 우리의 죄를 못 박으시고, / 주님의 죽음으로 죽음을 무력화시키시어, / 죽은 자들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셨나이다. /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/ 거룩한 부활을 경배하나이다.

**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,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.**

한때 뱀이 / 하와의 귀에 독을 쏟아 부었으나, / 그리스도는 십자가 나무 위에서 / 세상에 생명의 달콤함을 흘려주셨나이다. / 주여, / 주의 나라에서 우리를 기억하소서!

**사람들이 나를 위하여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온갖 부당한 말로 비방할 때, 너희는 복이 있도다.**

무덤에, 마치 죽을 사람처럼 / 누워 계셨나이다, 그리스도여, 만물의 생명이시여, / 지옥의 빗장을 부수시고; / 그리고 셋째 날 영광 중에 강하신 분으로 부활하사, 모든 이를 비추셨나이다. / 주님의 부활에 영광을!

**기뻐하고 즐거워하라.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.**

주님께서서는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, / 제자들에게 평화를 주시고 / 축복하시며 그들을 *전도하라* 보내시며 말씀하셨나니: / “모든 이를 내 왕국으로 이끌어 오라!”

**삼위일체께 영광을:** 빛이신 아버지, 빛이신 아들이시며 말씀이신 *분*, / 빛 *이신* 성령, / 그러나 세 분은 하나의 빛이시니; 이는 한 분 하나님이나 / 세 위격으로 계시며, 하나의 본성과 기원을 가지시고, / – 분리되지 않으시며, 합쳐지지 않으시며, 영원부터 존재하시는 분이시니라 .

**그리고 이제, 성모께:** 주님은 이 땅에서 태중에 / 성육신하신 아버지의 아들이자 말씀을 품으셨으니, / 그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, 성모여. /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통해 신성함을 얻은 자로서, / 동정녀 어머니께 외칩나이다: / “기뻐하라, 그리스도인들의 희망이시여!”

## 7번 성부

### 프로키멘

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, /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평화를 내려 주시리라.

**절:** 하나님의 아들들아, 주님께 드리라, 주님께 어린 숫양을 드리라.

시편 28:11, 1A

### 할렐루야

**구절:** 주님을 찬양하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이름을 노래하는 것이 복되도다.

**구절:** 이른 아침에 주의 자비를 선포하고, 밤마다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라.

시편 91:2, 3

## 제8음조

### 대저녁 기도 때

“주여, 내가 부르짖나이다”에 맞춰 10절의 스티히라를 부른다: 부활절 옥토이히 3개, 동방 4개, 미네이 3개. 성인을 기념할 때는 옥토이히 스티히라 4개를, 성인을 기념할 때는 6개를 부른다. 영광송: 미네이, 그리고 “지금도”: 첫 번째 성모송, 해당 음조.

### 부활절 스티히라

내 영혼을 어둠의 감옥에서 이끌어 내소서, / 그리하여 내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소서.

저녁 찬송과 / 지혜로운 예배를 / 주 그리스도께 드리오니, / 주께서 부활로 우리를 자비롭게 용서해 주셨나이다.

의인들이 나를 기다리리니, / 주께서 내게 보답하실 때까지.

주여, 주여! / 우리를 주님의 면전에서 물리치지 마시고, / 부활로 우리를 자비롭게 여겨 주소서.

깊은 곳에서 주님께 부르짖나이다, 주님, / 주님, 내 목소리를 들으소서.

기뻐하라, 거룩한 시온아, / 교회의 어머니여, 하느님의 거처여! / 이는 네가 부활을 통해 / 가장 먼저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다.

### 동방 성가

주님의 귀가 / 나의 간구하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기를.

세상 창조 이전에 /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신 말씀이시며, / 또한 마지막 때에 / 결혼을 알지 못하신 동정녀에게서 육신을 입으시고, /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죽음을 겪으셨으며, / 한때 죽임을 당했던 인류를 / 당신의 부활로 구원하셨습니다.

주여, 주여, 주께서 죄악을 살피신다면 누가 건딜 수 있겠나이까? / 주께는 용서가 있나이다.

주님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/ 우리는 찬양하나이다, 그리스도여, / 주께서 그 부활로 / 아담의 후손을 지옥의 지배에서 해방시키시고 / 하나님으로서 세상에 / 영원한 생명과 크신 자비를 베푸셨나이다.

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제가 주님을 기다렸나이다, 주님, 제 영혼이 주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었나이다, / 제 영혼이 주님께 의지하였나이다.

영광이 주께 있나이다, 구세주 그리스도여, /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, /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/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분이시여!

**아침 경비 시간부터 밤까지, 아침 경비 시간부터 / 이스라엘이 주님을 의지하게 하소서.**

주님,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찬양하며, / 전능하신 구세주이신 주님께 경배합니다. / 우리를 주님의 면전에서 물리치지 마시고, / 우리를 들으시고 주님의 부활로 구원하소서,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시여.

**영광송: 미네아의 스티히라.**

**그리고 이제, 성모 마리아여:** 하늘의 왕께서 / 사람을 사랑하심으로써 땅에 나타나시어 / 사람들 가운데 거하셨습니다; / 이는 순결한 동정녀에게서 육신을 취하시고 / 그분으로부터 이 육신을 지니고 태어나셨으나, / 그분은 유일한 아들로 계시며, / 본성상 이중적이시나 위격상으로는 그렇지 않으십니다. / 그러므로 그분을 참으로 / 완전한 신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시라고 선포하며, /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. / 결혼을 알지 못하신 어머니여, / 우리 영혼의 용서를 위해 그분께 간구하소서.

**입장. “기쁨의 빛:”**

### **프로키멘, 6음조**

주님께서 왕좌에 앉으셨으니, / 영광으로 옷 입으셨도다.

**절:** 주님께서 권능을 입으시고, 허리에 띠를 두르셨도다.

**절:** 그분께서 우주를 굳게 세우셨으니, 그것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.

**절:** 주님, 주님의 궁전에는 거룩함이 어울리나이다, 영원토록.

시편 92:1, 5B

**그 다음에는 ‘주님, 허락하소서’라는 간구 기도인 특별 기도문이 이어집니다.**

### **성가대에서 부르는 스티히리**

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, 주께서 십자가에 오르셨나이다; / 죽음을 맞이하신 불멸의 생명이시며, / 어둠 속에 있던 자들에게 참 빛이시며, / 타락한 자들에게 모든 이의 부활이시니이다. / 우리의 빛이시며 구세주이신 주님, 주께 영광을 돌리나이다!

**구절:** 주님께서 왕좌에 오르셨으니, / 영광으로 옷 입으셨도다.

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. / 그분은 영혼과 육신을 취하시고, / 그 고통들을 서로 나누셨으니: / 그때 지극히 순결한 영혼은 지옥으로 내려가 그곳을 정복하셨고, / 우리 영혼의 구원자이신 거룩한 육신은 / 무덤에서 썩음을 보지 않으셨습니다.

**구절:** 그분은 우주를 굳건히 세우셨으니, / 그것은 흔들리지 않으리라.

시편과 찬송으로 찬양하오니, 그리스도여, / 주님의 죽음에서 부활하심을, / 그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를 / 지옥의 지배에서 해방시키시고 / 하나님으로서 영원한 생명과 / 큰 자비를 베푸셨나이다.

**구절: 주님, 주님의 집에는 거룩함이 마땅하니, / 영원토록 그러하소서.**

오, 만물의 주님이시며 헤아릴 수 없으신 분, /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여! /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어, 주께서는 제게 무욕을 주셨나이다; / 장사를 치르시고 영광 중에 부활하시어, / 전능하신 손으로 아담을 *주와 함께* 부활시키셨나이다. / 셋째 날에 이루신 주님의 부활에 영광을 돌리나이다, / 이를 통해 주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/ 그리고 죄의 용서를 베풀어 주셨나이다, 유일하신 자비로우신 분이시여!

**영광송: 미네아에 수록된 스티히라, 있는 경우. 없는 경우:**

**영광, 그리고 지금, 성모송:** 혼인을 알지 못하신 동정녀여, / 육신으로 말로 다 할 수 없이 하느님을 잉태하신, / –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어머니이시여! / 당신의 종들의 간구를 들어 주소서, 흠 없는 분이시여, / 모든 이에게 죄의 정화를 베푸시는 분이시여; / 지금,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소, / 우리 모두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 주소서.

**이어서: “이제 주께서 용서하시니:” ‘주님의 기도’에 이어지는 삼위일체 찬송**

### 트로파리

자비로우신 주님, 높이 계셨던 곳에서 내려오사, / 우리를 정욕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/ 사흘 동안 무덤에 머무르시기를 기꺼이 허락하셨나이다, / – 우리의 생명이시며 부활이신 주님, 주님께 영광을 돌리나이다!

**영광, 그리고 지금, 성모송:** 우리를 위하여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시고 /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, / 죽음으로 죽음을 무너뜨리시고 / 하나님으로서 부활을 보이신 분, / 선하신 분이시여,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자들을 멸시하지 마소서; / 자비로우신 분이시여, 당신의 인간 사랑을 드러내소서, / 당신을 낳으신 성모 마리아를,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을 받아들이시고, / 우리 구세주이시여,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소서.

**같은 트로파르를 “하나님이시요 주님이시여:”에서도**

### 아침 기도 때

**“하나님이시요 주님이시여:”를 4음조로 부르고, 부활 트로파리를 두 번, 성모송을 한 번 부릅니다(대저녁기도 참조). 그 후 시편의 통상적인 낭송이 이어집니다.**

## 세달렌 1편씩

주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나니, 만물의 생명이시여, / 빛나는 천사가 여인들에게 선포하되: / “울음을 그치라! 사도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, / 노래하며 외치라, 그리스도 주님께서 부활하셨나니, / 하나님으로서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분이시라!”

**구절: 일어나소서, 나의 주 하나님이지여, 주의 손이 높이 들리시며, / 주의 가난한 자들을 끝까지 잊지 마소서!**

시편 9:33

진실로 무덤에서 부활하사, / 경건한 여인들에게 명하사 / 기록된 대로 사도들에게 부활을 선포하게 하셨나이다. / 베드로가 서둘러 무덤에 이르러 / 무덤 안에서 빛을 보고 놀라워하더니, / 그래서 그는 오직 수의만 보았으니, / 그 안에는 신성한 육신이 없었고, / 믿고 외쳤다. “영광이 주께 있나이다, 그리스도 하느님, / 주께서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나이다, 우리의 구세주여; / 주께서는 아버지의 광채이시니!”

**영광이여, 지금 이 순간에도, 성모님께:** 하늘의 문과 성궐, 지극히 거룩한 산, / 빛나는 구름을 찬양하리니, / 하늘의 사다리, 영적인 낙원, / 하와의 구원, 온 우주의 위대한 보물; / 이는 그분을 통해 세상의 구원이 이루어졌고 / 옛 죄들의 용서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. /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께 외칩니다: / “당신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 분께 간구하소서, / 경건하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/ 당신으로부터의 지극히 거룩한 탄생에 대한 / 죄 사함을 베풀어 주시기를.”

## 2번째 시편에 따른 세달렌

사람들이 구세주이신 당신의 무덤을 봉인하였으나, / 천사가 그 입구의 돌을 굴러 냈나이다. / 여인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을 보고 / 시온에 계신 당신의 제자들에게 직접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니, / 모든 이의 생명이신 당신이 부활하셨으며, / 죽음의 쇠사슬이 끊어졌나이다. / 주님, 영광을 받으소서!

**구절: 주님,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리니, / 주의 모든 기적을 선포하리이다.**

시편 9:2

장례용 향유를 가져온 여인들은, / 무덤에서 천사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: / “울음을 그치고 슬픔 대신 기쁨을 받으라; / 노래하며 외치라, 그리스도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니, / 하나님으로서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분이시라!”

**영광이여, 지금도, 성모 마리아여:** 온 피조물이 주님을 기뻐하오니, 은총받으신 분이시여: / 천사들의 무리와 인류가 모두 그러하오니. / 주님은 거룩하게 된 성전이자 영적인 낙원이시며, / 동정심의 영광이시니, 그분으로부터 하느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아기가 되셨으니 / – 모든 세기 이전에 계셨던 우리 하느님이시라. / 그분은 당신의 자궁을 보좌로 삼으셨고 / 당신의 태를 하늘보다 더 넓게 만드셨나이다. / 모든 피조물이 당신을 기뻐하나이다, 은총받으신 분이시여, / 영광을 당신께!

**그 다음 ‘흠 없는 이들에 대한’ 트로파리와 소에크테니아.**

**이파코이**

향유 여인들은 생명의 주님이 계신 무덤 앞에 나아가, /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불멸의 주님을 찾았고, / 천사로부터 기쁜 소식을 받아들여, / 사도들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알렸으니, / 세상에 큰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라.

**성가. 안티폰 1**

내 젊은 시절부터 원수가 나를 유혹하며, / 쾌락으로 나를 불태우나, / 그러나 주님을 의지 하오니, / 나는 그를 도망치게 하리이다.

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/ 뽀히기 전의 풀과 같이 되게 하소서; / 그리스도께서 고통스러운 타격으로 / 그들의 목을 베실 것이니이다.

**영광송:** 성령으로 모든 것이 살아나니, / 그분은 빛으로부터 나온 빛이시며, 위대하신 하나님이니시라. / 우리는 그분을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찬양하노라.

**그리고 지금:** 우리는 이를 다시 노래합니다.

**안티폰 2**

제 마음이 주님의 경외심으로 덮여 겸손하게 되게 하소서, / 그리하여 그 마음이 높이 치솟아도 / 자비로우신 주님으로부터 떠나지 않게 하소서.

주님을 희망으로 삼은 자는 / 주님께서 모든 것을 불과 고난으로 시험하실 때에도 /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.

**영광송:**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과 같은 모습이 된 모든 이는, / 가장 위대한 기적들을 관조하고 예언하며 행하며, / 세 위격 안에서 하나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리니; / 비록 신성이 삼위일체의 빛으로 빛나시나, / 그분은 유일하신 분이시니라.

**그리고 지금:** 우리는 다시금 이를 되새깁니다.

**안티폰 3**

주님, 제가 주님께 부르짖나이다; /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, 저를 부르짖는 자에게 귀를 기울이시며, / 저를 이곳에서 데려가시기 전에 저를 정결하게 하소서.

자신의 어머니인 땅으로 돌아가는 모든 이는, / 다시 돌아와 자신/이 살아온 삶에 따라 / 고통을 받거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.

**영광송:** 성령을 통해 – 삼위일체에 대한 신학: / 아버지는 시작이 없으시며, 그분으로부터 시간을 초월하여 아들이 태어나셨고, / 그분과 일치하시며 동등하신 성령께서, / 아버지와 함께 그분으로부터 빛을 발하셨다.

**그리고 지금:** 우리는 이를 다시 되새깁니다.

**안티폰 4**

보라, 형제들이 함께 사는 것만큼 / 이토록 아름답고 기쁜 일이 어디 있겠는가! / 이는 주님께서 / 그 안에서 영생을 약속하셨기 때문이다.

들판의 백합을 꾸미시는 분께서 / 자신의 옷차림에 /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명하십니다.

**영광송:** 성령께서 유일한 근원이 되시어, / 모든 것을 지탱하시며 세상에 보존하시니, / 그분은 참으로 성부와 성자와 본질적으로 하나이신 / 하나님이니라.

**그리고 지금: 우리는 이를 다시 되새깁니다.**

**프로키멘**

주님께서 영원토록 다스리시리니, / 시온아, 네 하나님은 대대로 다스리시리라.

**절:** 내 영혼아, 주님을 찬양하라. 내 평생 주님을 찬양하리라.

시편 145:10, 1-2A

**“숨 쉬는 모든 것이 주님을 찬양하라.” 하고 주일 아침 복음서를 읽습니다.**

**복음서 후 주일 찬송**

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으니, / 거룩하신 주 예수님께 경배합시다, / 유일하시고 죄 없으신 분께. / 주님의 십자가에 경배하오니, 그리스도여, / 주님의 거룩한 부활을 노래하며 찬양하오니, /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니, / 주님 외에는 다른 분을 알지 못하며, / 주님의 이름을 부르나이다. / 오라, 모든 신자들아, /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배합시다, / 보라, 십자가를 통해 / 온 세상에 기쁨이 임하였나니. / 항상 주님을 찬양하며, / 그분의 부활을 노래합시다, /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겪으시고, / 죽음으로 죽음을 무찌르셨나니.

**시편 50편.**

**영광송:** 사도들의 기도로, 자비로우신 주님, / 우리의 수많은 죄를 씻어 주소서.

**그리고 이제:** 자비로우신 주님, 성모 마리아의 기도로 / 우리의 수많은 죄를 씻어 주소서.

**그 후, 6음조:**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, 하느님, / 주님의 크신 자비와 /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/ 나의 죄악을 씻어 주소서.

**그리고 스티히라:** 예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나니, / 예언하신 대로, /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/ 큰 자비를 베푸셨나이다.

**그리고 기도:** 하나님이시여, 당신의 백성을 구원주소서:

**카논**

**첫 번째 – 주일용 4음조, 두 번째 – 십자가 부활용 3음조, 세 번째 – 성모송 3음조 및 미네이 4음조. 성인을 기념하는 날에는 6음조로, 십자가 부활용 2음조 및 성모송 2음조를 사용합니다.**

## 제1곡

### 제1 캐논

**이르모스:** 파라오의 전차 기수를 무너뜨리신 / 한때 기적을 행하신 모세의 지팡이여, / 십자가 모양의 일격으로 바다를 갈라놓으시고, / 도망치던 이스라엘 백성, 걸어서 여행하던 이들을 구원하셨으니, / 하느님께 찬송을 부르던 자들이다.

**후렴:** 주님, 주님의 거룩한 부활에 영광을 돌리나이다.

전능하신 그리스도의 신성 / 우리가 어떻게 놀라지 않겠는가, / 모든 신자들에게 고난을 통해 / 부정함과 썩지 않음을 부어 주시며, / 성도들의 갈비뼈에서 / 썩지 않음의 샘을 / 그리고 무덤에서 영생을 이끌어내시는 분이시니.

얼마나 아름다운 천사인가 / 오늘 이 아내들에게 나타났도다! / 그는 본성적으로 비물질적인 순결의 / 뚜렷한 표징을 지니고 / 그 모습으로 부활의 빛을 드러내며, / “주님께서 부활하셨도다!”라고 외치도다.

**성모송:** 대대로 당신에 대해 찬양하는 말이 전해지니, / 하나님의 말씀을 *당신의* 태중에 품으셨으나 / 여전히 순결함을 지키신 성모 동정녀여; /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당신을, /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의 *첫 번째* 수호자로 공경합니다.

### 제2 캐논

슬픔의 문이 열렸고, / 지옥의 문지기들은 전율하였으니, / 가장 깊은 *곳에서* / 높이 *계신* 분, / 모든 자연의 경계를 초월하신 분을 보았기 때문이다.

천사들의 대열은 경탄하였으니, / *이전에* 땅의 깊은 곳에 갇혀 있던 /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/ 아버지의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.

**성모 찬가:** 천사들과 필멸자들의 무리들이 / 혼인하지 않으신 어머니이신 당신을 / 끊임없이 찬양하나이다; / 이는 당신이 그들의 창조주를 / 갓난아기처럼 / 당신의 품에 안고 계셨기 때문이니이다.

### 제3 캐논

지극히 순결하신 성모님, / 육신을 입으신 영원하시고 지극히 신성한 말씀 / 초자연적으로 낳으신 분이시여! / 우리는 당신을 찬양합니다.

그대, 그리스도여, - 생명을 주는 포도송이시여, / 온 세상의 구원의 달콤함을 흘러내리시는 분, / 동정녀께서 낳으셨습니다.

아담의 후손들은, 성모님, 당신을 통해 / 이성을 초월하는 복락으로 이끌어 주시며, / 마땅히 당신을 찬양합니다.

**그 후, 미네아 전례서의 카논에 나오는 트로파리와 규정에 따른 카타바시아를 부릅니다.**

### 제3곡

#### 제1 캐논

**이르모스:** 태초에 하늘을 지혜롭게 굳게 세우시고 / 물 위에 땅을 기초로 삼으신 분이시여!  
/ 주님의 계명이라는 반석 위에, 그리스도여, 저를 굳게 세워 주소서, / 주님 외에는 거룩한 이  
가 없나니, / 유일하신 인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여.

죄를 맛본 죄로 정죄받은 아담을, / 그리스도여, 주님의 육신의 구원하는 고난이 의롭게 하  
셨나이다; / 이는 주님께서 친히 죽음의 시험을 받지 않으신 / 죄 없으신 분이시니이다.

부활의 빛을 밝히신 분은 / 어둠과 죽음의 그늘 속에 머물던 자들에게 / 나의 하나님 예수  
이시니, / 그분의 신성으로 강한 자를 묶으시고, / 그의 재산을 빼앗으셨나이다.

**성모송:** 케루빔과 세라핌보다 지극히 높으신 / 성모님이시여, / 오직 당신만이 당신의 태중  
에 / 무한하신 하나님을 모셨나이다, 흠 없는 분이시여. / 그러므로 우리 모든 신자들은 / 찬송  
속에서 당신을 복되신 분이라 부릅니다.

#### 제2 캐논

주님, *아담이* 이전에 당신의 계명에 불순종했을 때, / 나의 참된 창조주이신 *당신*을 / 추방  
하셨으나, / 그의 형상을 취하시고 순종을 가르치신 뒤, /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통해 당신께로  
이끌어 주셨습니다.

모든 것을 지혜로 미리 아신 주님, / 당신의 지혜로 지하의 *세계*를 창조하신 주님, / 하나님  
의 말씀이시여, *그곳으로* 내려가셔서 / 당신의 형상대로 *지음받은 자*를 부활시키시는 것을 거  
절하지 않으셨습니다.

**성모송:** 동정녀의 몸에 육신을 입으시고, 주님, / 사람들에게 당신을 드러내셨으니, / 당신이  
보이실 수 있는 한도 내에서, / 그리고 그녀를 참으로 성모이자 / 신실한 조력자로 드러내셨나  
이다, / 유일하신 인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여.

#### 제3 캐논

당신의 간구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소서, 온전히 깨끗하신 분이시여, / 끔찍한 재앙의 타격  
을 / *우리에게서* 물리쳐 주소서.

원조 어머니 이브의 잘못을 바로잡으심으로써 / 주님의 어머니이시여, / 온 세상의 생명의  
근원이신 분을 / 태중에 품으셨습니다.

전능하신 분이시여, 저를 힘으로 띠어 주소서, / 육신으로 참으로 하느님을 낳으신 분, / 곧  
성부이신 위격의 능력을 낳으신 분이시여.

### 제4편

#### 캐논 1

**이르모스:** 주님, 주님은 나의 요새이시며, / 주님은 나의 힘이시며, /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며, 나의 기쁨이시니, / 아버지의 품을 떠나지 않으시고 / 우리의 궁핍함을 찾아오셨나이다. / 그러므로 선지자 아바쿰과 함께 주께 외치나이다: / “주님의 능력에 영광을 돌리나이다,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시여!”

주님은 저를, *주님과* 원수 지내던 자를, / 깊이 사랑하셨습니다; / 주님은 놀라운 *방식으로* 자신을 낮추시고, / 자비로운 구세주여, 땅에 내려오셨으며, / 저의 극심한 건방짐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; / 그리고 주님의 형언할 수 없는 영광의 높이에 머무시면서도, / 이전에 멸시받던 *저를* 영화롭게 하셨습니다.

주님, 지금 누가 놀라지 않겠습니까, / 고통으로 인해 죽음은 소멸되고, / 십자가 앞에서 씩여가는 육신이 도망치며, / 지옥이 죽음으로 인해 그 부를 잃어버리는 것을 보며? / *0*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당신, 인간을 사랑하시는 분의 / 비범한 신성한 권능의 역사입니다!

**성모송:** 주님은 신자들에게 찬미받으시는 분이시며, 결혼을 알지 못하신 분이시니, / 주님은 중재자이시며, 그리스도인들의 피난처이자 성벽이자 안식처이시니; / 이는 온전하신 성모여, / 당신의 아드님께 간구를 드려 / 믿음과 사랑으로 주님을 / 순결한 성모로 인정하는 이들을 / 재난으로부터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.

## 제2 캐논

불의한 자들의 자손들이 / 십자가에 당신을 못 박았나이다,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시여; / *그러나* 당신은 자비로우신 분으로서, / 당신의 수난을 찬양하는 자들을 구원하셨나이다.

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, *주님과* 함께 / 하데스에 *있던* 모든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고 / 자비로우신 분으로서, /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는 이들에게 빛을 비추셨습니다.

**성모송:** 주님께서 태중에 품으셨던 하느님을, / 지극히 순결하신 마리아여, 간청하소서, / 주님께 그 죄의 용서를 구하는 이들에게 / 용서를 베풀어 주시도록.

## 제3 캐논

경작되지 않은 밭이시여 – 성모 마리아여, /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/ 생명의 이삭을 자라게 하신 분이시여, /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!

성모이신 당신, 온전히 순결하신 분, / 우리 모두, 깨달음을 얻은 자들은, 당신을 인정하오니; / 이는 당신이 태중에 품으셨던 / 진리의 태양, 영원히 동정녀이시니.

무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, / 죄 없으신 분이시여, / 그리고 주님을 낳으신 분의 중보로 / 주님의 세상을 평안하게 하소서, 하느님.

## 제5곡

### 캐논 1

**이르모스:** 왜 주님은 나를 / 주님의 얼굴에서 물리치셨나이까, 꺼지지 않는 빛이시여, / 그리고 낮선 어둠이 불행한 나를 덮었나이까? / 그러나 나를 돌이키시고 주님의 계명의 빛으로 / 나의 길을 인도하소서, 간구하오니.

구세주여, 주님의 고난이 시작되기 전 모욕을 당하실 때 / 주홍색 망토를 입으시고, / 태초의 인간의 수치스러운 나체를 가리셨으며, / 별거벗은 채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, / 그리스도여, 그분께서 그분의 몸에서 / 죽음의 옷을 벗기시기 위함이었습니다.

죽을 운명의 흠으로 이루어진 나의 타락한 본성을 / 주께서는 부활하심으로 다시 창조하시고, / 시들지 않게 하셨나이다, 그리스도여, / 마치 왕의 형상처럼 다시 나타내시여, / 썩지 않는 빛으로 빛나게 하셨나이다.

**성모 찬가:** 당신의 아드님께 대한 어머니의 담대함을 지니신, 모든 정결하심, / 친족 같은 보살핌으로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기를 간구하오니; /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신, 오직 당신만을 / 주님께 호의적인 화해의 매개자로 삼나이다.

## 제2 캐논

그대의 십자가의 힘으로 우리를 인도하소서, 그리스도여, / - 그 십자가를 위하여 우리가 그대께 엎드려 있나니, - / 그리고 그대의 평화를 우리에게 주소서,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시여.

이제 조타수처럼 / 우리의 삶을 인도하소서, 우리 하느님, /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는 우리를, / 그리고 평화를 우리에게 내려 주소서,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시여.

**성모송:** 청하소서, 순결하신 분이시여, 당신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인 분께, / 혼인하지 않으신 거룩한 마리아여, / 우리 신자들에게 큰 자비를 내려 주시도록.

## 제3 캐논

내 건딜 수 없는 정욕의 폭풍을 가라앉혀 주소서, / 태중에 하느님을 품으셨던 / - 우리의 인도자이시며 주님이신 분.

천사들의 무리와 필멸자들의 무리가 / 당신에게서 태어나신 그리스도를 경외하며, / 지극히 순결하신 성모님.

결혼을 알지 못하신 성모 마리아여! / 원수들의 희망을 헛된 것으로 만드시고 / 주님을 찬양하는 이들을 기쁘게 하소서.

## 제6편

### 카논 1

**이르모스:**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, 구세주여, - / 내 죄악이 많으니, - / 악의 깊은 구렁에서 나를 건져내소서, 간구하오니; /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, -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소서, /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지요!

악의 주범이 나무를 통해 나를 심히 짓밟았나이다; / 그러나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리스도여, 주께서 친히 / 그를 더욱 심하게 꺾으시고, /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, / 넘어진 자를 일으키셨나이다.

주께서는 무덤에서 부활하사 시온을 불쌍히 여기시고, / 옛 것을 새 것으로 만드시며, / 자비로우신 분으로서 당신의 신성한 피로, / 이제 그리스도여, 그곳에서 영원토록 다스리시나이다.

**성모송:** 우리가 무거운 죄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/ 당신의 간구로 말미암아, 하느님의 어머니이시며 순결하신 분이시여, / 그리고 우리가, 지극히 순결하신 분이시여, 신성한 빛을 얻게 하소서 / 당신을 통해 말로 다 할 수 없이 육신을 입으신 하느님의 아드님으로부터!

### 제2 캐논

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두 팔을 벌리시어, / 에덴에서 제멋대로 뻗었던 / 첫 사람의 손을 치유하시고, / 쓴 나무 뒤에서 / 담즙을 맛보셨나이다, 그리스도여, / 그리고 강하신 분으로서, / 주님의 수난을 찬양하는 자들을 구원하셨나이다.

죽음을 속량하신 분은 죽음을 맛보셨으니, / 옛 판결과 / 썩어 없어질 왕국을 멸망시키기 위함이셨나이다; / 음부에 머물러 있던 *자들에게* 나아가 *그들을* 부활시키시고, / 강하신 분으로서 / 그분의 부활을 찬양하는 자들을 구원하셨나이다.

**성모송:**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 주심을 그치지 마소서, /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 마리아여, / 주님은 신자들의 버팀목이시니, /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는 굳건해지며, / 사랑으로 주님을 / 그리고 주님을 통해 말로 다 할 수 없이 성육신하신 분을 찬양하나이다.

### 제3 캐논

우리는 신실한 자로서, / 당신을 하나님의 성전이자 성막, / 생명이 깃든 궁전, / 하늘의 문으로 선포하오니, 성모 마리아여.

우상들의 파괴자가 되신, 마치 하느님처럼, / 당신의 아기이시며 하느님의 신부이신 마리아여, / 성부와 성령과 함께 경배를 받으시나이다.

하느님의 말씀이 당신, 성모 마리아를 / 필멸자들에게 하늘의 사다리로 드러내셨으니, / 이는 당신을 통해 / 그 말씀이 우리에게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.

## 콘닥

무덤에서 부활하사,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고, / 아담을 부활시키셨으며, / 하와는 당신의 부활을 기뻐하며, / 세상의 끝자락까지 / 당신의 죽음에서 부활하심을 찬양하나이다, 자비로우신 분이시여.

**이코스:** 지옥의 왕궁을 무너뜨리시고 /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신,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여, / 주님은 향유를 지닌 여인들과 만나시여, / *그들에게* 슬픔 대신 기쁨을 주셨습니다. / 그리고 주님은 사도들에게 승리의 표징을 보이셨나이다, / 나의 구세주시요, 생명의 주님이시여, / 온 피조물을 비추셨나이다,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시여. / 그러므로 온 세상이 *함께* 기뻐하며 / 주님의 죽음에서 부활하심을 찬양하나이다, 자비로우신 분이시여.

## 제7편

## 캐논 1

**이르모스:** 하나님의 강림으로 / 바빌론에서 불이 한때 부끄러워하였나니; / 그러므로 용광로 속의 소년들은 기쁜 발걸음으로 / 마치 초원에서 춤추듯 노래하였나니: / “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지여, 찬송받으소서!”

영광스러운 낮추심, 신성한 풍요 / 주님의 가난하심, 그리스도여, /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목격한 천사들을 / 놀라게 하여, / 구원을 위해 믿음으로 외치게 하셨습니다: / “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지여, 찬미받으소서!”

주님의 신성한 강림으로 / 지하의 *곳들*이 빛으로 가득 찼고, / 이전에 *우리*를 쫓아오던 어둠이 쫓겨났습니다. / 그리하여 영원한 포로들이 부활하며 외쳤습니다: / “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지여, 찬미받으소서!”

**삼위일체 찬가:** 만물의 주이시나 오직 한 분, / 곧 독생자이신 아들의 아버지이신 주님을, / 정통 신학을 바탕으로 선포하며, / 주님으로부터 나오시는 유일한 참 성령을 인정하오니, / *그분*은 본성과 영원함에서 주님과 동등하시나이다.

## 제2 캐논

주님, 주님은 예언대로 / 온 우주 한가운데서 구원을 이루셨나이다; / 나무에 높이 달리신 주님은, *주님을 향해* / “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지여, 주님은 찬송받으시나이다!”라고 믿음으로 외치는 모든 이를 *주님께*로 부르셨나이다.

무덤에서 마치 잠에서 깨어나듯 부활하신 자비로우신 주님, / 주님은 모든 이를 썩어짐에서 구원하셨나이다; / 그리고 부활을 선포하는 사도들을 통해 / 온 피조물이 믿음 안에서 굳건해지나이다. /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, 찬미받으소서!

**성모 마리아:** 말씀을 낳으신 분과 동등한 권능을 지니시고, / 영원함과 능력에서 *그분과* 동등하시며, / 성모의 태중에서 / 성부와 성령의 뜻에 따라 창조되시나이다. /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이시여, 찬미받으소서!

### 제3 캐논

동정녀의 태중에서 성육신하시어, / 우리 구원을 위해 나타나셨나이다. /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어머니를 성모 마리아로 인정하며, / 감사하는 마음으로 외치나이다: / “우리 조상들의 하느님, 찬미받으소서!”

처녀여, 주님은 *마치* 가지처럼 / 예세이의 뿌리에서 싹트셨나이다, 지극히 복되신 분이시여, / 꽃을 피우고 구원의 열매를 맺으시며 / 주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이 외치는 대로: / “우리 조상들의 하느님, 찬미받으소서!”

모든 이에게 지혜와 신성한 힘을 충만히 내려 주소서, / 지극히 높으신 분의 위격이신 지혜이시여, / 성모 마리아의 *기도*를 통해, / 믿음으로 주님께 찬양하는 자들이 외치나이다: / “우리 조상들의 하느님, 찬미받으소서!”

## 제8곡

### 캐논 1

**이르모스:** 칼데아의 통치자가 /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을 위해 / 광란 속에서 일곱 번이나 용광로를 지폈으나, / 더 높은 권능으로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는, / 창조주이자 구원자에게 부르짖었나니: / “소년들이여, 축복하라. 제사장들이여, 찬양하라. / 백성들이여, 영원토록 찬양하라!”

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신성한 능력은 / 우리의 *구원을 이루시는 일에서* 신성하게 빛났나니; / 이는 그분께서 육신을 입고 모든 이를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맛보심으로써, / 지옥의 권세를 멸하셨기 때문이라. / 소년들이여, 끊임없이 그분을 축복하라, 사제들이여, 찬양하라, / 백성들이여, 영원토록 찬양하라!

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부활하셨고, 교만한 자는 쓰러졌으며, / 넘어지고 으스러진 자는 일으켜지셨으니, / 썩음이 쫓겨나고 썩지 않음이 꽃피었나니, / 이는 생명이 죽음을 삼켜 버렸음이라. / 청년들이여, 축복하라, 사제들이여, 찬양하라, / 백성들이여, 영원토록 찬양하라!

**삼위일체:** 삼중의 빛을 발하시는 신성, 하나의 광채로 빛나시며 / 하나이시나 세 위격으로 나타나시는 본성으로부터, - / 시작이 없으신 아버지, / 본성에 있어 *그분과* 동등하신 아버지의 말씀, / 그리고 *그분들과* 함께 다스리시며 동일한 본성을 지니신 성령, / - 청년들이여, 찬양하라, 사제들이여, 노래하라, / 백성들이여, 영원토록 찬양하라!

### 제2 캐논

나무 위에서 / 나, 벌거벗은 자에게 / 손을 뻗으시고, / 나를 *당신께*로 부르시어, / 당신의 아름다운 나체로 나를 따뜻하게 하시는 주님을, / 모든 피조물아, 축복하라, / 그리고 영원토록 그분을 찬양하라.

가장 깊은 지옥에서 / 타락했던 나를 들어 올리시고, / *그분의* 아버지의 높은 보좌 위에서 / 영광으로 높이 주신 주님을, / 모든 피조물아, 찬양하라, / 그리고 영원토록 그분을 높이 찬양하라.

**성모송:** 타락한 아담의 딸로 / 나타나신 동정녀여, / 그러나 나의 본성을 새롭게 하신 하느님의 어머니이시니, / *우리/와* 모든 피조물이 / 주님으로 찬양하며, / 영원토록 찬미하오니.

### 제3 캐논

우리에게 *겨냥된* 적들의 기만적이고 불타는 화살들을 / 꺼버리소서, /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토록 당신을 찬양하게 하소서, 순결하신 분이시여.

초자연적인 창조주이자 구세주이신, / – 말씀이신 하나님을 동정녀여, 그분을 낳으셨으니; /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토록 당신을 찬양합니다.

빛을 발하는, 황금처럼 찬란한 등불로 / 접근할 수 없는 빛이 당신 안에 거하시며, / 동정녀여, 당신을 영원토록 드러내셨습니다.

**그 후,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 마리아의 찬가를 부릅니다: “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나이다.”**

## 제9편

### 캐논 1

**이르모스:** 하늘은 그 일에 놀라 / 땅의 끝들은 경악하였으니, /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들에게 나타나셨고, / 당신의 자궁은 하늘보다 더 넓어졌나이다. / 그러므로 성모여, / 천사들과 인간들의 무리가 당신을 찬양하나이다.

신성하고 시작 없는 본성으로는 단순하셨으나, / 육신을 취하사 / 그것을 당신의 위격에 결합시키심으로써, 하나님의 말씀이시여, 복잡해지셨나이다; / 그리고 사람으로서 고난을 당하셨으나, / 하나님으로서 그 고난에 물들지 않으셨나이다. / 그러므로 우리는 두 본성 안에서 / 분리되지도 혼합되지도 않은 당신을 찬양하나이다.

신성한 본성에 따라 *당신의* 아버지를, / 그리고 본성에 따라 스스로 사람이 되신 분으로서, / 당신은 종들에게 내려오신 지극히 높으신 분을 하나님이라 부르셨나이다; / 무덤에서 부활하시, – 땅에서 은혜로 태어난 자들의 아버지이시며 / 본성에 따라 하나님이자 주님이심을 선포하시니, / 우리 모두는 그분과 함께 당신을 찬양하나이다.

**성모 찬가:** 오 동정녀여, 주님의 어머니로 나타나셨나이다, / 초자연적으로 육신으로 선택한 말씀, / 곧 모든 세기 이전에 아버지께서 선택한 분으로서 / 당신의 마음에서 쏟아내신 그분을 /

육신을 입으셨음에도 불구하고, / 우리는 그분을 모든 육체적 존재 중 가장 높으신 분으로 여깁니다.

### 제2 캐논

우리는 당신을, 하나님의 아들의 본성에 따라, / 성모의 태중에 잉태되시고 /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시며, / 십자가에 달리신 분으로 압니다; / 인간의 본성으로 고통받으셨으나, / 하나님으로서 그 고통과는 무관하게 계셨던 분이십니다.

어두운 어둠이 흩어졌으니, / 지옥에서 의의 태양이 떠올랐기 때문이라 - / 땅의 모든 끝을 비추시는 그리스도, / 신성의 빛으로 빛나시는 분, / - 하늘의 사람이시며 땅의 하나님이신 분, / 우리가 두 본성으로 찬양하는 그분.

강해지시고 번영하시며, / 다스리소서, 성모 마리아의 아들이시여, / 우리에게 적대하는 이스마엘족을 / 경건한 왕에게 복종시키시어, / 주님께 의지하는 그에게 무적의 무기로 삼으시어, / 창과 함께 십자가를 내려주소서.

### 제3 캐논

주님을 기억하는 일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으며, / 주님께 의지하는 이들에게 치유를 베풀어 주시며, / 경건하게 성모 마리아를 통해 / 주님을 고백하는 이들에게도 그러하십니다.

시편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며, 은총받으신 분이시여, / 쉬지 않고 “기뻐하라”는 인사를 드리오니, / 주님께서 모든 이에게 기쁨을 넘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.

성모님, 당신의 열매는 온전하게 자라나셨으니, / 그분께 참여하는 이들에게 멸망을 가져오지 않으시고, / 오히려 당신을 믿음으로 찬양하는 이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.

카타바시아 후 소에크테니아, 그 다음: “거룩하시도다, 우리 주 하느님:” 그리고 부활절 엑사포스티라리온.

### “찬양하라”에 부활절 스티히라, 8음조

그들 가운데서 정해진 심판을 집행하시니, / 이 영광은 그분의 모든 성자들에게 있나이다 .

주님, 비록 빌라도에게 심판을 받으시며 재판정에 서셨으나, / 아버지께서와 함께 앉아 계신 보좌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. /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, / 자비로우시고 인류를 사랑하시는 분으로서, 세상을 원수의 속박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.

그분의 거룩한 자들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, / 그분의 권능의 하늘에서 그분을 찬양하라.

주님, 마귀를 대적할 무기로 / 주님은 당신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나이다: / 원수는 두려워하며 떨고, / 그 힘을 감히 쳐다보지 못하나이다; /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죽음을 멸하셨나이다. /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장사와 부활을 경배하나이다.

**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라, / 그분의 위엄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을 찬양하라.**

주님, 비록 주님을 필멸자처럼 / 유대인의 무덤에 안치하셨으나, / 잠든 왕처럼 / 군인들이 주님을 지키었고, / 생명의 보물처럼 봉인으로 봉인하였나이다. /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사 우리 영혼에게 불멸을 주셨나이다.

**나팔 소리로 그분을 찬양하라, / 수금과 거문고로 그분을 찬양하라.**

주님, 부활을 선포하신 주님의 천사가 / 파수꾼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, / 여자들에게 외치며 말하기를: / “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산 이를 찾느냐? / 그분은 참 하나님으로서 부활하셨고, / 온 우주에 생명을 주셨다.”

### 다른 스티히라, 동방식

**팀파니와 합창으로 그분을 찬양하라, / 현악기와 오르간으로 그분을 찬양하라.**

주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으나, 신성하심에 있어서는 무정하시며, / 삼 일 동안 무덤에 머무르시기를 기꺼이 허락하셨으니, / 이는 우리를 원수의 속박에서 해방시키시고 / 불멸을 베풀어 우리를 소생시키시려 함이니, 그리스도 하나님이지요, / 당신의 부활로,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시여.

**아름다운 소리의 킨발로 그분을 찬양하라, 울림 있는 킨발로 그분을 찬양하라. / 숨 쉬는 모든 것이 주님을 찬양하리라!**

저는 경배하며, 찬양하며, 노래합니다, 그리스도여, / 무덤에서 일어나신 당신의 부활을, / 그로써 주님은 우리를 깨뜨릴 수 없는 지옥의 쇠사슬에서 해방시키시고 / 하나님으로서 세상에 / 영원한 생명과 위대한 자비를 베푸셨습니다.

**일어나소서, 나의 주 하나님이지요, 주의 손이 높이 들리시며, / 주의 가난한 자들을 끝까지 잊지 마소서!**

생명을 품은 주님의 무덤을 지키며, / 불의한 자들이 파수꾼들과 함께 그곳을 봉인하였으나, / 그러나 주님은 불멸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, /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.

**주님, 저는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겠나이다, / 주님의 모든 기적을 선포하겠나이다**

주님, 주님께서 지옥의 문에 이르러 그 문을 부수셨을 때, / 포로가 된 지옥은 이렇게 외쳤나니: / “땅 깊은 곳에 갇혀/ 앉으시는 이분이 누구이시며, / 죽음의 감옥 자체를 장막처럼 찢어 버리신 분이시니? / 나는 그분을 필멸자로 받아들였으나, / 이제 그분 앞에서 마치 하나님 앞에서처럼 떨고 있노라.” / 전능하신 구세주여,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!

**영광송: 복음 시편.**

**그리고 이제, 제2음조:** 지극히 복되시도다, 성모 동정녀여, / 주께서 당신에게서 성육신하심으로 지옥이 사로잡혔고, / 아담이 그곳에서 돌아왔으며, / 저주가 힘을 잃었고, / 하와가 해방되었으며, 죽음이 죽임을 당하였고 / 우리도 생명으로 충만해졌나이다. / 그러므로 찬양하며 외치나이다: / “이같이 은혜를 베푸신 그리스도 하느님, 찬미받으소서!”

**사제:** 우리에게 빛을 보여 주신 주님께 영광을!

**위대한 찬양.**

**부활절 트로파리**

무덤에서 부활하사, 주님, 지옥의 쇠사슬을 끊으시고, / 죽음에 대한 심판을 무효화하시며, / 모든 이를 원수의 그물에서 구원하셨나이다; / 또한 주님의 사도들에게 나타나시어, / 그들을 전도하러 보내시고 / 그들을 통해 온 세상에 평화를 베푸셨나이다, / 유일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여.

**그리고 축도.**

**성찬례에서**

**복되도다, 8절**

세상의 구주이신 그리스도여,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를 기억하셨듯이 / 우리도 기억해 주시고, / 유일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여, /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천국을 누리게 하소서.

**마음이 청결한 이들은 복이 있나니,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.**

아담아, 귀를 기울이고 하와와 함께 기뻐하라: / 한때 너희 둘을 벌거벗게 하고 / 속임수로 우리를 포로처럼 사로잡았던 자가 /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그 힘을 잃었으니.

**화평을 이루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,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다.**

나무에 못 박히신 우리 구세주여, 주님의 뜻대로, / 나무를 통해 닥친 저주에서 아담을 구속하시고, / 자비로우신 분으로서 그에게 / 주님의 형상을 닮은 것과 / 낙원의 거처를 되돌려 주셨나이다.

**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,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.**

오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시어, / 모든 신자들에게 썩지 않음을 주시고, / 그분의 수난과 부활 후에 향유를 가져온 여인들에게 / 기쁨을 새롭게 하십니다.

**너희는 나를 위하여 모욕을 당하고 쫓김을 당하며 온갖 불의한 말로 비방받을 때 복이 있다.**

## 8번 성부

기뻐하라, 지혜로운 향유를 바친 여인들아, /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하고 / 사도들에게 전하여 / 온 세상이 구원에 부르심을 받았음을 알린 자들아!

**기뻐하고 즐거워하라.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.**

그리스도의 친구로 드러난 사도들이여, / 너희는 영광 중에 그분과 함께 보좌에 앉으리라. / 우리가 그분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, / 그분의 제자들로써, 중보해 주소서.

**영광이시여, 삼위일체이시여:** 시작이 없으신 삼위일체, 나뉘지 않는 본체이시여, / 영광에 있어 동등히 숭배받으시는 분들의 한 보좌에 함께 계신 일체이시여, / 모든 시작을 초월하시는 본성과 왕국이시여! / 주님을 믿음으로 찬양하는 자들을 구원하소서.

**그리고 이제, 성모께:** 기뻐하소서, 광대한 하느님의 거처여! / 기뻐하소서, 새 계약의 성령여! / 기뻐하소서, 금으로 도금된 그릇이여, / 그로부터 모든 이에게 하늘의 만나가 내려졌나이다!

## 프로키멘

기도하고 / 우리 주 하느님께 서원을 드리소서.

**구절:** 유대에서 하느님께서 알려지시니, 이스라엘에서 그분의 이름이 위대하시도다.

시편 75:12A, 2

## 할렐루야

**절:** 오라, 주님을 기뻐하며, 우리 구주이신 하느님께 환호하자.

**구절:** 찬양으로 그분 앞에 서둘러 나아가며, 시편으로 그분께 외치자.

시편 94:1, 2

## 주일 엑사포스티라리 그리고 복음서 아침 스티히라

복음서 아침 스티히르는 레오 현명 황제가 지은 것이며, 엑사포스티라리온은 그의 아들 콘스탄티노스 황제가 지은 것이다.

### 아침 복음 1

#### 엑사포스티라리 1

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산에 모이리니, /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뵈기 위함이라, / *그분께서*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셨음을 선포하시는 그분을; / *그분께서* 모든 민족을 / 성부, 성자,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가르치시는 것과, / *그분의* 신비에 참여시킨 이들과 함께 / *세상의* 끝까지 머무르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알게 되리라.

**성모송:** 성모 동정녀여,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뻐하셨나이다, /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/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셨기 때문이니이다. / *그분께서는*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지극한 *신비*를 가르치시고 계시하며, / 성부, 성자, 성령의 *이름으로 세례*를 베풀라고 명하셨으니, / 이는 우리가 *그분의* 부활을 믿고 / 동정녀이신 당신을 찬양하게 하려 하심이라.

#### 복음서 아침 스티히라, 1음조

제자들이 산에 올라갔을 때, /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땅 위에 나타나셨습니다. / 그리고 그들은 *그분께* 경배하고 / *그분께* 온 세상에 주어진 권세를 알게 된 후, / 온 세상에 나아가 / *그분의*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과 하늘로 승천하심을 선포하도록 보내졌습니다. / 거짓과 거리가 먼 그리스도 하느님 / 우리 영혼의 구세주께서는 / 그들과 영원토록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.

## 아침 복음 2

### 엑사포스틸라리온 2

돌이 굴러져 있는 것을 보고, / 향유를 가져온 여인들은 기뻐하였으니, / 이는 그들이 무덤 안에 앉아 계신 청년을 보았기 때문이요, / 그가 그들에게 전하기를: / “보라,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니,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에게 전하라: / 서둘러 갈릴리 산으로 가라, / 거기서 그분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시리니, / 그분께서 친히 친구들에게 예언하신 대로.”

**성모송:** 천사가 동정녀께 “기뻐하라”고 인사드렸나니 / 그리스도여, 주께서 잉태되시기 전이었고; / 또한 천사가 주님의 무덤에서 돌을 굴러 냈나이다. / 첫 번째는 슬픔 대신 /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의 징조를 드러내며, / 두 번째는 죽음 대신 / 생명의 주이신 주님을 찬양하며, / 주님을 찬미하고 부활을 선포하여 / 아내들과 주님의 신비에 참여된 이들에게 알렸습니다.

### 복음서 아침 스티히라, 2음조

마리아와 함께 있던 여인들에게, / 향료를 가지고 와서 / 소원을 이루는 방법을 알지 못해 당혹해하던 그들에게, / 치워진 돌과 / 그들의 혼의 혼란을 달래주시는 신성한 청년이 나타나시니; / “주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,” – 그가 말하길, – “/ 그러니 그분의 제자들인 전도자들에게 알리거니와, / 그들이 서둘러 갈릴리로 가서 /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분을, / 생명의 주님이시며 주님이신 그분을 보게 하라.”

## 아침 복음 3

### 엑사포스틸라리온 3

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/ 누구도 의심해서는 안 된다; / 그분은 마리아께 나타나셨고, / 그 후 마을로 가던 이들이 그분을 보았으며, / 다시는 신비의 비밀을 아는 이들에게, – / 누워 있던 열한 제자에게 나타나셨으니; / 그들을 보내 세례를 베풀게 하신 뒤, / 하늘로 승천하셨으니, 그곳에서 내려오신 분이시며, / 수많은 기적으로 그들의 설교를 확증하셨도다.

**성모송:** 오늘 무덤에서 떠오르신 태양이시여, / 신랑이 혼인 잔치장에서 나오듯, / 지옥을 사로잡으시고 죽음을 멸하신 분이시여! / 당신을 낳으신 분의 중보로, 우리에게 빛을 내려 주소서, / 마음과 영혼을 비추는 빛, / 모든 이로 하여금 / 당신의 계명의 길과 평화의 길로 걷게 하시는 빛이여.

복음서 아침 시편, 제3음조

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과 구세주의 나타나심을 전한 마리아 막달레나를 믿지 않았던 제자들은, / 무정함으로 인해 책망을 받았으나, / 표적과 기적들로 무장하여, / 전도하러 보내졌습니다. / 주님, 주께서는 빛의 근원이신 아버지께로 승천하셨고, / 제자들은 사방으로 말씀을 선포하며, / 기적들로 그 말씀을 입증하였습니다. / 그러므로 저희는 그들에게서 빛을 받아, /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나이다, / 사람을 사랑하시는 주님!

아침 복음 4

엑사포스티라리온 4

미덕으로 빛나시니, 생명의 무덤 안에서 / 찬란한 옷을 입은 이들이 / 향유를 가져온 여인들 앞에 얼굴을 땅에 숙이고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리니; / 하늘을 다스리시는 분의 부활을 확신하며, / 베드로와 함께 무덤 속의 생명으로 서둘러 나아가, / 이루어진 기적에 경탄하며, / 그리스도를 뵈기 위해 그곳에 머물리라.

**성모송:** “기뻐하라”고 외치시어, / 주님, 당신은 우리 조상들의 슬픔을 바꾸시고, / 그대신 당신의 부활에 대한 기쁨을 / 세상에 가져오셨습니다. / 그러니 생명의 주님이시여, / 당신을 태중에 품으신 분을 위하여, / 마음을 비추는 당신의 자비의 빛을 내려 주시어, / *우리*가 당신께 이렇게 부르짖게 하소서: / “인류를 사랑하시는 분, 신인이시여, / 당신의 부활에 영광을!”

복음서 아침 스티히라, 4음조

깊은 아침이었고, 아내들은 / 그리스도여, 주님의 관 앞으로 왔으나, / 그들이 간절히 찾던 주님의 몸을 찾지 못했습니다. / 그러자 그들이 의아해하고 있을 때, / 눈부신 옷을 입은 *천사들이 그들 앞에* 나타나 외쳤습니다. / “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산 이를 찾느냐? / 그분은 예언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. / 어찌하여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십니까?” / 그 말을 믿고, 그들은 본 것을 전했으나, / 그들의 기쁜 소식은 헛된 것으로 여겨졌으니, - / 제자들은 아직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. / 그러나 베드로는 *무덤으로* 달려가서, 그 광경을 보고는 / 마음속으로 주님의 기적을 찬양하였다.

아침 복음 5

엑사포스티라리온 5

생명과 길은 죽은 자 가운데서 *부활하신* 그리스도이시니, / 클레오파와 루카와 동행하셨고, / 엠마오에서 떡을 떼실 때 그들에게 알아보이셨다. / 그분께서 길에서 그들과 말씀하시며

/ 성경을 통해 그분이 겪으신 일을 설명해 주실 때, / 그들의 영혼과 마음이 타올랐다. / 그들과 함께 외치자: “그분은 부활하셨고 /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도다!”

**성모송:** 나의 창조주이시여, 주님의 헤아릴 수 없는 자비를 찬양하나이다; / 주님께서는 *하늘에서* 내려오시어 / 상한 인간의 본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를 낮추셨고; / 또한, 하느님 이시면서도 자비를 베푸사, / 순결한 하느님의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시어, / 저와 같아지시고 지옥까지 내려가시어, / 저를 구원하고자 하셨나이다, 말씀이시여, / 당신을 낳으신 분의 중보에 힘입어, / 자비로우신 주님.

### 복음서 아침 스티히라, 5음조

오, 그리스도여, 주님의 판단은 *얼마나* 지혜로우신지요! / 베드로에게 단 몇 장의 포대기만으로 / 주님의 부활을 깨닫게 하셨나이다! / 루카와 클레오파와 함께 여행하시며 대화하시고, / 대화하시면서도 당장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지는 않으셨습니다. / 그래서 *그들로부터* 당신은 책망을 받기도 하셨으니, / 당신이 예루살렘에 온 이들 중 한 분이여 / 그곳에서 일어날 일들에 무관심하다는 것이었습니다. / 그러나 피조물을 위해 모든 것을 마련하시는 주님께서는, / 주님께 관한 예언들도 밝혀 주셨으며, / 빵을 축복하실 때, / 그 이전부터 주님을 알기 위해 마음이 타오르던 이들에게 / 알아보이셨습니다. / 그들은 모인 제자들에게 이미 주님의 부활을 / 분명히 선포하였으니, 그 부활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.

### 아침 복음 6

#### 엑사포스티라리온 6

구세주이시여, 주님께서 본성상 인간이심을 보여 주시며, / 무덤에서 부활하신 후 *제자들*과 함께 음식을 드시고, / *그들* 가운데 서서 회개를 선포하도록 가르치셨으며, / 곧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승천하시고, / 제자들에게 위로자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. / 지극히 신성한 신인(神人)이시여, / 주님의 부활에 영광을!

**성모송:**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하나님이시여, 죽을 몸을 / 당신의 순결한 피로부터 취하셨나이다,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녀여, / 그리고 진실로, 타락한 *우리* 온 본성을 새롭게 하시고, / 출산 후에도 출산 전과 같이 *당신*을 동정녀로 보존하셨나이다. /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당신을 찬양하며 외칩니다: / “기뻐하소서, 세상의 여왕이시여!”

### 복음서 아침 찬송, 6음조

그대, 그리스도여, 참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평화이시니! / 부활 후 제자들에게 그대의 평화를 베풀어 주시며, / 그들을 두려움에 빠뜨리셨으니, 그들은 영을 보는 줄로 여겼도다; / 그러나 그대의 손과 발을 보여 주심으로 / *그들의* 마음의 동요를 가라앉히셨도다. / 그들

이 여전히 믿지 못하던 중, / 주님은 음식을 드시며 가르침을 상기시켜 주심으로써 / 그들에게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열어 주셨습니다. / 그리고 아버지께서 주신 약속을 그들에게 확증하시고 / 그들을 축복하신 뒤,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. /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과 함께 주님을 경배합니다. / 주님,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!

## 아침 복음 7

### 엑사포스티라리온 7

마리아가 주님께서 빼앗기셨다고 말하자, / 시몬 베드로와 / 그리스도의 비밀에 참여했던, 그분이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가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; / 두 사람이 함께 달려가 안을 보니 / 수의만 놓여 있었고, / *그분의* 머리에 씌웠던 수건은 그것들과 따로 놓여 있었습니다. / 그래서 그들은 다시 마음을 가라앉혔으나, /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그러했다.

**성모 찬가:** 나를 위하여 위대하고 전례 없는 일을 / 이루셨나이다, 자비로우신 나의 그리스도여; / 이는 동정녀에게서 설명할 수 없이 태어나시어, /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겪으시며, / 영광 중에 부활하사 우리의 본성을 죽음에서 해방하셨나이다. / 영광이여, 그리스도여, 주님의 영광이여, / 주님의 능력에 영광이여!

### 복음서 아침 스티히라, 7음조

보라, 어둠과 이른 아침이여. / 마리아여, 어찌하여 네 마음속에 깊은 어둠을 품고 / 무덤 곁에서 있는가? / 그 때문에 네가 예수를 어디에 모셨는지 찾고 있구나; / 그러나 함께 달려가는 제자들을 보아라, / 그들이 수의와 천을 통해 / 부활을 확신하고 / 그에 관한 성경 말씀을 떠올렸으니. / 그들과 함께 우리도, 그들을 통해 믿음을 얻어, / 생명의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노라.

## 아침 복음 8

### 엑사포스티라리온 8

무덤 안에서 두 천사를 보고 마리아는 놀라 /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, 마치 정원사인 양 *그분께* 물었다: / “선생님, 내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에 두셨습니까?” / 그러나 *그분의* 외침을 듣고 그분이 바로 구세주이심을 알아차린 마리아는, / “나를 만지지 마라, / 나는 아버지께로 가노니, - / *오* 일을 내 형제들에게 전하라!”는 말씀을 들었습니다.

**성모송:** 삼위일체 중 한 분을 말로 다 할 수 없이 낳으셨나이다, 동정녀여, / 본성으로는 이중이시며, 작용으로는 이중이시나, / 위격으로는 하나이신 분을. / 그러니 믿음으로 당신을 경

배하는 이들을 위해 항상 그분께 간구하소서, / 그들이 원수의 온갖 간계에서 벗어나게 하소서, / 우리 모두가 지금 당신께 피난처를 구하오니, / 주권자이신 성모 마리아여.

**복음서 아침 스티히라, 8음조**

마리아의 뜨거운 눈물은 / 헛되이 흘러내리는 것이 아닙니다; / 보소서, 그녀는 천사들의 가르침을 받을 자격을 얻었으며, / 오 예수님, 당신을 뵈는 영광까지 누렸나이다! /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연약한 여인으로서 세상의 일만 생각하고 있기에, / 그리스도여, 당신께 손을 댈 수 없게 되었나이다; / 그러나 그녀는 선구자로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보내져, /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며, / **주님께서** 아버지의 유산으로 승천하심을 알렸습니다. / 그녀와 함께 우리도 주님의 현현을 뵈게 하소서, / 주님, 주권자이신 주님!

**아침 복음 9**

**엑사포스티라리온 9**

주님, 문이 잠긴 방에 들어오셨을 때, / 사도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나이다: / **숨결로 그들에게** 평화를 베푸시고, / 죄를 사하거나 용서할 권한을 주셨나 *이/다*, / 그리고 8일 후에 토마스에게 당신의 갈비뼈와 손을 보여 주셨으니, / 우리도 그와 함께 외치나이다: / “주님이시며 하나님이시여!”

**성모송:** 주님의 아들이 /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을 보셨을 때, / 하느님의 신부이시며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녀이신 성모님께서서는, / 어머니로서 고통받으시는 **그분**을 바라보며 겪으셨던 / 모든 슬픔을 떨쳐 버리시고, / 그리고 기쁨으로 가득 차 그분의 제자들과 **함께**, / 환호하며 그분을 찬양하셨습니다. / 그러니 지금도 주님을 성모 마리아로 고백하는 자들을 구원하소서.

**복음서 아침 스티히라, 5음조**

*마치* 세상의 끝처럼, / 안식일 *다음 날* 이른 *아침*, / 주님, 그리스도여, 주님은 당신의 친구들에게 나타나시어, / 기적 중의 기적으로 – / 잠긴 문 너머로 오심으로써 – /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확증하셨습니다. / 보라, 주께서는 제자들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고, / 그들에게 성령을 내려 주시며, / 죄를 사해 줄 권능을 주셨고, / 토마스가 불신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게 하셨습니다. / 그러니 우리에게도 참된 지식과 / 죄 사함을 베풀어 주소서, 자비로우신 주님!

아침 복음 10

엑사포스티라리온 10

티베리아스 호수에서 세베대의 아들들인 / 나다나엘과 베드로, 그리고 다른 두 사람, / 토마스가 한때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. / 그들은 그리스도의 명에 따라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, / 수많은 물고기를 건져 올렸습니다. / 베드로는 그분을 알아보고 그분께로 헤엄쳐 갔다. / 그분은 그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셔서, / *그들에게* 빵과 숯불에 구운 생선을 대접하셨다.

**성모송:** 무덤에서 셋째 날 부활하신 주님을, / 동정녀여, 주님을 찬양하며 / 복된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를 위해 간구하소서. / 이는 우리 모두가 주님을 구원의 피난처로, / 주님 앞의 중재자로 삼고 있나이다; / 우리는 성모님의 유산이자 성모님의 종들이니, / 우리 모두는 성모님의 중보에 시선을 돌립니다.

복음서 아침 시편, 6음조

지옥에 내려가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, / 그리스도여, 주님과 떨어져 있는 것이 당연하듯 슬퍼하며, / 제자들은 일하러 나갔으나; / 다시 배와 그물을 던졌으나 잡히는 물고기는 없었습니다. / 그러나 구세주이신 주님께서서는 만물의 주재자로서 나타나시어, / *배의*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명하셨고, / 그 말씀이 즉시 이루어졌습니다: / 수많은 물고기가 잡혔고, / 땅 위에는 놀라운 잔치가 차려졌습니다. / 그 당시 당신의 제자들이 그 잔치에 참여했던 것처럼, / 오늘날 우리도 마음으로 *그 잔치*를 누릴 수 있게 허락하소서, / 사람을 사랑하시는 주님!

아침 복음 11

엑사포스티라리온 11

신성한 부활 후, / 주님께서서는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“나를 사랑하느냐?”고 물으시고 / 그를 자신의 양 떼의 수장으로 세우셨습니다. /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자가 뒤를 따라오는 것을 보고 / 주님께 물었습니다. “그 사람은 어떻습니까?” / – “내가 원한다면,” *주님께* 서 말씀하셨다, / – “그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머물게 하리라. / *그것*이 너와 무슨 상관이나, 친구 베드로야?”

**성모송:** 오, 두려운 신비여! / 오, 비범한 기적이여! / 죽음으로 죽음이 완전히 멸망되었도다. / 누가 주님을 찬양하지 않겠으며, / 누가 주님의 부활과, 육신으로 흠 없이 주님을 낳으신 성모님께 경배하지 않겠는가? / 그분의 중보로 모든 이를 지옥에서 구원하소서.

**복음서 아침 스티히라, 8음조**

부활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구세주여, / 시몬에게 그의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/ 양 떼를 맡기시며, 정성껏 돌보아 주기를 요구하셨습니다. /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: / “베드로야, 네가 나를 사랑하면, / 내 어린 양들을 먹이고, 내 양들을 먹이라.” / 베드로는 즉시 뜨거운 사랑을 드러내며, / 다른 제자에 대해 물었습니다. / 그들의 중보 기도를 통해, 그리스도여, 주님의 양 떼를 / 그들을 흠쳐가는 늑대들로부터 지켜 주소서.